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1호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음력 5월 21일 · 불기 2555년 · 주간)

"나태와 방일로 삶을 허비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인과(因果)를 모르고 연기(緣起)를 모르는 바보이다."

-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주5일 대비해야

내년부터 전면 실시… 소외계층부터 살펴야

'놀토(쉬는 토요일)'가 한국불교의 신행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일요법회는 물론 성인들의 법회 시간과 주말 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은 "주5일제는 한국 사회의 지각변동이다. 단순히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개인사찰의 변화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2006년 격주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가정과 직장, 여가나 취미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놀토에는 놀이동산·리조트 업계·테마파크 등이 20~30%이상 매출을 올리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불교계에서도 주5일제 시행 이후 템플스테이나 각종 신행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주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에는 토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보다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요구될뿐더러 사교육 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계,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성천 사교육없는세상 부소장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사와의 협력구조를 이루고 학생들의 독서, 체험, 진로 등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명상, 문화재 탐방, 사찰 체험,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계성, 이하 위원회)는 동련이 주관하는 '베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마음성장 드림캠프', 명상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의 등을 학교와 연계해 정착 확산할 계획이다.

> 어린이 법회 등 바뀌고
> 템플스테이 등도 개비
> 가족단위 신행도 중요

유진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사무과장은 "교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에 맞춰 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에 따라 학부모들은 가정형편과 교육여건에 따라 주말 교육의 질적 차이, 가정경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 프로그램을 보다 질적으로 차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템플스테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나 학생들이 매주 여행을 가거나 체험활동에 참여 하기는 힘들다"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주말에 가족단위나 개인 신행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우곡선원 부설 심성(인성)교육기관인 우곡심성교육원은 명상프로그램에 불교적인 색채를 빼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도법사인 소승 법사는 "포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불교적인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근본 인성양성과 순수함을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교육학과 고진호 교수는 "포교에 급급해하지 말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교의 대사회 기여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6월 16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강원도 최문순 지사 등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민의 90%이상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3·7기도를 통해 한마음을 모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재서명 추진한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됐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가 재추진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등에 따르면 5월 20일 제출했던 서명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검토 작업 중 주민번호 오류, 중복 서명 등으로 무효 처리된 서명지가 다수 발견됐다.

종자연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은 추가 서명기간인 6월 22~26일 사이에 유효 서명 추가 1만명 확보에 나선다. 박기범 기자

선재 스님·강성용 교수

올해의 불이상 수상, 7월 5일 시상



선재 스님



강성용 교수

강성용 교수(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HK 조교수)를 선정했다.

불이상 심사위원회(최병헌 前 서울대 교수)는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 세계화를 이끈 점과 강성용 교수의 인도 초기 불교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의 불이상 수상자에 선재 스님과 강성용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여성 불자 모임인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6월 15일 제26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선재 스님(善材·56·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연구분야에 강성용 교수(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HK 조교수)를 선정했다.

불이상 심사위원회(최병헌 前 서울대 교수)는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 세계화를 이끈 점과 강성용 교수의 인도 초기 불교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841호 CONTENTS

현장속으로 5
문수 스님 1주기 추모 낙동강 순례



불교리더십을 말한다 16·17
우학 스님



특집·사경 23
경전을 쓰기만해도 부처

"템플스테이 직접 체험해보시라"

자승 스님, 청와대 찾아 MB에 권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13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근대유산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전·발전에 노력해 줄 것과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서로가 화합·상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승 스님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템플스테이·처치스테이·향교스테이 등 각 종교별 문화를 직접 체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간 화합·상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에 종교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사회정의를 논한다

29일, 6월 대토론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자비실천'을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6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박 교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문위원과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법정 스님 등 종교계 거목을 만난다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소장 고준석 신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참종교인이 바라 본 평화-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법정 스님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활동한 다른 종교계 인사들이 세 인물의 삶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나은 기자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

108배는 한 배 올릴 때마다 참회하여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염주알을 한 알씩 꿰어 108염주를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 보십시오.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108염주를 만들어 보십시오.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개인의 기도 수행에 적합합니다.
문의 :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02)2003-8213







관리 탈피 '자율' 요구

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추진… 중첩규제 해소 주력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총무원 기획실은 6월 13일 실무 브리핑을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추진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제를 통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허가사항 및 요건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뜻한다. 기획실은 법률의 '의제' 기능을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전사법 이외의 법령들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사항 간소화 = 기획실이 밝힌 개정안 추진 계획 중 가장 주요한 것이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상 '의제' 기능이다. 현재 전통사찰은 보수 및 각 종 행위 발생시 전통사찰보존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해소를 위해 기획실은 전사법에 따른 행위 허가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의제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전통사찰보존법상 허가를 득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면 전사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찰보전법의 '제9조 허가사항' 중 전통사찰 행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 및 해당 행위의 법률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장과의 협의조항은일괄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제통해 중첩 규제 해소 강화
경내지, 주지 정의도 정비 대상

◆정의 개정= 정부는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상 명시돼 있는 '경내지' 를 사찰소유의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중심사역 토지로 축소 해석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문제는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찰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다.

기획실은 '경내지' 라는 표현 대신 '전통사찰보존지' 라는 개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찰토지 전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해석하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해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산' 이란 용어도 '문화유산' 으로 개념을 확대해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 건축, 조각, 회화 등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예능,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 문화유산이 포함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의 규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전통사찰보존지,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명확한 설정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재 전통사찰은 경내지와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경내지 주변, 인근 취락, 상가 등의 분쟁과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936개 전통사찰 중 '전통사찰보존구역' 이 지정된 경우는 13%인 126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획실은 각 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실행과 관련된 절차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사법 상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 라고 규정돼 있는 주지에 대한 정의도 개정 대상이다. 기획실은 현행법상의 주지에 대한 규정 대신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관장하는 역할로 확대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소조항 삭제 = 기획실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사법 내 독소조항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그동안 전사법의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 '전통사찰 재산처분 허가' , '재산목록의 작성·비치 조항' 등이 오히려 전통사찰을 규제할 뿐이라며 '독소조항' 으로 지적해 왔다.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은 연구·조사와 설립기관의 지원 및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별도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사찰의 재산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기범 기자

"대정부 관계 변한 것 하나도 없다"

법응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공개편지'



'불교와 정책' 법응 스님이 종단이 발표한 대정부 담화문과 관련해 자승 스님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6월 14일 발표했다.

법응 스님은 대정부 관계가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며 5대 결사는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계는 외부에서 불교를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집행부는 결사를 주창한 이래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법응 스님은 또 "결사 주창의 실제적 배경이 된 대정부와의 관계 역시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와의 단절은 문제가 있기에 차치하더라도 5대 결사는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종도들은 33대 집행부의 '불교중흥' '자성과 쇄신결사' 에 본격적으로 불신과 의혹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종단 집행부가 구호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런 종도들의 분노가 총무원장 스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조계종이 혁신적 변화와 사회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고 명확한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법응 스님은 해결 방안으로 종단 권력의 사부대중 배분, 이사를 겸비한 현대적 경영능력 발휘, 계파 불식한 자유로운 인재등용, 종지구현 천착, 약속의 충실한 이행, 불자 존중, 불교 안에서 종단문제 해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박기범 기자

국방부, 종교음악 사용 금지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찬송가를 연주해 논란을 빚은 국방부가 군 행사에서 찬송가 등 종교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6월 10일 '군 행사 군악연주 관련 회의' 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전 부대에 "군 관련 공식행사에서 종교관련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군악대 교범을 새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일본 센다이 7월 8일, 합동천도재

조계종은 7월 8일 일본 센다이(仙台)를 방문해 일본 조동종과 함께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합동 위령 천도재' 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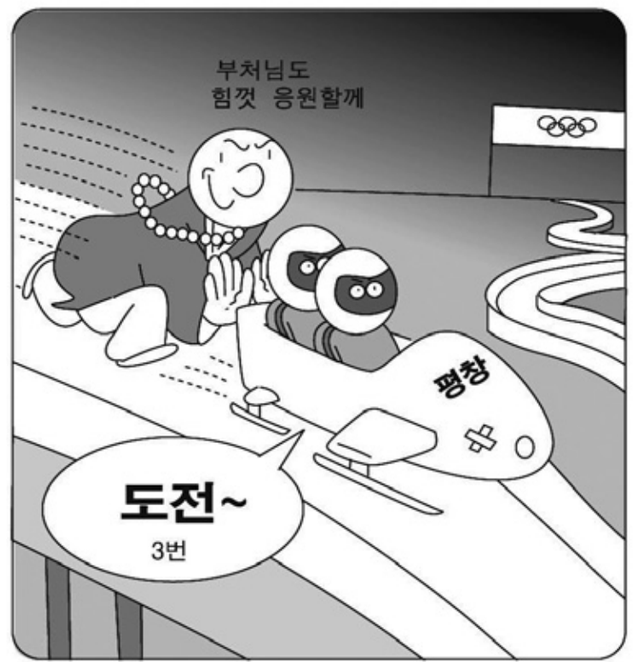
천도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사사키 코이치 조동종 종무총장 등 불교계 인사와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계종은 이번 지진으로 크게 훼손된 센다이 창림사(昌林寺)와 이재민 구호소 등을 찾아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구호성금 3200만엔(4억3000만원)을 비정부기구(NGO)와 동북조선초중급학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심려끼쳐 죄송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템플스테이의 특화와 연등축제 무형문화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자승 스님에게 "그동안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희의 정성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전통문화 보존은 모든 활동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일이다. 종단의 노력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정신문화 운동으로 승화하자"

해인사 끝으로 교구본사결의대회 회향



6월 14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제12교구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의 모습.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에서 열려온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가 합천 해인사 대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6월 14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제12교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종도는 작금의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전국민의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되는 그날 까지 불퇴전의 자세로 여일정진(如一精進)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결의대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5대결사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시고 문수보살이 전해주신 6대서원을 근본으로 하여 5대결사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해인사는 1일 교구 토론회를 통해 채택한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위한 해인총림 사부대중 8대강령' 을 발표했다. 8대강령은 ▷수행자로서 정체성과 수행여건을 마련하여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용맹정진하겠다 ▷자비심과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대중공동의 행복을 찾아 기꺼이 '나' 를 던지겠다 ▷낙태와 사형, 자살 등 모든 인위적 살생을 반대하고, 종교차별 적극 감시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겠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생명사상 현대화하겠다 ▷복지와 봉사의 삶을 적극 실천하겠다 ▷다양한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조화롭게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인아트프로젝트의 회향이다.

조동섭 기자

鏡峰大宗師 29週期 追慕法會

맑고 푸른 기운,
영축 산야를 넘나들며
성하의 계절을 재촉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 호국선원에서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후학들을 제접하셨던
경봉 대종사의 29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방의 대덕 스님들과 사부 대중을 뫼시고
정중한 추모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걸음하시어 귀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기 2555년 6월 좋은 날

일 시 | 불기 2555(2011)년 6월 28일(음 5.27)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각
문 의 | (055) 382-7083

경봉문도회장 명 정 극락호국선원 신도회장 정홍준 합장

2011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11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6명
학사과정(동국대)	9명
학사과정(중앙승가대)	13명
통도사강원	8명
선원·율원	4개소

경봉대종사 제29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 명

경봉문도회
제7회 정기 총회

추모법회 봉행 후 오후1시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열립니다.



불교는 대북 지원의 마지막 희망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북사업 방향 진단… 종교·시민사회 역할 강화 주문


이정철 교수가 현 남북상황에서 불교 등 종교계 역할을 강조했다.

비밀 협상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북측의 폭로가 나오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대북 상황 속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5·24조치 1년, 불교계 대북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철 교수와 토론자들은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불교계가 경색된 남북교류 해소를 위해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남북 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남북이 동일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교류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5·24 조치 중 남북 교역 중단과 북한 무력 도발시 자위권 발동은 우리의 피해를 동반하는 자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대응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진실을 가리는 역효과, 안보민주주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위기를 '구조에서 오는 위기'와 '초청에 의한 위기'로 구분했다. 구조에서 오는 위기는 중국 영향력 강화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제어력 상실로 인한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 초청에 의한 위기는 현재의 대북 상황 자체를 북한의 위기로 인식하고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뜻한다. 통일을 위해 남한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개한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북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 흡수통일과 강압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시민사회와 더욱 협조적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 이런 상황의 결과로 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가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견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 대북지원 이웃종교 비해 미약
> 의약품 지원부터 차근히 늘려가야

토론자들도 현 대북상황에서 종교·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민변 통일위원장 천낙붕 변호사는 "민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될 때 국민들은 종교계를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대북지원 불허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과 달리 불교계는 거의 한 일이 없다. 불교의 역할이 너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훈 EJ컨설팅 이사는 "인도적 지원만큼은 종교계가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종교만이 궁지에 몰린 대북문제를 풀 수 있고, 조계종이 추진하는 평화결사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자 대상의 평화교육 등 불교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추본 남북교류위원장 제정 스님은 "의약품 지원 등 누구나 공감할 분야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생태, 문화, 통일 문제는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앞장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이사장은 불자라도 불교교육 실종

이학송 상임부회장, 교육기관 연계 주장



불교사상을 담은 철학교과서 채택, 불교 교육 프로그램 확산으로 청년불자 양성 등 불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각 종립 교육재단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등록된 학교 수는 903개 법인 1668개. 이중 이사장·이사 등 재단 주요인사가 스님이거나 독실한 불자인 학교는 수십개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교육기관연합체인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된 학교는 60여 년 동안 12개 법인 24개 학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903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불교계
> 불자교육인 발굴해 종립학교 늘려야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상임부회장(의정부 광동고 교장)은 6월 17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2회 불교종립학교 교육포럼에서 '불교교육연합회 회원학교 확장을 위한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하지만 학교교육에서 불교정신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평신도가 한명이라도 학교경영에 참여하면 그 종교의 교육이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교는 불교의 참정신을 교육과정에서 알리기는 커녕 스스로 정체성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불교교육기관들이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교법사 채용 등 적극적인 종교교육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교육기관 간 연계는 굳이 조계종 종립학교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며 "진각종 천태종 등 불교 종립학교와 함께 불교와 인연이 있는 학교를 회원학교로 확대하고 연계활동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독교학교연맹의 경우처럼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통일 시대에 맞는 역할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불교 정신을 담은 교육을 피기위한 대안으로 교법사 채용을 꼽았다. 사실 교법사의 경우 동국대 불교대에서만 한해 평균 10여 명 내외로 배출되는데 비해 채용은 10년에 1,2명 꼴로 이뤄져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회장은 "임용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나 강사초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할 수 있다. 교직원 불교특강과 명상프로그램 등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영천 선화여고를 방문해 야자시간 학생들을 격려한 이후 지역 불교교육계의 열의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법보시가 으뜸이라는 말을 들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불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애불 불전함 관리 '갈등'

총무원 문화부, 최종 의견수렴 후 결정 예정



낙단보 마애불 보존과 관리를 두고 대둔사(주지 진오)와 고운사(주지 호성)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단보에는 2월 18일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한 뒤부터 마애불전에 기도를 올리려는 불자들이 부쩍 늘었다.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기도 후 불전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불전함이 없어 불전이 쉽게 바람에 날리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불전함을 갖다 놓고 '전통문화재보호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라는 설명을 게시했다. 실제로 대둔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전을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그러던 중 낙단보의 행정구역인 의성 고운사가 교구본사로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조계종 문화부에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촉발됐다.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양쪽의 입장은 충분히 수렴해서 파악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법륜 스님 "통일은 민족적 사명"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서 제기… 지도층 역사인식 전환 강조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통일은 한반도를 중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동북아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통일의 필요성과 지도자들의 역사적 인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법륜 스님은 주제강의 '21세기 민족미래, 통일을 향한 결단'에서 국가위상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사회 리더들이 '통일'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규모를 확장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통일을 하면 국토 면적은 2배 가량 증가하며 인구 또한 7000만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주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는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약소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2012년 한국의 대선, 중국의 최고지도자 정권교체, 2013년 미국의 정권교체를 통일의 중요한 변수로 분석했다.

법륜 스님은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통일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다. 신라 삼국통일이나 민족 독립운동 때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스님들과 같이 불교 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평화통일은 이념적, 역사적, 기질, 종도, 승속을 불문하고 불교계가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지도자들의 역사적 인식전환과 화쟁사상을 통해 화합을 이뤄가야 함을 강조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범어사 방화범 5년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가 범어사 방화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 씨의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기범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사서 : 석윤오, 박선혜화)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국장 석법진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석정은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 주 문



사도세자 기신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6월 22일 오후 7시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49주기 기신제를 봉행한다. (031)234-0040



법주사 특별 수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7월 25~28일 법주사 능인수련원에서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 초청 금강경 참선수행 특별수련법회를 봉행한다.



은해사·영천서 친선 축구대회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영천경찰서와 함께 영천서 내 풋살경기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불국사 명상음악 국제 시연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5월 24일 LA 스테이트 플레이하우스(State Playhouse)에서 불국사 합창단의 선·명상음악 시연을 선보였다.



고운사 산채요리경연대회 금상 수상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5월 13~ 15일 서울산업통산 진흥원에서 개최된 2011 대한민국 산채요리전시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송광사 새벽예불 음반 나와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 새벽 예불을 국내 최초로 DSD 5.0 채널 서라운드 방식으로 녹음한 〈Echoes of the great pines〉을 출시했다.



봉선사 연꽃 축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6월 22~7월 23일 2011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선학원 만해 스님 추모다례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6월 29일 오전 10시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 다례제 봉행한다.



임제록 무료강좌 개설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6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청주시청 건너편 불교신행회관 5층에서 임제록 무료강좌를 연다. (016)305-6066



금강노인문화센터 자살예방 특강
곽인철 금강노인문화센터 관장은 6월 16일 경남자살예방협회 이주경 상담실장을 초빙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만해 정신 잇는다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100주년 맞아 법인화 추진 등 계획 밝혀

"불교문화 예술 창달과 생활불교 실천에 앞장서는 젊은 지도자 양성과 청소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이하 한불청)회장 도각 스님(태고종 종정 예경실장)은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법회에서 청년인재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각 스님은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이자 마지막 민족적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청년, 청소년 및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인재불사와 함께 법인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법인화를 추진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법인화가 늦춰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종단 및 관련 행정부처와 상의해 법인화 추진에 진력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불청은 1911년 6월 15일 하동 쌍계사에서 만해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59명의 청년 스님이 모인 가운데 '조선불교청년회' 발기 창립이 시초가 됐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919년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참가에 공헌 한 이후 1924년 각황사에서 총회를 열고 간사제를 총재제로 바꿨다.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조직을 변경해 활동하다 1944년 만해 스님이



열반하고, 광복을 맞으면서 1947년 한국불교청년회로 개명, 이용조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불청과 조계종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만해 스님을 초대 총재로 조선불교청년회에 뿌리를 두고 이어오다 광복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로 나뉘어 졌다.

1990년 대 들어 조직은 불교상담소 및 청소년 지도연구원 운영, 태고사 참나찾기 수련대회 개최, 마음의 전화 개통, 참나청소년통일문화예술대전, 참나찾기 팔관재 한가족 명상요가 교실 등을 진행하며 산중불교, 기복불교, 늙은불교를 버리고 대중불교, 현대불교, 젊은불교로 개혁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후 2009년 청년조직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강화, 생활불교 구현과 청소년 선도 육성의 창립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불교천년지도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도각 스님은 "재 개명을 통해 평화통일과 불교유신사상을 이어가고 화쟁의 원칙, 회통의 정신, 무애의 실천 등 중도사상으로 한불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회장을 역임해 온 도각 수님은 참나찾기수련원과 선 심리치료명상 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를 통해 웰빙·명상문화 및 명상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불자들의 심신수련과 고민상담 등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왔다. 매년 대한민국청소년민족문화예술대전, 모범청소년장학금 전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불교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순수예술성 개발을 위한 참나찾기 운동은 1996년 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8가지 계율[八分齋戒]를 지켜 절제와 순결, 청정한 청소년 선도문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통일과 민족문화라는 공동 논제를 다양하게 작품화 하면서 청소년과 지도자들간 소통,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언 기자

동국대, 출신 언론인 뭉치다

남산미디어포럼 창립… 초대 회장에 하동근 재능TV 사장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6월 15일 앰버서더 호텔에서 동문 출신 언론인이 주축으로 구성된 남산미디어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하동근 재능TV 사장,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이성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정책협력실장 등 70여 동문 언론인이 참석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하동근 재능TV 사장이 선출됐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는 투철한 기자정신과 모교발전에 대한 기여로 동문언론인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하동근 초대 회장은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져 무척 기쁘다"며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 이 포럼이 잘 이어져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산미디어포럼은 앞으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학문적 교류를 위한 사업 ▷정책 대안의 도출 및 이를 확산시키는 사업 ▷사회발전 관련 정책연구 사업 ▷회보 발간 및 출판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대여라는 말 없게 노력해달라"

의궤 반환 주역 박병선 박사 등 인터뷰



박병선 박사(사진 좌)와 자크 랑 前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기자회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45년 만에 프랑스에 약탈됐던 외규장각도서가 모두 돌아왔다. 6월 11일 광화문에서는 의궤귀환을 축하하는 국민환영행사가 열렸다. 같은 날, 행사에 앞서 이번 의궤 반환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와 자크 랑 前 프랑스 문화부장관, 뱅상 베르제 파리 제7대학 총장, 박흥신 주불 한국대사가 국립중앙박물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병선 박사는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다"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박 박사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던 외규장각의궤 297권을 발견해 문화재반환운동의 불씨를 붙인 인물이다.

박병선 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의궤를 찾았다"고 회고했다.

박 박사는 "의궤가 다시 프랑스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한국 땅에 남아있도록, 또한 대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82살의 노령이지만, 박병선 박사는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녀는 "올해 병인양요 때 프랑스함대장이 본국으로 보낸 자료집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일본강점기 때 프랑스영사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발굴해 한국독립 운동사를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12년간 프랑스 문화부장관을 지낸 자크 랑 前 장관은 다수 프랑스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궤 귀환을 이룬 1등공신이다. 랑 前 장관은 사르코지 대통령을 설득해 국가 간 약속은 신뢰와 우애 차원에서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외규장각도서반환은 영구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방식이다. 자크 랑 前 장관은 "의례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지속적 반환이다"라고 강조했다.

랑 前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대여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반환이냐 대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궤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뱅상 베르제 파리7대학 총장은 외규장각도서반환지지단체를 결성하여 '르몽드'지에 기고하는 등 프랑스 내 여론을 주도했다. 베르제 총장도 "있다는 것과 갖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 문제"라면서 "의궤가 서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는 이번에 돌려받은 의궤 외에 〈직지심체요절〉과 〈왕오천축국전〉 등 우리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조동섭 기자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무상공존자 문하 도암선사 문도 전법건당

佛祖로부터 達磨禪師와 處寂禪師를 거쳐
無相空尊者로 이어진 禪旨와 禪風을 傳하고자
佛祖 75代孫, 無相空尊者 41世 門下인 道庵禪師는
法悟見知한 因緣에 75位의 歷代祖師를 證明法師로 하여
傳法堂을 開壇하고 不思議한 寂靜妙法을 綿綿受持케 하노라

道庵禪師傳法偈

본래가 청정함인데 무엇을 닦고자 하는가
취함이 없으면 여여하여 움직임 없느니라

傳法弟子

효원 능인 (曉圓能仁)	설원 연지 (說圓蓮知)	자원 운담 (慈圓雲潭)
진원 능원 (眞圓能元)	일원 능혜 (一圓能慧)	혜원 능각 (慧圓能覺)
초원 임덕 (初圓林德)	녹원 경원 (綠垣鏡元)	시원 태경 (視圓胎鏡)
심원 능효 (心圓能曉)	지원 능안 (智圓能安)	

건당일 : 불기 2555년 음력 4월 29일

無相空尊者 門下 道庵禪師 門徒會

www.arahan.org / 문의처 031)753-3360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삭발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순례 참가자들이 회룡포 마을로 들어서기 위해 내성천을 건너고 있다.



마애불이 발견된 낙동강 구간. 바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의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문수 스님 뜻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경남 회룡포-낙단보 마애불-군위 지보사로 이어진 추모의 순례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추모하는 마지막 행사가 진행됐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문수 스님 소신공양 선양사업회는 낙단보 일대와 지보사를 방문하는 순례를 6월 11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순례를 통해 이 땅의 생명평화를 위해 희생한 문수 스님의 희생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전문〉

#1 출발 - 긴장과 설레임의 교차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참가자들의 모습은 주말의 단잠을 놓쳐버린 아쉬움과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서먹함, 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된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이 모두 승차하자 버스는 아직 잠이 덜 깬 서울 시내를 달리는 듯 하더니 이내 고속도로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문수 스님 추모 마지막 행사이고 주말에 진행된 탓인지 참가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인원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소통과 문수 스님의 뜻을 공유하기에 오히려 적당했다.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나눴다.

#2 회룡포 - 절경 속 4대강의 암운

4시간 정도 달려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예천의 회룡포였다.

순례단은 토요일 오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비룡산 전망대가 있는 비룡산에 올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함께 산을 오르다보니 처음의 서먹했던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졌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순례단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회룡포 마을은 이름처럼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내성천이 용처럼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모습에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전망대까지 오른 피로도 잊은 채 아름다운 전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내성천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은 위기에 처했다. 댐이 건설되면 내성천의 모래가 하류로 쓸려내려가도 상류에서 새로운 모래가 공급되지 않는다. 내성천 하류에서는 낙동강 구간 4대강 개발이 진행 중이라 회룡포 마을의 모래 침식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금의 절경이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산을 내려 회룡포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한 동안 산을 내려가자 전망대에서 바라봤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성천은 물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았고, 모래사장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는 철제로 된 작은 다리 뿐이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회룡포
형체 알아볼 수 없는 낙동강

내성천을 건너 모래사장을 지나 들어선 회룡포 마을은 한적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될 회룡포의 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로운 정경만이 가득했다.

현희련 에코붓다 사무국장은 "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모양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환경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과 이익을 먼저 떠올린다"며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회룡포의 앞날을 안타까워했다.

#2 낙동강 - 위태로운 부처님

버스에 다시 오른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마애불의 발견과 훼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낙단보 4대강 공사구간이었다.

낙단보에 도착하자 참가단은 낙동강 곳곳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파헤쳐진 모습을 보고 경직될 수 밖에 없었다. 광활한 낙동강 곳곳에서 대형 중장비들과 공사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마애불이 발견되고, 문수 스님이 저 모습을 보시며 소신 공양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참가자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공사장 입구에는 '천년 전 마애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마애불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에 따라 철제 사다리를 내려서 좁은 통로에 들어서자 흰색 천으로 둘러싸인 작은 장소가 나타났다. 마애불은 그 속에서 낙동강과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천공은 더 깊고 커보였고, 마애불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회룡포에서 보았던 맑고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되면서 낙동강 현장은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로 현장 소식을 전달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두환 불교환경연대 조직국장은 "직접보니 정말 참담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마애불이 제대로 보존 될 수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3 지보사 - 지친 마음의 안식처

참가자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음 예정지인 지보사로 향했다. 충격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정보다 다소 서둘렀다.

지보사 입구에는 몇 일전 마련된 문수 스님의 부도탑이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크지 않은 규모로 주변 산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보사의 아늑함은 참가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다. 참가자들은 법당에 들려 부처님과 문수 스님에게 기도를 올렸다. 사진 속 문수 스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당에서 나온 참가자들은 지보사를 둘러보며 문수 스님의 자취를 느꼈다. 아늑한 주변 경치와 고즈넉한 사찰이 수행처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문수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수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방은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아직 스님의 맑은 기운이 넘쳐 나는 듯 했다.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 중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중생들의 아픔을 슬퍼하시며 낙동강으로 걸어가 소신 공양을 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문수 스님 부도탑 앞에 모였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님을 추모하며 세운 부도탑이다.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석종의 형태로 제작된 부도탑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듯 했다. 참가자들은 부도탑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며 두 손을 모았다.

#4 회향 -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전,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낙동강에서는 4대강 공사 중 마애불이 발견돼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마애불도 문수 스님처럼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나투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뜻이 낙동강 사업 구간에서만 두 번이나 발현됐음에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고,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불교계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참가자들은 성토와 반성 등 순례의 소감을 나눴다.

SNS로 현장 전하며 한숨
문수 스님 뜻 실천 다짐

강인영 보살은 "순례에 참가해 현장을 직접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낙단보에서의 부처님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다. 전국의 있는 사찰과 포교당들이 매일 낙단보에 와서 기도를 하고 불교계가 어떤 마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거슬러서는 살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연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부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현희련 국장은 "이 땅의 생명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수경 스님 생각이 많이 났다. 낙동강에 들렀을 때는 내가 죄인이다 싶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소중한 생명들이다. 나부터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소신 공양을 하셨다. 마애 부처님이 낙단보에 나투신 것은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불교계가 적극 나설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이런 의미들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했다. 중생을 위해 넓은 마음을 내고 생명을 위하는 씨앗을 키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참가자들이 문수 스님 부도탑 앞에서 스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불교교리 경시대회 확대 실시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8월 28일 전국서, 7월 4~16일 접수

전국 청소년 불자들의 불교교리 수준을 점검하는 경시대회가 열린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6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이하 경시대회) 요강을 발표하고 대회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운영위원장으로는 성효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자광 스님(군종특별교구장), 도후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동국대 김희옥 총장이 위촉됐으며 운영위원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상인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오택원(동대부고), 김용선(동대부여고) 등 11명의 불교종립학교 교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출제심사위원은 법인 스님,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맡는다.

이번 경시대회는 초 · 중 ·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 · 고등부는 8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속초, 경주, 전주, 진해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되며, 초등부는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골든벨 형식의 퀴즈대회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군장병을 위한 경시대회는 전국 군법당으로 확대 실시된다.

중 · 고등부의 출제범위는 기본교재 〈청소년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와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부문에서 불교교리 · 역사 · 문화 · 신행 · 생활 등에서 고루 출제할 방침이다. 초등부는 〈어린이 법요집〉 〈우리들의 부처님〉 〈야호! 법회 가는 날이다〉(조계종출판사 刊)와 동련 정기간행물 〈연꽃〉에서 출제한다. 군장병들은 〈불교입문〉에서 출제한다.

시험유형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구성되며 고등부는 45문항, 중등부는 40문항, 군장병은 40문항이 출제된다. 초등부는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시대회의 출제경향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서 문화 · 수행결사를 접목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상은 개인부문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초중고 각 1명씩 100 · 200 · 3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군장병 1명 5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총장상(초중고 각각 2명씩 50 · 80 · 100만원), 조계종 포교원장상(군장병 2명 3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정각원장상(초중고 각 3명씩 30 · 50 · 80만원), 조계종 특별교구장상(군장병 3명 20만원) △장려상인 동국대 불교대학장상(초중고 각 10명씩 20 · 30 · 50만원), 군종특별교구장상(군장병 10명 10만원) △입상인 은정불교문화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10%)과 군종특별교구장상(군장병 참가자 상위10%) 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단체부문 대상인 총무원장상(1개 단체)은 10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이사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2개 단체)은 각 80만원, 우수상인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상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6개 단체)은 각각 장학금 50만원이 전달된다.

또 참가자 가운데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등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어 온 학생 5명을 선발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 성적을 거둔 고3 수험생이 2012학년도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등 불교종립대학에 응시할 경우 반영자료로 활용된다.

접수방법은 7월 4~16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대회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마음 속 상처까지 치유해드려요"

약사여래불의 마음을 닮은 '연우와 함께' 의료봉사단



"연세가 있어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 베풀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 연우야'(단장 황채운) 봉사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안명자 재무부장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안 재무부장은 올해 47세로 봉사단에서도 가장 젊은 '막내'다. 가장 나이가 많은 봉사자와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들 이해심이 넓어 세대차이도 느끼지 못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반갑다 연우야'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운영하는 '연우'의 의료봉사단이다. 2006년 2월 결성, 동국대 일산병원, 서울인치과, 연우치과 및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 한의사 불자연합회 의료진과 연계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6월 12일에는 군포 경찰서와 함께 군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경찰서와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 봉사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외된 이웃들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황채운 단장은 봉사단 결성 전부터 강남 봉은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반갑다 연우야' 창립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활동 중인 각 분야별 팀장들도 모두 황 단장과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황 단장이 '반갑다 연우야' 참여를 권하자 이들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던 황 단장의 깊은 불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갑다 연우야'는 봉사활동 중에는 가급적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다. 경민숙 치과진료팀장은 "혹시라도 종교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을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연계해 활동하는 특성상 봉사는 항상 주말에 이뤄진다. '반갑다 연우야' 봉사자들은 대부분 주부들인데, 모처럼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현숙 한방진료 팀장은 "하지만 가족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죠. 봉사가 있는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이 하루 종일 먹을 밥과 반찬을 챙겨놓고도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옵니다"라고 말했다.

봉사자들 중에서는 봉사활동의 보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김점실 이주민진료팀장은 "젊어서부터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껴봐야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 합니다"라고 말했다.

'반갑다 연우야'가 수년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들은 또 다양한 봉사활동의 현장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황채운 단장은 "올해로 6년째인데, 후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폭넓은 의료봉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올 가을에 걷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불교계 의료봉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신흥사와 월정사의 결승전 모습.

신흥사 3년 연속 종합 1위

제3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6월 11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 및 보은중학교에서 '제3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을 개최했다. 올해는 조계종 9개 교구본사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포교 역량 결집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3년 연속 축구제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 2위는 김천 직지사에게 돌아갔으며 종합 3위는 보은 법주와 양산 통도사가 공동 수상했다.

종합 1위에는 300만원, 종합 2위에는 200만원, 종합 3위에는 150만원의 포교활성화지원금이 수여됐다. 이은정 기자

"3 · 7 기도 통해 한마음으로"

조계종,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나서

"3 · 7기도를 통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으로 모은다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선정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을 중심으로 불교계는 21일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16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유치기원 대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 지사,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등 정계, 종교계, 체육계, 직할교구신도회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문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봉행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2002년 한 · 일 월드컵에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동계 스포츠 종목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원법회에 앞서 같은 날 선수촌법당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3 · 7일 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전국 교구본 · 말사에서는 7월 6일까지 사시예불시 축원문을 낭독으로 유치를 기원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

공불련, 제11차 합동 수계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가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에서 6월 11~12일 제11차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충청북도청불자회 이장근 회장의 '직지와 인쇄문화', 경상남도청 불자회에서 '2011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 108배 명상 포행, 암자순례, 수계법회 등이 진행됐다.

공불련 하복동 회장은 "공무원 불자들은 계를 받아 불퇴전의 자세로 정진하고 심신을 모아 국민의 도반이자 손과 발이 돼 감동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축사에서 "'소통의 행정'은 이 시대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행이다. 이 법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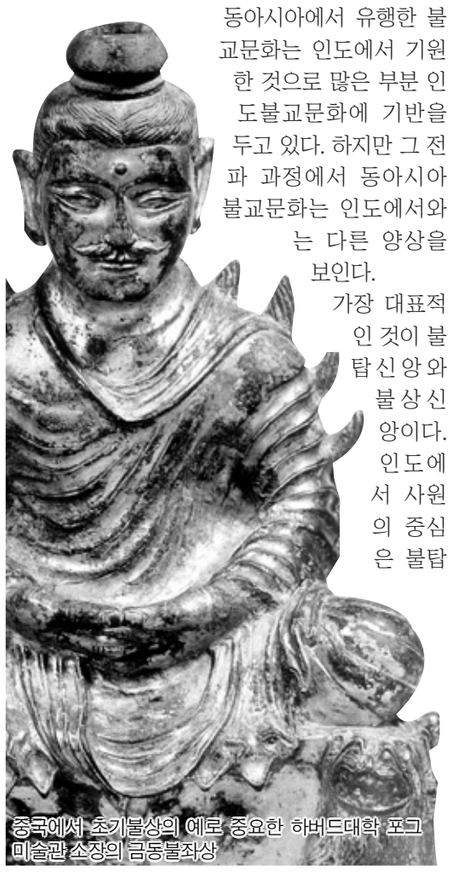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모바일이 불탑을 불상화했다

주수완 한국미술사硏 책임연구원, 불탑신앙의 변천에 주목


중국에서 초기불상의 예로 중요한 하버드대학 포그 미술관 소장의 금동불좌상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문화는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많은 부분 인도불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전파 과정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화는 인도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탑신앙과 불상신앙이다. 인도에서 사원의 중심은 불탑이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 중심이 불상으로 옮겨졌다. 불상은 어떻게 불탑의 신성성과 존업성을 계승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오늘날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주목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수완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월 11일 열린 동양미술사학회 창립학술세미나에서 불탑신앙이 불상신앙으로 전개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부처의 사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대승불교적 사고방식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주 연구원은 불탑과 불상에 대한 변모를 인도인의 추상물에 대한 선호와 동북아인들의 현물에 대한 선호 차이로 들고, 이와 함께 물질적인 숭배물 없이 그 위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신앙의 발달이 불상신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고대시대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하나의 신전 역할을 했다. 인도의 스투파는 그 정통성을 아쇼카 왕이 8만 4000개의 탑을 세운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실제 진신사리를 갖고 있지 않은 중국은 설화를 만들어 불탑을 만들시 사리신앙의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원은 "하지만 그런 정통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화를 점차 복제가 가능한 불상으로 옮겨갔던 것"이라며 "복제한 불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화도 함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이러한 신앙 변천은 현대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주목했다.

주 연구원은 "불교는 분명 외래 종교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히 전통종교를 자리를 잡았다. 중국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인위적으로 전통을 만들어 낸 것은 불교의 토착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연구원은 "중국불교가 전통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간 것을 볼때 그들이 공들여 했던 작업은 지금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도 될 정도로 매우 성공을 거둔 거대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큰 규모의 불탑은 각 지역의 포교에 용이치 않아 점차 작은 규모의 불탑으로 변해갔고 불상이 이를 대체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미술사학회의 창립세미나에서는 중국 불탑 및 불교미술관련 발제가 이어졌다.

주 연구원의 발제에 앞서 강병희 한양대 문학박사는 "중국의 불탑은 인도, 간다라, 서역불교의 것을 담았지만 노자의 사당을 함께 모시는 등 격의불교의 형식을 띄었다"며 "이는 중국만의 독특한 발전상"이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중국에서 왕즉불 사상 아래 불상과 황제를 동일시 하는 경향도 불전의 규모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불탑에 대한 인식 약화를 불러왔다"며 "남북조 후기에는 완연히 불전이 중심을 이루는 사찰배치로 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허 스님의 行化는 배우지 말 길"

한암 스님의 '경허집' 출간 안된 이유, 학술대회서 밝혀져


토론에서는 한암 스님이 〈경허집〉에서 경허 스님의 행화를 후학들이 따르지 말 것을 말한 배경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의 손으로 엮은 〈경허집〉가 평창 월정사로 돌아온 이후 처음 열린 한암사상연구원 학술대회. 대회에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이 출간되지 않고 세상을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졌다.

1930년 만공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서찰을 보내 부탁을 해 한암 스님 나이 56세인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직접 스승의 행장을 찬술하고 법어와 시 등을 엮었다. 하지만 이는 출간되지 못했고 1943년 만해 스님이 선학원에서 펴낸 〈경허집〉에서도 그 언급이 빠진다.

평창 월정사와 한암문도회가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허선사와 한암선사'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선 〈경허집〉 편찬과 관련된 선풍의 차이와 그 계승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은 선학원판보다 12년 앞서 선학원판의 저본이 됐을 것"이라며 "선학원판에 한암 스님 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경허 화상의 법화(法化)를 배움은 옳으나 (무애행으로 유명했던 경허) 화상의 행화(行化)를 배우면 안된다'는 문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경허 스님이 자유로운 선승이었다면 한암 스님은 전형적인 선승이었다"며 "한암 스님이 경허 스님의 높은 안목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교단을 생각하는 고민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어 만공 스님의 입장에서는 출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암과 만공 스님의 행적을 짚으며 그 차이점을 고찰하는 발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평창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50여 명이 참석해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노덕현 기자

"원래 육식금지 계율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남궁선 박사, 선리학술硏서 새 생태운동 주장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시대를 가리자 않고 불식육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다. 불식육 조항의 근본 목적은 불살생의 자비정신에 있다. 이런 사려깊은 식생활을 살리는 것이 현대 불교인들의 과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 함께 갔다. 안주가 나왔다. 돼지고기 숙주 무침이다. 당신은 오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불자다. 숙주만 골라 먹을 것인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인가.

한국에서 일상 생활에서 계를 받은 재가불자들, 아니 모든 불자들이 고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뇌를 현대적인 과제로 부각시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남궁선 동국대 박사는 6월 14일 열린 제5회 선리학술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불교 불식육계의 생태학적 고찰'을 주제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남궁선 박사는 먼저 근본불교에서 불식육계의 계율에 대해 주목했다. 남 박사는 "불교에서 불식육은 어느 경우에건 꼭 지켜야 하는 계율은 아니었다. 고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먹을 수도 있는 하나의 음식물로 붓다는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맛에 탐착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것은 불식육계를 범한 사람에게 재물을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바일제를 적용시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인간의 체질적 특성과 자비심 함양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불식육계를 운영했으며 생태계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른 식생활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 박사는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드러나는 불식육계 계율의 죄목이 증가함은 이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잡식성인 인간 본연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 박사는 이런 특성에도 불식육계가 등장한 배경을 강조하며 새 생태 · 먹거리 운동을 펼칠 시기라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불식육계는 이런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도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그 실천 목적은 바로 불살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육식과 채식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불식육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생이 가급적 적게 일어나고, 맛을 위해 동식물을 잔혹히 사육하는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8관 재계를 새로 제정해 한달에 6일 만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불식육일을 불자들이 앞장서 스스로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또 실천 가능한 생태계(生態戒)를 제정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 **동국대 경주캠퍼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초청 특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 사회과학대학원(원장 박병식)은 6월 14일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전 동국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21세기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행복해 지는 비결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천태종 제4차 한중 학술포럼**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5일 오전 10시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와 함께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에서 제4차 한중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불교교육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한국측에서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이 '불타와 교육'을 기조발제하며 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불교의 승가교육과 승려의 사회적 역할',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불교의 신도교육과 사회발전', 천태종 교육부장 세운 스님이 '천태종의 교육이념과 신도교육'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예술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6월 4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불교의 예술, 심리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제1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 · 심 · 사 · 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5대결사 동참으로 청년불교 도약

부산 홍법사서,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성료… 철야정진으로 심신 고취



(왼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 참석해 청년불자를 격려했다.

전국 2000여 청년불자들이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실천의지를 다지며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는 6월 11~12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성료했다. '청년 만해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해 5대 결사 실천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5대 결사 실천안으로는 '청년불자 33대 서원'을 통한 수행결사, '청년호법단' 결성으로 문화결사,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로 생명결사, '만해청년봉사단' 건설과 '무재칠시운동' 전개로 나눔결사, '종교평화위원회'와 '통일위원회' 활동을 통한 평화결사를 제시했다.

대불청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에서 "대불청 초대 총재였던 만해 스님과 조선불교청년회 선배들이 독립이라는 화두로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했다면, 대불청과 청년 불자들은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을 화두로 불교 중흥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청은 김희영 중앙회 자문위원에게 전국불교청년대회 불청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지구상은 서울지구, 최우수지회상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은 손영희 조계사 청년회 자문위원, 자랑스런불청 선배상은 이상번 만해백일장 심사위원이 수상했다.

행사는 축제에 그치지 않았다. 본대회에 이어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정진의 밤 및 아침예불, 회향식을 진행하며 수행정진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수행 프로그램은 사성제를 주제로 '고성제' 108배 정진기도, '집성제' 참선수행, '멸성제' 행선, '도성제' 3300알 염주만들기 등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정진의 밤에는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반야원 주지 안도 스님이 2000여 청년 불자들의 멘토가 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정범 스님은 "복덕이 공덕으로,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식에 그친 불교가 아니라 종교적 체험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념으로 내 마음의 염파와 관세음보살의 염파가 통할 수 있도록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제' 멘토인 하림 스님은 "수행은 긴 시간동안 하는 것보다 한 순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좋은 것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것에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나빠 보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데로 잡으면 내 것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를 만들고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멸성제' 멘토인 안도 스님은 "행선을 할 때는 들숨과 날숨 호흡법으로 번뇌를 떨칠 수 있다. 손은 단전 앞에 가지런히 차수하고, 한걸음 한걸음에 호흡을 느껴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도성제'는 모두의 서원을 담은 3300알 염주를 꿰는 것으로 정진의 밤은 마무리됐다. 1인당 3알의 염주를 한 줄의 실에 꿰고, '도성제'에 참여한 1000여 명이 모두 완성할 때까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다.

일철 스님은 지도 법문에서 "보통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때 '꼭'은 변함없는 다짐을 뜻한다. 큰 서원 앞에 마장이 들지 않은 마음으로 염을 하며 끼워, 내 마음에 한줌의 불성의 씨앗이 마음을 채우고, 발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한다. 마음으로는 서원을 염하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라"고 지도했다.

박지원 기자

정우식 회장 "냉정한 참회, 재도약 발원"



"'청년 만해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는 청년불자들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위기의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청년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도약을 천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중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교편향 폄훼 등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청년불교가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기 위해 부처님 법과 창립 정신에 맞게 청년 불자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참회하고 발심을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장애 극복하며 불교 매력 찾아

불교용품 브랜드 '나란자라' 김도경 대표



"부처님께서 나란자라 강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강가를 거닐며 고뇌하고 아파하는 중생들에게 손내밀어 주고,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답을 해주셨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김도경 씨(33, 법명 묘련)는 부처님의 이름을 단 수공예 불교용품을 만들어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보시 및 판매한다.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돈을 벌면 해외여행을 꿈꾸고 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던 모습은 없어졌다. 나를 위한 일보다 이웃을 위한 일이 먼저가 된 김도경 씨를 변화시킨 것은 예기치 않던 사고와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2007년 가을, 그녀가 스물아홉 살 되던 해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 광대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전신 뼈 32개 이상이 탈골돼 수차례 대수술을 치렀지만 평생 하반신마비로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이라 생각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 힘든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한 한 스님에게 염주를 건네받았다.

"염주를 건네받는 순간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며,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를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꼈죠."

불교와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퇴원 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MP3로 염불을 들으며 무작정 길을 걸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발걸음은 어느새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다.

"마음을 이쪽으로 끌고 가니 이쪽에 있고, 저쪽으로 끌고 가니 저쪽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주변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들 해요."

그날 이후, 집에서 〈천수경〉 〈법성게〉 〈지장경〉 〈금강경〉 등 경전을 일보일배의 심정으로 사경수행을 시작했다. 평소 솔직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녀였기에 누가 이끄는 데로가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이때 그녀가 배운 것은 거창한 경전공부가 아닌 스스로를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었다.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불교의 매력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를 알기 전에는 지금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건강한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다. 모두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김 씨는 "마음을 쉬어버리니 몸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본래 다리로 돌아가려고 애썼다면 괴로움만 생기지만, 그녀는 업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음을 인정하고 그 대신 더욱 예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서원을 담아 부처님의 이름을 단 수공예 불교용품 전문점 '나란자라'를 만들어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보시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란자라' 강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고 내려와 나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그런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제2의 인생길을 걷는 불교용품 브랜드 '나란자라'에 담겨 있다. "부처님 법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최고이듯 불교용품도 최고로 만들어 많은 이들이 불법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김도경 씨의 걸음은 당당하고 힘차보였다.

http://blog.naver.com/nrzara

박지원 기자

'혜원문화축제' 어울림의 장으로 거듭나다



혜원문화축제에서 진행된 차문화 행사는 부산 지역 10여 사찰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11 혜원문화축제'가 올해 열 돌을 맞으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제10회 혜원문화축제는 혜원(이사장 원허, 혜원정사 주지) 주최로 6월 10~11일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 일원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차문화축제, 혜원백일장, 혜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문화축제는 올해로 3번째 열리는 행사로 혜원정사 다인회를 비롯해 부산차문화진흥원(원장 이미자),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종) 등 10여개 다인회에서 약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지원 기자

관음종 부산교구 종무원 개원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 부산교구 종무원이 6월 14일 문현동 무문 홍법사(주지대행 호명)에 문을 열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신임 부산교구 종무원장 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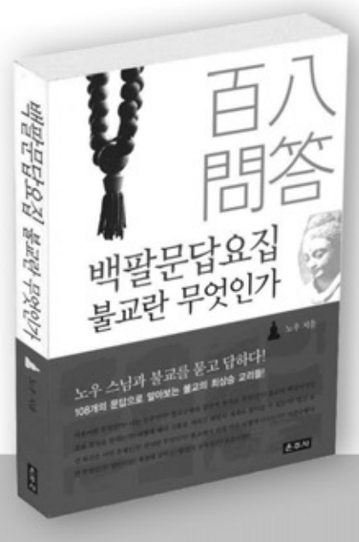
관음종 부산교구는 지역 종무행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출재가 교육 활성화, 지역 신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051) 631-6296

박지원 기자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百八問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개천에서도 용 날 수 있다”

무료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농산촌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청소년들과 농산촌 청소년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골짜기 산골 작은 사찰에서 인재육성의 원력을 세우고 청소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남원 인월면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 스님은 농산촌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 수행을 통한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통한 것이고, 셋째는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그중 세 번째를 선택해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공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청소년 공부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 2008년 무렵 불사와 지장기도를 하던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이 오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 스님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실천을 결심했다.

작은 시골마을인 남원시 인월면에는 학교가 끝난 뒤 갈 수 있는 변변한 학원이나 도서관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도시 아이들과는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스님은 인월면에 5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등용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었다.

‘등용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도서열람실과 집단 지도실, 휴게실, CCTV 등을 갖춰 도시의 어떤 공부방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2010년에는 ‘사람과 희망’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법인도 설립했다.

방학 동안에는 도시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의 청소년들은 산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좋고 산골 청소년들은 도시의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류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 자질이 갖춰져 있어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농산촌 아이들도 얼마든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이름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의 ‘등용 청소년 공부방’으로 정했습니다.”

공부방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 학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낮에는 절에서 수행하고 저녁이면 공부방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갔다. 평소 20~30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며 시험기간에는 60명 정도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시골학교에서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외국어 고등학교와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기자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절에 찾아와 놀고 가거나 절일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생성돼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월공 스님은 “‘등용청소년 공부방’에서 수많은 용들이 탄생하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정, 불교통해 지역과 화합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잔치



빛고을 광주 다문화가족들의 마을잔치가 열렸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는 대광사에서 6월 11일 ‘다문화가족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의 전래놀이와 체육대회로 문을 열어, 줄다리기, 줄넘기, 2인 3각 게임 등 이 펼쳐졌다. 이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오카리나 공연, 가야금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회 회장 김분옥(중국 · 42)씨는 “모임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한국의 전래놀이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문화가족들을 이끄는 것 외에도, 청소년 상담과 교육청의 진로상담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행사를 마련한 정선 스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2009년 1월 개소해,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가을나들이, 김장김치나누기, 다문화가족 큰잔치, 빛고을사랑운동을 비롯해, 일자리창출, 한국요리수업, 생활상담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전통악기 배우기와 어린이들을 위한 율동과 놀이교실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선원사, 무료 급식 봉사

6월 14일 부산 구서역서



‘짜장 스님’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가 부산의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6월 14일 부산 구서역에서 펼쳤다. 선원사와 범어사, 화엄사, 바라밀회는 1주일에 3번 돌아가며 급식을 담당한다.

선원사 봉사자는 “‘스님 짜장’ 봉사를 통해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익산불교신도회, 숭림사에서 템플스테이

참선, 108배 등 첨여… 회원간 유대 증진 기대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 임원진들이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에서 6월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22명의 임원이 동참한 이번 숭림사 템플스테이는 참선, 발우공양, 다도, 둘레길 탐방, 스님과의 대화, 108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지역사찰 활성화 기여와 회원들간 유대증진 및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숭림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했다. 숭림사는 익산지역 유일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난해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숭림사는 또 지역 포교거점사찰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이다.

익산신도회 임원들은 잠시 숭림사에 들린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월주 스님은 “신도회 임원들이 직접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의 이해 폭을 넓히고 자신들에게도 수행의 장으로 나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익산불교신도회 임원들의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해 표출된 소중한 의견은 차후 템플스테이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며 “숭림사 템플스테이가 지역불교문화의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근 신도회 회장은 “번잡한 속세를 잠시나마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숭림사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인근 송천마을의 블루베리축제와 연계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손길

민·관 복지 연대해 지역민 위한 음악회 개최

불교단체와 관공서가 연계해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과 광산구 우산동주민자치센터는 민관 복지연대 ‘투게더광산’(회장 현고)을 발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6월 12일 열었다. 이 행사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함께했다.

이날 음악회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나눔문화공연’이라는 주제로 광주 광산구 시영아파트 잔디밭에서 열렸다. 공연에는 생명나눔 홍보가수 주권기, 뭉게구름, 오명자, 소리섬, 유미랑, 인디안수니 등이 참여했다.

지역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투게더광산이 지역민들에게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만들기’를 위한 복지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특히 불교계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연계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만든 자리이다.

행사를 준비한 도제 스님은 “비록 작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열리는 지역 음악회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게더 광산은 광산구 민 · 관 복지연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불교신행단체 연석모임 발족

매월 정기모임… 현안 공유 및 정보 교류키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연석모임이 출범했다.

광주전남신도회(회장 지용현)과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운림동 수자타에서 첫 모임을 6월 13일 갖고 정기적 모임을 통해 광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을 갖기로 했다.

‘(가칭)광주불교단체연석회의’란 명칭으로 출발한 이번 연대모임은 광주지역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불교단체 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지역불교계 긴급 현안 공유와 각 단체별 공지사항 등을 진행됐다.

지용현 회장은 “불교단체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5〉
원통수좌 균여
(圓通首座 均如; 923~973)

수행자 본분에 충실했던 인물



태조 왕건은 삼국통일을 기념해 논산에 화엄종 사찰인 개태사를 창건했다.

초기 고려의 국왕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 중의 하나는 당연하게도 왕권의 강화였다. 실제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후백제와 고려 태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오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 세력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점이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 태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각 지역 세력들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불교세력의 동조였다. 태조 왕건은 각지의 유력한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했고, 회유에 응한 유력한 승려의 움직임을 좇아 지역세력 역시 태조 왕건에게 힘을 실으면서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에 대해 결정적인 승기를 점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해인사의 북악(北岳) 계통의 수장이었던 희랑대사의 도움이었다. 이 사건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고려 태조는 고려와 후백제, 신라의 옛 경계가 맞닿는 지점인 논산의 황산을 천호산(天護山)으로 개칭하고 그곳에 화엄종 사찰 개태사(開泰寺)를 창건했다.

삼국 통일을 기념한 사찰을 화엄종 사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건국 초기 고려 왕실에서 화엄종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동시에 국가의 통치에 화엄사상을 활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우선 화엄종의 세력이 이 시기에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신라 말 고려 초 사이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산문(山門)을 개창한 선사들이 대부분 화엄종 출신이거나 화엄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이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불교국가를 표방한 고려의 입장에서 교와 선 어느 일방을 후원하는 것도 무리였는데, 그 구심 역할을 화엄종에서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화엄종 역시 신라 하대 선의 전래로 인한 충격을 딛고서 세력을 회복해가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 불교 전체를 주도하는 입장에 서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왕권의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던 국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광종과 현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광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화엄종을 다시 한번 일신시키는 이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대화엄수좌 원통 양중대사 균여(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 均如)' 이다.

균여, 흔히 일반인들에게는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라는 향가의 창작자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스님이다. 하지만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신라 의상에게서 시작된 해동화엄의 계승자로서 고려 화엄의 초석을 놓은 스님이기도 하다. 스님의 법계를 추적하면, 해인사 북악(北岳)의 종주(宗主)였던 희랑이 스님의 법조가 되며, 영통사에 주석했던 의순(義順)의 제자이다.

스님은 이 북악의 화엄종맥을 이어, 남악과 북악의 종취가 달라서 구분되지 못함을 매양 한탄하였으며, 많은 갈래를 막아 한 길로 돌리고자 노력했다고 전기에서는 전한다. 바꾸어 말하면, 화엄을 둘러싼 분분한 해석들에 대해 북악계의 입장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이다. 화엄의 중요한 장소(章疏)들을 다시 주석하고 강의해 그 요지를 드러내었는데, 지엄과 법장 및 의상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 10여 종을 찬술한 것이 그것이다. 광종대에 왕륜사에서 승려의 과거시험[僧科]를 실시했을 때, 균여 스님의 견해를 정통으로 삼고 나머지의 견해로 방계를 삼았다는 것은, 균여의 저술과 강의가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균여 스님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보다 획기적이라 할 만한 것은 그의 학문하고 수행하며 교화하는 태도에 있었다. 우선 단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스님의 모든 저술들이 향찰 곧 이두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신라 의상 스님 이후로, 의상계의 화엄승들은 그들의 저술들을 대부분 향찰로 서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일면 의상계의 화엄승들이 한문에 밝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글로써 학문하겠다는 풍토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당시의 대중들이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학문하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르치기와 글쓰기가 자신들이 교화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학문하기의 기본적인 입장이 실천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 중생에 미묘한 깨침 전하려
> '보현십원가' 지었던 균여는
> 화엄종 초석 다진 선지식

이 균여 스님의 학문하기 자세가 드러난 또 다른 예가 바로 보현십원가이다.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바탕으로 지은 11수의 향가 달리 사뇌가(詞腦歌)는 나중에 한문으로도 번역되지만, 지어진 뒤에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 먼저 불리었던 민간의 노래였다. 혁련정이 쓴 〈균여전〉 '노래를 펴서 세상을 교화하다[歌行化世分]' 에는 다음과 같이 보현십원가의 서문을 전한다.

"대저 사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이며, 원왕(願王)이라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주축이다. 그리하여 얕은 데를 지나서야 깊은 곳에 이를 수 있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니, 세속의 이치에 기대지 않고는 저열한 바탕을 인도할 길이 없고 비속한 언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큰 인연을 드러낼 길이 없다.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비근한 일을 바탕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고자 열 가지 큰 서원의 글에 의지하여 열한 수의 거친 노래를 짓는다. …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려는 것이니, 비웃으려고 염송하는 이라고 해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며, 훼방하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바 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

균여 스님 스스로 밝힌 보현십원가를 짓는 뜻이다. 이 뜻이 당시 사람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졌는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담벼락에 쓰여지기도 했다고 한다.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노래를 지을 일도 이 같은 노래가 민간에서 불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균여 스님이 광종과 왕실의 뜻을 받아들여 중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959년, 광종이 교종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귀법사를 창건하고 균여를 주석하게 한 것이 963년이다. 혁련정의 〈균여전〉에는 스님이 개보 6년(973년) 6월 17일 귀법사에서 입적해 팔덕산에 장사지낸 소식을 부기 형식으로 전한다. 김지견 선생님은 일찍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스님의 입적 후에 왕의 조문도 시호를 내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스님의 입적이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이면에는 광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불교시책이 신라적 정서를 가진 의상계 화엄의 계승자인 균여나, 신라하대에 성립된 9산선문과 잘 어울리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다. 광종이 지종 등 30여 승려를 유학시켜 새로운 종파인 법안종을 도입하려 했던 것과 이 신라적 정서가 강한 불교 사이에는 일정한 위화감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위정자와 화엄행자 균여의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이 있다. 화엄행자 균여에게는 법을 널리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본분이었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그 알려지지 않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노래는 담벼락에 새겨졌고, 스님의 저술은 개태사에 보관되었다가 훗날 한문으로 다시 옮겨져 대장경에 편입되었으니, 역사는 본분에 충실했던 수행자를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2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 상인
(親鸞上人 상)

일본 최대 종파 정토진종의 개창조인 신란(親鸞; 1173~1262) 상인은 9세에 출가해 천태종 본산이 있는 히에산에서 수학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란과 재해로 민중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다. 특히 권력을 둘러싸고 천황가는 천황가끼리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했다. 신란이 19세 되던 1192년에는 천황의 실권이 추락하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카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

말세의 시대를 고민하던 그는 29세에 히에산에서 내려와 쿄토의 록카쿠도(六角堂)에서 백일동안 정진했다.

백일 정진이 95일째 되던 날, 구세(救世)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쇼토쿠(聖德) 태자가 꿈속에 나타나 그에게 게시를 전했다.

"수행자가 전생의 인연으로 여성을 범한다면 내가 여성의 몸이 되겠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장엄을 이룰 것이며 임종시 극락으로 인도해 태어나게 하겠다."

이로써 천태의 엄격한 계율로부터 해방된 그는 평생을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또한 정토종의 조사 호넨(法然)을 찾아가라는 게시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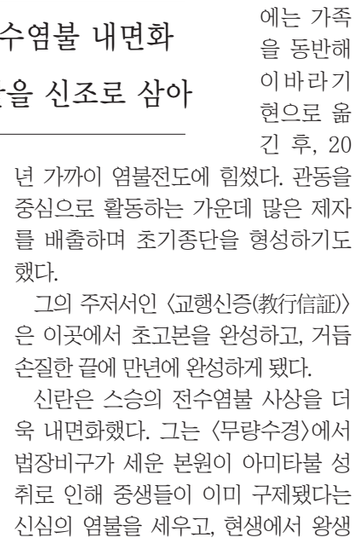
당시 호넨은 전수염불 때문에 천태종 승려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의 언행을 바르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7개조 제계(制誡)'를 지어 히에산 엔랴쿠지(延曆寺)에 올리기도 했다.

스승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던 신란은 여기에 서명했다. 조정으로부터 염불정지의 명령이 내리기 2년 전인 1205년에는 호넨으로부터 〈선택본원염불집〉의 서사와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207년 신란은 스승과 함께 전수염불에 대한 탄압으로 유배됐고, 승적 박탈과 더불어 후지이 젠신(藤井善信)이라는 속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머리를 깎은 바보 같은 놈' 이라는 의미의 구토쿠(愚禿)라 자칭하고, 비승비속의 생활을 신조로 삼았다.



신란 상인의 목조 좌상, 미에현 센주지(專修寺) 소장.

사면 후에는 동해안을 바라보는 니이카타현에 머물며 수행과 포교에 힘썼다. 그리고 그 지역 호족의 딸인 에신니(惠信尼)와 결혼한다.

> 호넨상인의 전수염불 내면화
> 비승비속의 생활을 신조로 삼아

1214년에는 가족을 동반해 이바라기현으로 옮긴 후, 20년 가까이 염불전도에 힘썼다. 관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를 배출하며 초기종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의 주저서인 〈교행신증(教行信証)〉은 이곳에서 초고본을 완성하고, 거듭 손질한 끝에 만년에 완성하게 됐다.

신란은 스승의 전수염불 사상을 더욱 내면화했다. 그는 〈무량수경〉에서 법장비구가 세운 본원이 아미타불 성취로 인해 중생들이 이미 구제됐다는 신심의 염불을 세우고, 현생에서 왕생의 인(因)인 정정취(正定聚)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정취는 깨달음이 결정돼 있는 중생 또는 그 위를 말한다. 신란은 〈교행신증〉에서 이러한 교설을 더욱 구체화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관심 갖고 준비해야 미래에 존경 받는다



봉은사 초청 법회,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진행하는 강주스님 초청 세 번째 법회가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을 법사로 6월 1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스님은 "한국의 미래를 부탁하기 위해 봉은사에 왔다"며 "봉은사 신도들은 미래의 한국이 지금처럼 위상을 잃지 않고, 한국 불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한국불자들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축복받은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봉은사에 왔다.

강남이 한국의 1번지이듯이 봉은사는 불교의 1번지이다. 신라,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까지도 봉은사는 불교의 1번지였다. 한국불교의 중심 도량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분란을 극복하기위해 나타난 서산·사명 대사 등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봉은사에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고 영혼을 맑히는 분들 덕택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 안해도 되지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을 차리려면 우선 '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삼신(三身)이라고 해서 부처를 성질상 3가지 종류로 나누어 표현한다.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이다.

〈금강경〉의 게송에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으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불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끝내 부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고 가르친다.

쉽게 말해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법신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오늘, 공간적으로는 가깝게 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보신(報身)이다. 보신은 보살이 수행 정진한 과보에 의해 얻어지는 원만(圓滿)한 불신이다. 보신은 닦아내서 깨끗해진 진리와도 같다. 흙덩어리에 있는 진주는 흙을 털어내면 빛나는 진주가 되듯이 우리도 법문을 듣고 108배하고 좋은 일을 하면 깨끗해질 수 있으며 끝내는 부처가 된다.

화신은 응신(應身)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하는 데 교화할 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절한 모습을 화작(化作)하는 불신이다.

수행을 하면 점점 상승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완벽한 부처가 된다. 석가모니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통해 부처가 됐다.

우리가 현재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락세계인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 현실은 좋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불안한 세상이다.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한다고, 전세대란이라고 불안해한다. 요즘 지방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외국인 신부를 데려와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다. 외국인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고 아이는 혼혈이라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보통일이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해 북한 문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지진, 쓰나미, 방사능 오염, 고엽제…. 부처로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세계가 지금 극락세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혜안을 갖고 준비해야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불교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교가 망했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안목을 갖고 준비하면 불교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갔는지 생각해보자.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나와 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 "부처님 무엇이 고통입니까?"라고 질문하니,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고통이다"고 답했다.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로서 살고 있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살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 복을 누리려면 이웃에 관심 가져야
> 기도와 감사하기는 최고의 수행

부처님은 무엇이 고통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근본불성을 알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쳤다.

이 고통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명과 집착 때문에 고(苦)가 생겼다. 다른 말로 12연기라 할 수 있다.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를 알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다.

불도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 근본 수행을 해야 한다. 계학(戒學)·정학(定學)·혜학(慧學)이다. 계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닦는 계율(戒律), 정은 심신을 고요히 하고 정신통일을 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선정(禪定), 혜는 번뇌를 파하고 진리를 증득(證得)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독도, 북한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남사람들은 미래의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만 잘산다고 잘살 수 없다.

경주 최부자는 흉년에 절대 논을 사지 않았다. 자기 마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이것이 최부자의 철학이었다. 그렇게 해서 최부자는 대대손손 부를 유지했다. 강남도 최부자 처럼 복을 계속 누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 중도를 위해서 계정의 삼학으로 닦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다.

기도로는 다라니를 외워야 한다. 다라니에는 힘이 있다. 다라니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본래불성의 작용이다. 본래불성은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에 의해서 나온다.

앞서 얘기했듯이 강남사람들은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 힘은 삼업(三業)에 의해 나온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욕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칭찬하면 기운이 난다. '할 수 있다'를 세 번만 하면 힘이 생기고 만 번만 하면 다라니가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자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50년 후에는 반드시 불자들이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다.

감사함의 반대 개념은 '심심'이다. 심심할 때 우리는 어떤가. 심심하면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은 심심하지 않다. 부자가 심심하다. 그래서 부자들이 망할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심심할 때 절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때 절대 심심하지 않다.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심심할 때는 자기 뺨을 때려야 한다. '재앙이 올 징조구나' 하고 내 뺨을 때린다. 감사하다고 느낄 때는 복이 오고 있다는 징조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 굶주린 늙은 호랑이가 어슬렁 돌아다니다 새끼토끼를 만났다. 새끼토끼는 엄마젖을 배불리 먹고 나와 호랑이를 만난 것이다. 토끼는 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호랑이는 뭐라고 했을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부처님은 달라고 하면 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더 많이 준다.

이왕 부처님께 '~을 해주세요'라고 할 바에는 '나도 남을 제대로 돕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보자.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보통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은 로마시대 황제를 능가할 정도로 누리고 산다.

한국은 1970~80년대에 급속 성장을 했다. 현재의 70~80세 노령층의 희생과 노력덕분에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됐다. 성(成)을 빼앗기 보다 수성(守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발, 투자 등에 헛욕심 내지말고 정신차려야 한다.

경제 후진국들이 우리처럼 누리고 살게 되면 환경오염이 악화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는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을 당겨쓰고 다른 지역의 복을 빼앗아 쓰고 있다.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내어서는 안된다. 어디다 신경을 써야할까. 미래 불교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자. 앞으로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살기 편해져서 부처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라기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 너무 방심하면 부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일귀 스님은…

198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송광사 승가대학 강사, 실상사 화엄학림 교수, 송광사 승가대학교수를 역임한 스님은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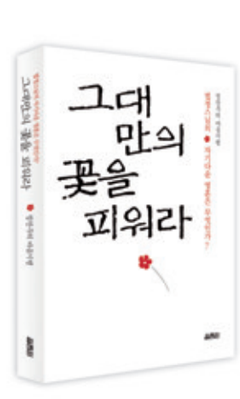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밉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세속 일 버리고 자연에 은둔하니 '능엄삼매' 펼쳐지네



㊼ 거사불교의 자취 어린 청평사

일반적으로 부도는 스님들의 행적을 기리고 사리나 유골(遺骨)을 안치하기 위해 조성한 석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도와 더불어 세우는 부도비(부도탑비)에는 부도 주인의 생애와 사상, 당대의 시대적 상황 등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부도와 비는 불교사, 금석학, 미술사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세기 중엽에 설악산 진전사에 세워진 도의(道義) 국사의 부도가 이 땅에 조성된 부도의 시원(始原)이라면, 지난 11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도와 비가 세워졌을까요? 유명, 무명의 스승들이 풀꽃처럼 피었다 스러지며 흘러 온 우리 불교사는 부도와 탑비를 통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부도와 비는 전란(戰亂)과 시절인연의 혼탁함에 따라 무너지거나 파손돼 사라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옛 절터와 고찰에 산문의 주역이거나 왕사 국사를 지낸 걸출한 스승들의 부도와 탑이 전해져 불교사의 유구한 물줄기를 가늠하게 합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생애를 기리는 것이지만 스님 못지않은 신심과 수행으로 살다간 재가불자의 행적이 부도로 조성돼 기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눈 밝은 학자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부도가 오봉산 청평사 입구에 모셔져 있습니다. 식암(息庵)거사, 청평(淸平)거사, 희이자(希夷子) 등의 호로 불리던 이자현 거사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으나 29세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일체의 세간 인연을 정리한 뒤 자연으로 은둔했습니다.

우리는 거사불교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 당시 인도의 유마거사와 중국의 방거사 그리고 한국의 부설거사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현도 거사 신분으로 불교 경전에 해박하고 선정을 닦아 무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에 매진하면서 학자와 스님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경전의 너른 들판을 함께 가꾸고 추수한 품이 너른 학자며 수행자였습니다.

청평사를 가기 위해서는 소양댐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방법과 춘천 외곽도로를 지나 배후령을 넘어 오음리에서 오봉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마다 녹음이 짙은 6월의 국도를 달립니다. 배후령을 넘으면서 강원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청평사 아래에 이르면 산은 보이지 않고 빼곡한 숲을 이룬 키 큰 나무들이 내뿜는 싱싱한 기운에 저절로 배가 불러옵니다.

힘차게 쏟아지는 구송폭포를 지나 청평사 입구에 닿으면 왼쪽으로 얕은 담을 둘러친 부도밭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거기 부도밭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듯 그냥 지나칩니다. 돌계단 입구에서 두 마리의 돌사자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듯 입을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부도밭은 다소 옹색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좁은 공간이지만 왼쪽에는 20여 년 전에 조성된 석진 스님의 부도와 건립기념비가 서 있고 오른쪽에 이끼를 뒤집어 쓴 이자현 거사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안내판에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진락공 이자현 부도(眞樂公 李資玄 浮屠)

부도는 고승(高僧)이 죽으면 화장(火葬)해 나온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석조 구조물이다. 이 부도는 청평사에 들어와 도를 닦았던 고려시대의 뛰어난 학자인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자현의 호는 식암(息庵) 또는 희이자(希夷子)였는데, 인품이 뛰어났던 그를 흠모(欽慕)한 고려의 인종(仁宗)은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진락(眞樂)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이 부도의 양식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이고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180㎝이다.

국사나 왕사가 입적하면 임금이 시호를 내리듯 이자현 거사의 죽음을 애도한 고려 인종도 시호를 내려 그의 생애를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문하 제자들이 스님들의 예법에 준해 사리탑을 세운 점으로 보아 그의 학문과 무애자재한 삶이 얼마나 존경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도만 세웠는지, 탑비도 함께 세웠는데 유실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부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적당과 설화당의 부도. 두 스님의 전기는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고려의 학자 이자현 29세에 은둔 수행하며 후학 지도
보기 드문 거사 부도, 후학들이 무애자재의 생애 기려



이자현 거사가 조성한 고려시대의 연못

청평사와 이자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전해주는 자료는 '진락공중수 청평산문수원기' 입니다. 고려 인종 8년(1130)에 세워진 비에 새겨졌던 글인데 현재 비는 남아 있지 않고 그 비문이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돼 있습니다. 비문은 청평사의 역사적 내력과 이자현 거사의 생애 등이 자세히 기록된 본문과 문하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고 제사하는 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평사 마당에는 '진락공중수 청평산문수원기' 를 새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전해지는 비편과 탁본, 비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문을 복원해 2008년에 세운 것입니다. 매끈한 오석으로 세워진 비의 앞면에는 본문, 뒷면에는 음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춘천의 청평산은 옛날의 경운산(慶雲山)이고 문수원(文殊院)은 옛날의 보현원(普賢院)이다' 로 시작되는 비문은 당대의 문인 김부철이 지었습니다. 글씨는 이자현 거사의 제자인 대감국사 탄연(大監國師 坦然; 1070~1159) 스님의 솜씨입니다. 탄연 스님은 한국의 서예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라의 신필(神筆) 김생에 버금가는 필력으로 꼽히고, 고려시대 선필(禪筆) 최고 경지를 이룬 명필 중의 명필입니다.

오늘날의 청평사는 고려태조 18년(935)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 온 영현(永玄) 선사가 암자를 짓고 백암선원(白巖禪院)이라 한데서 그 유래가 시작됩니다. 이후 피폐한 절터에 보현원을 지은 사람은 이자현의 부친인 이의(李顗)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현 거사는 아버지가 지은 암자로 들어와 세상의 때를 씻고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더불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 정황을 비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후에 희이자가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도적이 사라지고 호랑이와 승냥이의 자취가 끊어졌으므로 산의 이름을 청평산으로 바꾸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문수보살이 나타나셔서 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사찰의 이름을 문수원으로 바꾸고 건물을 더 지었다. (중략) 원우 4년(1089)에 대악서승(大樂署丞, 고려의 관직)으로서 벼슬을 버리고 세속을 벗어났다. 임진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면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후로 다시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겠다' 고 했다. 그의 학문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없지만 불교의 이치를 탐구하면서 특히 선의 고요함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이야기 했다. 일찍이 〈설봉어록〉 중의 '하늘과 땅이 모두 눈인데 너는 어디를 향하여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 라는 구절을 보고서 그 말에 분명하게 깨달았다. (중략) 산에 머물 때에는 오직 채소를 먹고 헤진 옷을 입으면서 검약하고 청정한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중략) 일찍이 문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대장경을 모두 보고 여러 종류의 책을 모두 읽어 보았는데 〈수능엄경〉이야말로 심종(心宗)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밝혀 주었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읽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라 하고 곧 문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읽고 공부하게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자현 거사는 세속을 떠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보살행을 통해 삶의 가치를 고양시켰던 것입니다. 세속과의 인연을 철저하게 끊었고 고려의 선불교에 〈수능엄경〉을 접목시켰던 점 등이 주목됩니다. 비문에 전하는 이자현 거사의 마지막 말씀은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못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슬퍼하지 말고 도로서 마음에 품으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음기로 새겨진 '제문' 은 이자현 거사와 평소 친분이 있어 법담을 즐겨 나누었던 혜소(慧素) 스님이 짓고 탄연 스님이 글씨를 썼습니다. 혜소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제자입니다. 제문은 여러 부분 결락돼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지만 후학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이 애절하고 엄숙하게 묻어납니다.

이자현 거사가 조성한 고려 영지를 지나, 청평사 중심 영역에서 왼쪽으로 난 길은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탈문에 이르기 전 오른쪽으로 2기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서 있습니다. 청평사에서 수행했던 환적당(幻寂堂)과 설화당(雪花堂)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식이나 크기가 엇비슷해 같은 시대의 스님인 듯 하지만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키 큰 적송들이 빼곡한 숲에 고요하게 앉아 있는 부도는 서로 마주보며 대화라도 나누는 듯합니다. 숲에는 이름 모를 새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종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1 – 들어가며

문화 포교사 역할 톡톡히 하는 신화

조민기
작가 · 칼럼리스트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나 민족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반면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신화나 전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아름다운 신화를 지키며 살아온 홍인족(紅人族)을 멋대로 '야만인' 혹은 '인디언' 이라 부르며 말살시킨 뒤 세운 미국은 족보 없는 졸부 같고, 수많은 신들의 고향이었었던 그리스는 가난해도 명예로운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시선이다.

오늘날 신화와 전설은 단순한 정체성 확립이나 전통 보존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로 활용되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들지 않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신(神)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방을 하자마자 문화와 전통을 상업화하는 데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을 보자. 온갖 야담이 기록된 고서(古書) '요재지이' 속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천녀유혼〉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영화팬들을 매료시키지 않았던가. 아름다운 요괴와 어수룩한 인간 남자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시신을 매장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유교, 부처님의 경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불교, 부적과 환술로 요괴를 퇴치하는 도교에 민간 설화까지 모두 섞여 있지만 이를 종교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룰 수 없는 가슴 아픈 인연의 절절함에 눈물지을 뿐이다.



고천락, 유역비가 주연을 맡은 '천녀유혼(2011)'. 천녀유혼에는 유교, 불교, 도교뿐 아니라 민간 설화까지 모두 섞여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일본은 어떤가. 다소 스케일이 작은, 내수용 신화와 전설, 설화들은 그대로 잘 보존하는 한편 인지도가 높은 중국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들을 척척 만들어낸다. 중국의 고대소설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최유기〉에서는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둥이의 욕망에 충실한 '저팔계' 야말로 현대사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매혹적인 캐릭터임을 보여주고, 후한 말기 혼란스러웠던 난세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지〉로는 게임을 만들어 수많은 중독자와 폐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자.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은 예수님 단 한 명뿐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의 아들과 딸은 넘쳐난다. 하지만 여기에 이단이라고 불만이나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만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조민기는 …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해 영화사를 거쳐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조 - 성공한 여자를 만든 남자의 비결〉가 있으며 현재 세계일보에 〈꽃미남 중독〉과 〈외조의 기술〉을 연재중이다.

〈제석과 함께 떠나는 신화 여행〉은 불법을 수호하는데 힘과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제석천왕을 비롯한 신들의 이야기이다.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시대 1

다양성과 가장 잘 맞는 불교가 다문화에 앞장서야

이 세상의 색(color)이란 셀 수 없을 만큼 그 폭이 방대하다. 미묘하고 미세한 부분의 차이로 사람이 지각할 수 없는 색들로 인해 감히 우리가 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한정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380~780nm(나노미터:100만분의 1m)인데 이 안의 색들은 볼 수 있다 해서 가시광선, 가시영역이라고 할 뿐이다. 빛이 생명활동에 불가피한 에너지임은 당연한 진리이다. 그 빛은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 파장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도 달라지고 색도 다르게 보인다. 이 세상 전체에 색이 있다는 의미는 존재나 물체마다 자기가 필요한 색과 빛을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물체 즉 만물에는 수많은 색채가 존재한다. 다양한 색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문화가 복잡하게 섞여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다문화사회가 주는 사회의 음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는 뒤섞이고 혼재되면서 문화와 사회는 자기자리를 잡아간다. 서로 다른 피부색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 검은색이 주는 느낌과 흰색이 주는 느낌이란 엄연히 다른 것도 사실이다. "색은 빛과 어둠의 혼합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명했듯이, 다양성에서 나오는 최고의 조합이 우리의 삶의 단상이다. 우리가 다문화사회에서 피부색 그 하나만으로 사람을 견주는 잣대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삶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최고의 조합
불교는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다문화세계 포효

똑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그리고 한달 내내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맛있는 음식이라 해서 한달 내내 혹은 일년 내내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좋은 향기라고 내내 그것만 맡는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다. 금새 지겨워지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날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교의 영역만큼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질겨서 다문화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더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이 비아냥대기라도 하듯이 불교는 이 빗장을 허문지가 무척 오래되었음에도 오히려 자기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빼앗기는 것도 당연한 듯 아무런 감각 없이 앉아만 있는 모양새이다. 적어도 다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부처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평등한 다문화세계를 포효한 것이다. 너와 내가 똑같이 두루두루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자는 말씀이었다. 심지어 유일신이 주는 공포심과 맹목적 충성심도 강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기숙련과 자기책임을 인지하도록 깨우쳐주었다.

이러한 풍요로운 다문화세계를 맛보게 해주었지만, 갇혀서 메이고 유일한 것에만 길들여진 인간들은 이 깊은 진리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유일신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저 의지만 하면 된다는 편안함과 안이함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계속〉

이현정 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교방송국 아나운서 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타니아 커뮤니케이션 대표,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한국다문화센터 연구소장, 레인보우 합창단장을 맡고 있다.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0 – 지혜(智慧)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이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탐욕이나 성내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 탐욕이 일어나면 상대의 원하는 측면을 보려고 할 것이고 성냄이 일어나면 상대의 나쁜 모습만을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과 만날 때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심리현상이 알아차림(sati)라고 설명했다.

알아차림(sati)이 마음을 잘 보호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다. 이때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심리현상을 지혜(paññā, 智慧)라고 한다. 그러면 지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첫째,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을 잘못 아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면 지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대상의 본성을 바로 꿰뚫어 안다.

불교수행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계발
고요하게 마음을 집중해야 지혜 생겨

둘째, 지혜는 대상의 본성을 덮어서 대상을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쓸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때문에 대상을 왜곡하고 잘못 알게 하는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 라고 인식하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나' 가 영원하고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전도몽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지혜로써 '나' 의 본질을 통찰해보면 '나' 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물질과 정신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나' 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

조금 더 깊이 통찰하면 변하는 것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라고 할 만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찰은 '나' 라고 불리어지는 개념에 속아서 '나' 라는 것이 영원하다거나 실체가 있다고 믿는 전도몽상을 버리고 '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도 지혜로써 통찰해보면 그것들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안정한 것에 의해 항상 압박을 받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런 통찰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행복이라는 전도몽상을 버리고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보게 한다.

이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을 사라지게 한다. 이로써 더 이상 괴로움을 행복이라 생각하거나 행복을 괴로움이라 생각하는 전도된 마음으로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행복을 행복으로 보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바른 노력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끝으로 지혜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이다.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은 마치 맑고 고요한 호수의 물과 같다. 호수의 물이 맑고 고요하면 달이나 해가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고 호수에 비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현상들의 본성이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비치게 된다. 그러면 현상의 본성을 쉽게 꿰뚫을 수 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을 버리고 진리를 보게 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의 본질이 괴로움임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괴로움임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증득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의 계발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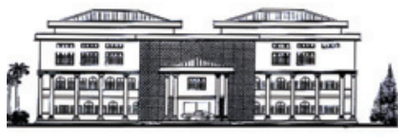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禪을 제대로 알고 싶은가? … 책부터 읽어라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고들 하지만 무아의 개념은 여전히 막연하다. 매일 같이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씹히지 않는 돌을 입안에서 우물거려 삼키고 있지는 않는지 불자들은 늘 자문하고 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6월 15일 한국전통불교문화박물관에서 조계종 종무원조합, 불교인재원,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무아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 교수는 "불교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하나만 알면 불교를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추어 불교학자라 자칭한 한형조 교수는 이날 학자로서 점수(漸修)의 입장에서 불교의 핵심을 정리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저서로는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무문관에서 혹은 너는 누구냐〉 〈왜 동양철학인가〉 〈조선유학의 거장들〉 〈금강경 강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 허접한 꽃들의 축제〉들이 있다.

정리=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의 핵심은 하나로 통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다 뒤집어 볼 필요 없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만 다가가면 됩니다. 모든 핵심이 〈금강경〉 사구게 안에 있습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범소유상 개시허망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네 사적 의지와 관심의 투영, 다시 말해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사태를 선명히 자각할 때, 그때 너는 붓다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전을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보라

경전을 대할 때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전이나 경전을 소설 읽듯 편하게 읽기를 원한지만 고전을 근대 소설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은 물론 동서양의 위대한 고전은 모두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위대한 고전은 압축된 암호들이기 때문에 읽는다고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석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을 위한 경전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은 불경 중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암송하고 있지만 문자와 내용사이에 괴리감이 커 그 뜻을 구체적인 체험과 연계시켜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 뿐만 아니라 초기불교, 선, 화엄 등 불교 전체가 난해한 언설로 깔려 있으니 그 위용 앞에서 어지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번안어와 고전언어의 혼재가 어려운 불교 만들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가 원효와 지눌이 쓰던 한자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일본이 만든 번안어들과 고전이 섞이면서 의미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불교를 접하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외국어로 다가온다면 편할 것을 고전언어와 신번안어와 섞여있어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전언어와 신번안어를 구분해주는 사전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 언어를 개창해야 합니다.

"사무치는 불교가 그립다"

최근 불교학회를 보면 3인의 동상이몽이 생각납니다. 전문가들은 제례의 어법과 담론을 축으로 토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다루다 보니, 현실 생활과 지식사이에 괴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도 같은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그것들이 최고의 깨달음인 화두, 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한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도 어렵고, 화두는 너무 험준하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내 삶에 어떻게 접목 시켜야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새 불교는 지루하고 험준한 불교에서 벗어나 소통에의 갈망입니다. 친절한 불교가 그립습니다. 친절한 불교란 나의 삶과 체험의 지평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불교 즉 사무치는 불교를 뜻합니다.

화두 접근법 달리 해야

화두는 집결체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두를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돌파구는 스님, 학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제3의 길이나 중도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 삶과 체험과 접맥돼야합니다. 화두를 언어로 표현하고,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담문을 다시보고 다시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논서에서 어떤 주장이 있다가 아니라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되느냐하는 것으로 언어를 살리되 언어를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학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다시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화두는 의미철학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불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구절로 화두자체가 의미집결체가 돼 불교의 핵심코드가 돼야 합니다. 해독이 제대로 돼야 화두에 비로소 적정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집중하는 것과 이해 없이 집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왜곡된 견해가 '나'를 감옥에 가둬
> 자기 밖에서 세상을 봄이 곧 무아

사로 다른 시각 그리고 자아라는 감옥

길주 청원유신 선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青原惟信禪師上堂)

노승이 삼십년 참선에 이르기 전, 산을 보니 산이었고 물을 보니 물이었다.(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 見山是山見水是水)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한 이후 불문에 들어서고 보니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니 물이 곧 아니었다. (及至後來親見 知識有箇入處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그런데 지금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여전히 산을 보니 그대로 산이었고(而今得箇休歇處 依然見山是山 見水是水) 산은 그대로 산이었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大衆這三般見解是同是別) 선비나 스님 중에 나서는 자가 있다면 나의 실제와 깨달음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有人緇素得出 許汝親見老僧箇) 〈속전등록〉

불교의 관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기는 두 번째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 번째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태도 바라보는 화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당연히 나의 시선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자아의 감옥 즉 자아의 판단이 이룬 세상입니다. 모든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뤄집니다. 끝없이 자기 식으로 왜곡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객관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세계는 자기가 보는 세계에 갇혀있으니 우리는 실제 사물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나를 찬양 혹은 모욕했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스타일에, 내가 존경하는 부와 권력 혹은 경멸하는 찌질한 인생에 무엇보다 내게 득을 줄 사람, 혹은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의 실재보다 자신의 의지와 관심 편견 수용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금강경〉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투영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은 도피의 일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놓치고, 자연과의 생생한 접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의미가 생기고 타자를 도구화하는 정도가 넘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기 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교만이 진리 아니다

불교의 다양한 유파 사상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와 또 다른 깨달음이 수많은 주장과 의견들이 불교의 깊은 뜻입니다. 서로 다른 교설 같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지식, 서양철학, 소설 모두 불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교만의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오래된 것이고, 길은 다만 발견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붓다와 에크하르트,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에크하르트가 기독교 신화의 굴레를 쓰고 그렇게 하는 반면, 불교에서는 동일한 사상이 그런 신화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허선사도 "그 뜻을 얻으면 거리의 잡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에서 헤매면 용궁의 보배곳간도 한바탕 잠꼬대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면 팔만사천법문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무아의 연습

자아로 인해서 점철된 왜곡된 견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곧 무아의 훈련입니다. 자기 밖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해야 합니다. 아내의 젖은 손을 보고도 집안 살림을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 아이는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줄을 아는 것이 무아의 훈련입니다. 남편의 비듬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넌 왜 그렇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라는 시각,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역지사지로 회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한번 얻었으면 곧 잊어라

학승이 물었다.
"순일(純一)하고 무잡(無雜)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거참 훌륭한 질문이야."

問 純一無雜時如何 / 師云 大煞好一問

무잡(無雜)은 때가 없고 잡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순일(純一)은 순수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잡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는 질문할 때이다. 질문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상대를 향해 궁금한 것을 묻는다. 질문자는 질문 후에도 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는다. 이것만큼 순수하고 깨끗할 때가 또 있을까? 설명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자태 아닌가.

학승이 물었다.
"무위적정(無爲寂靜人)한 사람도 침공(沈空)에 떨어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침공(沈空)에 떨어진다."
학승이 말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나귀나 말이 된다."

問 無爲寂靜底人 莫落在沈空也無
師云 落在沈空
云 究竟如何
師云 作驢作馬

무위(無爲)는 '함이 없는 것'이다. 원래 이 용어는 도교에서 쓰던 말인데 불교에서 도교와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도교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위를 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위를 사용하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사람을 무위적정인(無爲寂靜人)이라고 말한다.

말이 무위적정인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오르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 수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무위적정인의 경지에 올라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경지에 오른 것인가? 아니다. 공(空)에 떨어진 것이다. 공에 떨어진 상태는 어떠한가? 장차 당나귀나 말과 같이 정신이 멍한 축생계에 떨어질 뿐이다.

무위적정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수많은 수행자들의 꿈인데 그것도 완전한 경지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것이 완전한 경지인가? 일단 무위적정에 들었으면 무위적정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한번 얻었으면 곧 잊어버려라.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일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아무 것도 주장하고 세우지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주장과 선악시비(善惡是非)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불교의 마지막 단계는 공(空)에서 나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말을 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다리[床脚]이니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인 즉 빼내가거라."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 師云 床脚是
云 莫便是也無 / 師云 是即脫取去

화두가 없는 학인은 선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답을 내려주거들랑 들은 즉시 깨달을 것이고, 즉시 깨닫지 못했으면 내려준 답을 몇 날 며칠이고 탐구하면 된다.

여기 〈조주록〉에 나오는 학인은 조주 스님이 '상다리이니라' 라는 것을 듣고 즉시 '그렇군요' 하고 이해를 해버렸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조사의 뜻은 우주의 근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고 단정하면 벌써 그렇다는 모양[相]이 생긴다. 단정함으로써 어긋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그렇다[是]면 귀중한 것일 것이니 빼내가거라" 하고 핀잔을 준 것이다.

도대체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왜 '상다리'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48 한국선과 선어록 18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초의 선사의 선사상 담긴 책

〈선문사변만어〉를 저술한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의 속성은 장(張)씨이고 자는 중부(中孚)이며, 법명은 의순(意恂)이다. 호는 초의 외에도 해옹, 해사 등 10여 가지가 있다. 전라도 나주 삼향 출신이다. 15세 때 나주 운흥사의 벽봉민성(碧峰敏性) 화상에게 출가했으며, 그 이후 해남 대둔산 대흥사의 완호윤우(玩虎倫佑)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초의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후 연담(蓮潭)의 제자 금담(金潭) 선사에게서 선지를 배웠다. 24세에 강진에서 유배생활 중이던 다산 정약용을 찾아가 그로부터 유학과 시문을 익혔다. 이후 초의는 유학과 선리에 두루 능통하면서 시와 서화에도 조예가 깊어졌다. 30세 때는 추사 김정희 등과 친분을 맺었다. 45세 때 〈만보전서〉에서 요점을 뽑아 〈다신전〉을 저술했다. 52세 때는 홍현주(1793~1865)의 요청을 받고 게송 형식으로 된 〈동다송〉을 저술했다.

55세 때 헌종으로부터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종사'의 시호를 받았다. 두륜산 일지암을 중창하고 40여 년간 이곳에서 정진하다가, 1866년 고종 3년 세수 81세 법랍 65세로 입적했다. 초의의 기타 저술로는 〈일지암시고〉, 〈일지암문집〉, 〈진묵조사유적고〉, 〈초의선과〉 등이 있다.

초의-백파 논쟁의 백파 주장에 자신의 견해 더해
선지식 입장에서 납자를 교화하는 방향에서 주장

저술 가운데 〈초의선과〉,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그의 선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초의선과〉는 초의가 자신과 후학의 선 수행을 위한 교안으로 삼고자 저술한 것으로, 원제목은 〈선문염송선요소〉이며 40여 년 머물렀던 일지암에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간기가 없는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는데, 석용운이 편집한 〈초의선사전집〉에 수록돼 있다.

〈선문사변만어〉는 백파의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주장하는 선리에 대한 일종의 반박 내지 초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것이다. 사변(四辨)이라는 말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초의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결국 백파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 첫째는 삼종선에 대한 이종선의 주장이다. 곧 백파가 조사선(祖師禪)·여래선(如來禪) ·의리선(義理禪)의 삼종선(三種禪)을 주장한데 대응해 초의는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 조사선인 격외선과 의리선, 즉 여래선의 이종선(二種禪)을 주장했다.

둘째는 인(人)을 기준으로 한 의리(義理)와 법(法)을 기준으로 한 격외(格外)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여래선과 조사선을 격외선으로 간주한 바탕에서 중생이 수행하고 깨우쳐 성불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리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초의는 인(人)과 법(法)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 인(人)의 입장에서는 격외선을 내세우고 법(法)의 입장에서는 의리선을 내세웠다.

셋째는 일심에 대한 진공과 묘유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제법을 분별해 묘유의 삼구를 설명했고, 필경공을 설해 진공일구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선에서 가르치는 대의는 진공묘유와 대기대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진공과 묘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묘유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고, 진공은 절대 진리의 공한 인연법인 불변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초의는 진공은 유에 즉한 공이어야 하고, 묘유는 공에 즉한 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초의는 진여의 입장을 바탕으로 진공과 묘유를 전개하고 있다.

넷째는 살인도(殺人刀)와 활인검(活人劍)의 적용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살·활에 대한 변론을 삼처전심으로 배대한다. 제일처인 분반좌는 살인도만 있고 활인검은 없지만 제이처인 염화미소는 활인검과 동시에 살인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의는 이와 같은 백파의 주장에 대해 삼처전심의 선리를 모두 격외선지인 조사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살인도와 활인검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긍정 혹은 모두 부정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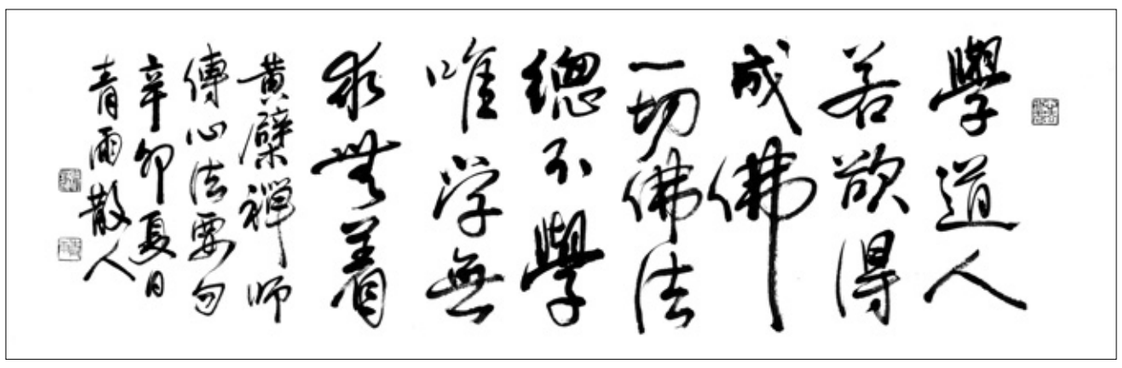
결국 임제삼구로부터 촉발된 그 선리논쟁에 대해 백파와 초의의 사상의 차이는 그 관점의 차이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임제삼구에 대해 향상문의 향상일규(向上一竅)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느냐, 혹은 향하문의 신훈삼구(新熏三句)를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느냐의 차이이다. 곧 백파의 경우는 납자의 입장에서 진여본분을 터득하려는 것으로 임제의 삼구를 차제적인 계위에 맞추어 끌어내렸다. 반면에 초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 납자를 상대하려는 것으로 향하의 신훈에 중점을 두고 납자를 교화하는 방향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로써 백파가 〈선문수경〉에서 내세운 주장은 대용·수연·의리·활인검·묘유의 입장이라면 초의가 〈선문사변만어〉에서 내세운 주장은 대기·불변·격외·살인도·진공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임제삼구에 대한 백파의 견해와 그에 대한 초의의 견해는 이후로도 지속됐다. 곧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의 주장에 대해 초의가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반박한 내용에 대해 백파의 제자인 한성침명은 백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한성침명의 제자인 우담홍기는 〈소쇄선정록(선문증정록)〉을 통해 초의의 입장을 옹호했다. 다시 설두유형은 〈선원소류〉를 통해 다시 〈선문사변만어〉와 〈선문증정록〉에 대항해 백파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후 설두유형에게서 공부했던 축원진하는 〈선문재증록〉을 통해 이와 같은 선리의 논쟁이 선의 본래적인 입장을 벗어났다고 간주해 나름대로 조사선과 여래선에 대한 축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16 본래 구할 것이 없다



청신전황구유총일성약학
우묘심벽무학불체불욕도
산하법선착무학불 득인
인일요사 법
구

總: 다 총, 합할 총
唯: 오직 유, 누구 수
求: 구할 구
着: 붙을 착



본래 구할 것이 없다

學道人 若欲得成佛 一切佛法總不學 唯學無求無着(학도인 약욕득성불 일체불법총불학 유학무구무착)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모두 다 공부하지 말라. 오직 본래로 구할 것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배우라. - 황벽(黃檗)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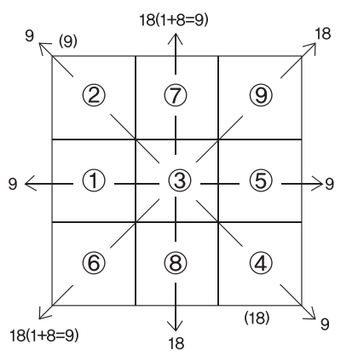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금,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원증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월세50만원 포교당이 15만 불자의 수행처가 되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우학 스님은… 1959년 경북 경주 출생. 동국대 한의대를 다니다 21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은사는 성파 스님.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한 스님은 제방의 선원과 무문관 등에서 수행했다. 1992년 한국불교대학의 전신인 영남불교대학을 열었다. 현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불교공부〉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인도성지순례〉 〈우학 스님의 빛깔 있는 법문 시리즈〉 등 100여 권이 있다.

인류 최초의 종합대학인 인도 나란타대학(那蘭陀大學). 굽타왕조의 왕 쿠마라굽타 1세(415~454)를 시작으로 여섯 군주가 수백년 동안 불사를 이어갔던 곳이다.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가 전법교화를 펼치기도 했던 이곳은 대학이 들어선 후 많은 승려·학자가 공부를 했다.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스님도 이곳에서 유학하며 불교를 배웠다. 나란타대학은 1915년 발굴된 규모만 남북 500m, 동서 250m에 이른다. 대규모의 사역(寺域)에서는 사각형의 수행처와 5동의 사찰, 10동의 승방(僧房)터가 발굴됐다.

한국에도 나란타대학 같은 곳이 있다.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한국불교대학(舊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그곳이다. 대구시 남구 봉덕3동 대로변에 자리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연건평이 5000여 평에 이르는 메머드급 도심사찰이다.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에는 법당과 강원, 선방, 출판사, 스튜디오, 박물관, 도서관, 서점, 꽃집, 용품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전문병원, 납골당 등 없는 시설이 없다.

회주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20여 년 전인 1992년 5월부터 신도들과 한마음으로 일궈왔다. 2012년 5월 15일이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창건한 지 20년이 된다. 우학 스님 만의 비전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교대학' 플래카드만으로 140명 모아

스님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창건한 것은 우연, 아니 운명이었다. 삼촌의 죽음을 통해 생사일대사에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스님. 우학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꿰고 있었다. 출가를 반대했던 식구·친구들을 피해 양산 통도사에서 남양주 봉선사까지 갔지만, 큰그릇을 알아본 월운 스님은 우학 스님을 다시 통도사로 돌려보냈다. 스님은 생명에 대한 고민을 풀고 싶어 선방을 전전했다. 선방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우학 스님의 고민은 풀리지 않았다. '한국 간화선은 막무가내로 체계가 없다'는 생각에 동국대 선학과도 가고 강원에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를 지나는데 포교당 한 곳이 운영이 안돼 교회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처님이 앉았던 곳에 십자가가 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포교당 살림을 시작했다. 신도 몇몇이 참기름을 팔며 포교당의 보증금과 월세를 도왔다.

"당시 해제비로 125만원을 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100만원은 중고 복사기를 한 대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플래카드 10장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전봇대에 올라가 걸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불교대학 모집 내용이 실렸다. 순식간에 1기생 140여 명이 모였다. 영남불교대학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처음 포교당을 인수했을 때 신도수 16명이 한달 후 불교대학 간판을 붙이자마자 10배수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금은 신도수가 15만명에 이른다.

우학 스님은 직접 강의도 했다. 교재도 시중의 책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든 교재를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 10시간 이상 연구하고 준비하며 강의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한국불교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교리와 수행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경전을 가르쳐 신도들의 의식이 깨어도 수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전을 공부해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직접 걸으며 수행의 참맛, 참선의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한국불교대학과 대관음사가 둘인 듯 둘 아닌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교리공부가 수행으로, 수행은 봉사로, 봉사는 포교로 한국불교대학은 확실히 자리매김돼 갔다. 스님은 곧바로 어린이 법회도 시작했다. 순식간에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불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열었지요. 어린이포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학 스님의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실천했다. 한 사람이 3명씩 포교했다. 4년 반이 지나니 월요일부터 일요일 하루 종일 공간을 활용해도 80평 법당이 포화상태가 됐다.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불사를 시작했다. 신도들의 힘은 대단했다. 3년 여 만에 부채를 모두 갚았다. 7층 규모의 현재 법당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훈병원, 영대병원 등 병원은 물론 교도소·군부대 법회도 진행했다.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체계화해야겠다 싶어 2000년에는 복지법인도 만들었다. 현재 복지법인에서는 수십명의 직원이 100여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증축도 계획 중이다.

우학 스님은 "안거를 지키고 수행에 힘쓴 것이 (지금까지 불사를 이룬)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이 안거 중인 동안 신도들은 자율적으로 사찰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대학은 저절로 투명하게 운영됐다. 우학 스님은 2004년 백담사 무문관에서도 수행했다. 무문관 수행경험을 살려 단위사찰로는 드물게 감포도량에는 무문관을 열었다.

한국불교대학은 교리와 수행이 함께 하는 공간
열린사고·대중친화력·투명운영 등이 성공 요인

한국불교 일류화 위해서는 네트워크 절실

스님은 사찰 규모가 커지자 단일사찰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2000년 미국을 다녀오면서 우학 스님은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세계 무대에 서 보니 한국불교가 전무하더라는 것. 스님은 네트워크와 국제화를 발원했다. 영남불교대학을 한국불교대학으로, 관음사였던 사명을 대관음사로 바꾼 것도 이때이다. 우학 스님은 네트워크를 위해 대구 대관음사를 중심으로 1000개 도량 건립을 발원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 중이다.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자생하려면 단일사찰로는 역부족입니다. 형제사찰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량과도 연계돼야 한국불교의 세계화·현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해 불교서적의 보급에도 주력했다. 1993년 출판사를 만들었고, 1996년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가 대히트를 쳤다. 한국불교대학 초기 시절부터 직접 교재를 만들어 보급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스님의 저서는 100여 권, 교리서를 포함하면 200여 종에 이른다.

우학 스님은 인터넷 포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불교대학이 운영중인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cafe.daum.net/indelamang)은 국내 불교커뮤니티를 손꼽았을 때 빠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스님은 법문을 동시 방송했다. 대구 대관음사를 비롯해 서울 제기동 도량, 미국, 독일 등 전세계에서 동시에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스님은 한국 간화선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NAVER 주얼드림 검색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분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도 내놓았다. '선관쌍수(禪觀雙修)'가 그것이다. 우학 스님은 이를 위빠사나와 사마타, 명상 수행의 장점을 모으고 간화선 수행차제를 체계화시켜 저서 〈완벽한 참선법〉에 담아 대중에 소개했다.

한국불교대학의 3대지표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이다. 근본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계불교를 통해 불교의 세계화를 이루며, 첨단 문명을 활용해 불교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미래를 말하기 전 어린이 포교부터

우학 스님은 "불교가 바로 서려면 스님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법회를 예로 들었다. "광역시인 대구에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여는 곳이 9곳이 채 안됩니다. 10개 미만 사찰에서 10~20명씩 어린이 청소년을 포교해봐야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산중사찰이라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학 스님은 "사찰이 도심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인구가 절반 이상일때는 산중사찰도 문제가 없지만 이농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사중살림을 꾸리기조차 어렵다는 설명이 따랐다. 스님은 "무조건 각 동에 분원과 포교당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불교대학은 NGO단체인 사단법인 참좋은인연 B.U.D.도 결성했다. 네팔 불가촉천민의 마을에 보육원을 지어주기도 했다. 이는 불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도와야 하고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스님의 비전에서 비롯됐다.

우학 스님은 문화포교도 강조했다. 해외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은 불교문화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보다 앞서 불교의 우수성, 재미를 대중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스님은 문화를 포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대학에서는 매일 점심이면 발우공양이 진행된다. 음성공양을 위한 합창단도 8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사물놀이팀도 있다.

우학 스님은 신도교육 만큼이나 승가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주기적으로 불교계 신문에 행자모집 공고를 낸다. 현재 상좌만 60여 명. 그 중에는 외국인스님도 있다. 우학 스님은 "상좌들이 공부를 원하면 얼마든지 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매일 부처님 교리를 배우고, 매일 기도와 수행을 한다. 법당과 강당마다 참선 독경 진언 절 사경 등 자신만의 수행법으로 자신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한국불교대학 도반들은 1997~2007년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2008년부터는 2040년까지 33년 기도를 수행정진 중이다.

2040년까지 1000개 분원 세운다

우학 스님은 앞으로 국내 500개, 해외 500개 모두 1000개의 분원을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온 인류가 불교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도량 건립이 스님의 꿈이요 비전이다.

스님은 "불교는 행복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종교"라며 "행복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하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이 곧 불교가 돼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우학 스님은 생활이 곧 불교가 되는 예로 ▷매일 30분 좌선 ▷〈금강경〉 독경 ▷1시간의 관음정근 ▷이웃을 위한 선행 한가지 ▷1인 두사람 포교하기 등을 꼽았다.

스님은 아이와 노인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꿈꾼다 했다. 그것을 이룬 곳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이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노인요양센터, 노인병원, 납골당까지 모두 갖춘 이곳은 불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곳, 새로운 개념의 도심 총림이다.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성공요인을 열린 사고, 수행력, 대중친화력, 투명운영, 부단한 자기성찰로 꼽았다. 스님은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수행에 기반한 신도와의 교감 외에 스스로 자기점검을 철저히 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와 법문은 쉬울수록 좋다고도 말했다.

"불자라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서 힘을 갖췄다면 그 힘을 이웃을 돕는데 써야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통해,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대구시 공덕동에 자리한 한국불교대관음사는 영남불교의 새 포교 지평을 열고있다.

다락방을 이용해 만든 박물관.

계단 틈을 이용한 바루장.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방(棒)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강시간이 되었다. 이 무렵이 되면 늘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얼마만한 편달이 있었는지. 편달과 편복(鞭扑)은 동의어이다. 채찍 편(鞭) 자는 사람을 지도하는 회초리를 뜻하고, 매질할 달(撻) 자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때린다는 말이다.

이번 강좌에 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가 열심히 정진하였으나 개중에는 앉으면 이내 방아 찧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죽비선물이 가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귀는 귀하게 여기고 의식은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 졸다가도 방선 죽비소리는 영롱하게 알아듣고 자세를 푼다. 약산유엄 선사가 이고에게 "어찌 귀는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는가?"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장마를 대비하여 농부는 부실한 둑을 편비내한다. 우리도 알찬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야 발전을 기약할 수도 있다. 근자에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말을 잔소리쯤으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예전의 구법자들은 그 양상이 영 딴판이었다.

운문의 눈을 뜨게 한 스승은 목주(睦州; ?~850) 선사 였다. 황벽희운의 제자로 호를 진존숙(陳尊宿)이라 하였다. 선사의 가풍은 누가 찾아오면 문을 닫아 버렸다. 운문이 처음 찾아갔을 때도 역시 문을 닫고 "누구냐"고 벽력 같이 소리를 질렀다. "운문입니다"라고 문밖에서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스님의 지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문을 삐주룩하게 열고 운문의 얼굴을 잠간 내다보고는 그만 문을 쾅 닫아 버렸다. 운문은 연 사흘 동안이나 이 지경을 당했다. 나흘째 되는 날 만일 목주 선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틈을 타서 들어 갈 작정을 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 이때 운문의 멱살을 잡고 한마디 일러보라고 다그쳤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운문을 밖으로 내치면서 하는 말이 "진시지도역찬(秦時之鍍鑿鑽)"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진시황 35년 상림원(上林苑)에 아방궁(阿房宮)을 지을 때 쓴 큰 못에도 새겨져 있다. 이 못은 너무 커서 보통 집에서는 쓰지 못한다.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밥벌레라고 욕지거리 할 때 쓰는 말이 되었다. 이 밥통 같은 녀석이라고 떠밀어 댔을 때 운문의 한 쪽 발이 문틈에 끼었다. "아이구 아파라"라고 비명을 지를 때 크게 깨치게 되었다. 후일 이렇게 깨달은 운문은 동산을 가르친다.

〈무문관〉 제15칙에 동산삼돈(洞山三頓)이다.

운문 선사에게 동산이 찾아오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동산은 "사도(査渡)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 하안거는 어디서 났는고." "예, 호남의 보자사(報慈寺)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때 그곳을 떠났는고."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이 때 운문 선사가 "그대에게 삼돈방을 때릴 것이나 용서한다." 동산이 이튿날 운문 선사를 찾아 물었다. "어제 스님으로부터 '삼돈방을 때릴 것이나 용서한다' 하셨으니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보야. 강서 ·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이야." 동산은 이때 대오했다.

선에서는 삼돈방 뿐만 아니라 일돈방(一頓棒), 삼십돈방(三十頓棒)도 말한다. 일돈(一頓)이란 곤장을 한 번 치는 것이다. 몰록 돈(頓) 자로 흔히 알고 있는 돈은 곤장을 치는 횟수를 말한다. 원래 중국에서 죄인을 벌주기 위하여 곤장으로 때렸다. 형법에서 일돈을 20방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선원에서 삼돈방은 횟수로 60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삼이란 숫자는 횟수가 많다는 말이지 실수(實數)의 삼(三)은 아니다. 방(棒)이 스승의 자비심으로 학인의 수행을 경책하기 위한 방편인데 여기에 무슨 폭력의 의미가 조금인들 있겠는가. 〈임제록〉은 임제 선사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상당 · 시중(示衆) · 감변 · 행록(行錄)의 4장으로 나누어 있다. 상당(上堂)에서는 일돈방이 감변(勘辨)에서는 삼십방이 나온다. 덕산이 수시(垂示)하기를 "도를 깨쳤다고 해도 삼십방이요, 도를 깨치지 못했다 해도 삼십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방이 자비심으로 학인의 수도 경지를 경책하는 선사의 필수적인 도구이듯이 편달도 스승의 사랑이 담긴 도구임에 의심할 바 없다. 제아무리 유용한 정보라도 이용자가 찾아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방의 경책을 거부하는 수행자에게는 선지식의 가르침도 부질없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의미 없이 나부끼는 개지의 나부낌이 되고 말 것이다. 깨어 있는 자만이 진보가 있고 기약이 있다. 깨어있는 자에게 한마디의 말이나 단어 하나가 새로운 세계의 창을 열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정신세계의 내적인 여행을 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운문은 사흘간 문전박대 끝에 목주 선사 알현
늘 깨어있는 자만이 진보와 기약이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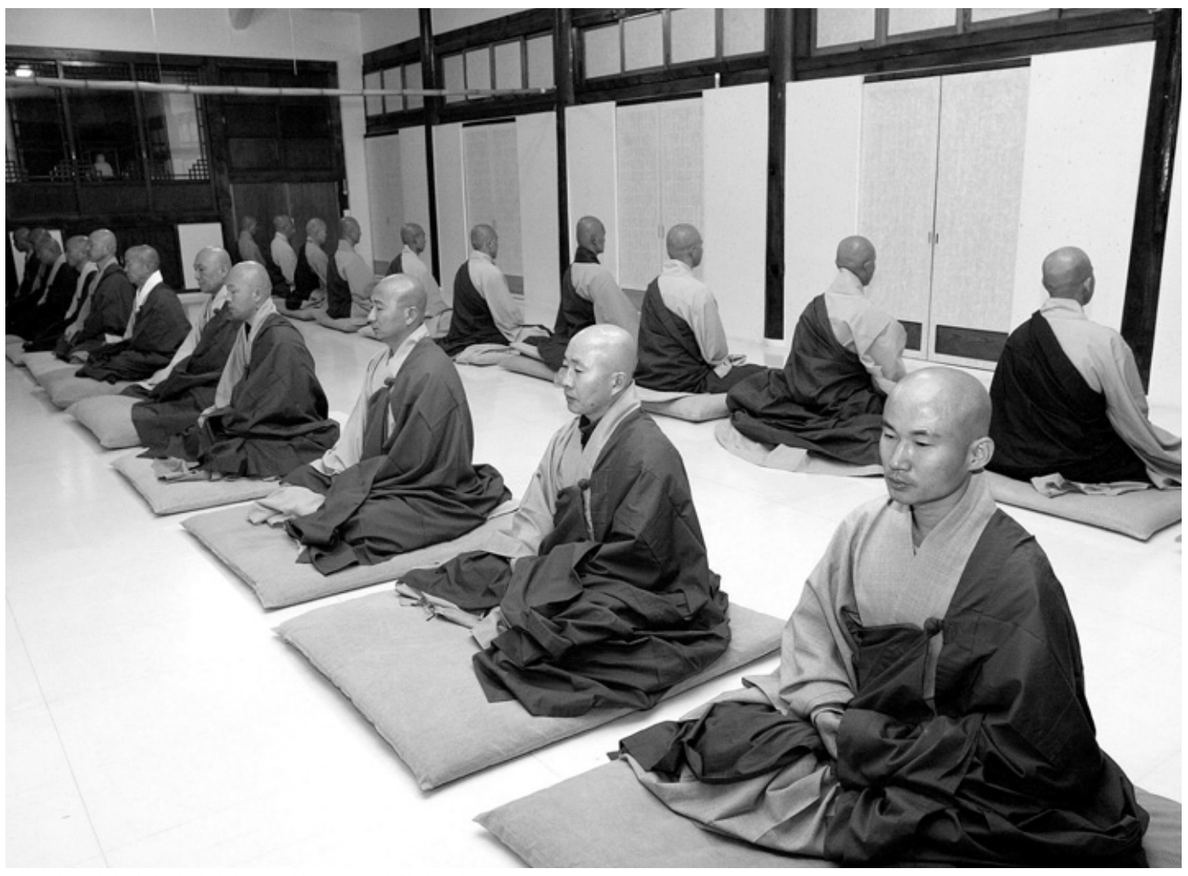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㊱

공안(公案)과 화두(話頭)

화두는… ‘당근이지’



2004년 동안거 입제 때 범어사 금오선원 스님들의 참선 모습.

수행자로 하여금 번뇌 망상과 분별적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수단 혹은 교육용 방편을 ‘공안(公案)’ 또는 ‘화두(話頭)’라고 한다. 공안과 화두는 조실이나 방장 혹은 선사(禪師)가 수행자에게 던지는 ‘과제’ ‘관문’ ‘숙제’ 같은 것으로, 이 한마디에 심안(心眼)이 열린다면 불(佛)과 동격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참구해야할 과제가 된다. 그것이 곧 공안, 화두이다.

‘공안(公案)’이란 ‘공부(公府, 관청)의 안독(案牘, 공문서)’에서 ‘공(公)’과 ‘안(案)’만 따온 말로서, ‘헌법’ ‘법령’ ‘공문’ 등을 뜻하는 중국 당시의 행정 용어이다. 공무원들에게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이나 법령 또는 상부기관의 공문은 공무(公務) 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準則)·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도 옛 조사들의 기연어구(機緣語句)나 선문답 혹은 법칙이 되는 말씀을 반드시 참구해야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 ‘공안’이라고 한 것이다. 즉 ‘공적(公的)으로 따라야할 안내(案內)’로서 따른다면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화두(話頭)의 어의(語義)는 ‘말’ 혹은 ‘대화’를 뜻한다. ‘두(頭)’는 문어에서는 ‘머리’ ‘처음’ 등을 뜻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앞의 단어를 명사화시키는 어조사 역할을 한다. 어떤 책에서는 글자 그대로 ‘말머리(話頭)’라고 해석한 곳도 있지만, 그것은 한어(漢語)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선원의 소임 가운데 조석으로 종을 치는 소임을 종두(鐘頭), 목욕탕 담당자를 욕두(浴頭), 채마 밭 담당자를 원두(園頭)라고 하여, 소임명에 두(頭)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글자 그대로 ‘종머리’, ‘목욕머리’, ‘밭머리’라고 해석한다면 웃음이 나올 일이다. 현대 한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두는 ‘말’ ‘대화’를 뜻한다. 즉 선문답, 법담(法談) 등을 가리키는데, 뜻 자체는 공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공안과 화두는 크게는 같으나 용도는 조금 다르다. 공안은 선문답 전체를 가리키고, 화두는 그 가운데 선사(禪師)의 답어나 핵심어를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화두인 ‘무(無)’ ‘간시궐(乾屎橛, 마른 똥막대기)’ ‘마삼근(麻三斤, 삼베 세근)’ 등도 모두 선문답 가운데 핵심어나 선사(禪師)의 답어다. 무자화두를 예로 들어 보자.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조주(趙州; 778~897) 선사에게 여쭈었다.

“선사,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狗子還有佛性也無)?”

“무(無, 없다).”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습니까?” “개에게 업식(業識=분별의식, 중생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상의 선문답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단락은 공안이 되고, 조주선사의 답어 중 핵심어인 ‘무(無)’ 한 글자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공안과 화두의 쓰임새를 보면 공안은 선문답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화두는 그 가운데 핵이 되는 한 구(句)를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공안과 화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선학자들은 구분하는 편이다. 쓰임새가 다르므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안 속에서 선사의 답어나 핵심어를 뽑아서 화두로 만든 이는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이다. 그는 화두참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인 간화선을 개발했는데, 종래 공안 전체를 사유하던 방법에서 더 간추려서 공안(선문답) 가운데 선사의 답어를 참구하도록 한 것이다. 더 편리한 방법을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화두이다.

공안도 그러하지만 화두 역시 분석적인 사고나 사량 분별심(알음알이=머리를 굴림)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언어적인 해석이나 학문적으로 쉽게 천착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 잘난 척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열어 줄 수 있고, 똑똑한 척, 이분화(二分化)시키려는 분별적인 사고를 정지시켜서 무분별의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선학자, 공안·화두 구분

사량 분별심으로 접근 불가능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은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 화두 하나에 집중, 올인(All in)해야 한다. 화두와 내가 하나(不二) 곧 동체(同體)가 돼야 한다. 이것을 선에서는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고 한다. ‘모든 생각을 몽땅 뭉쳐서 한 조각’ 곧 ‘화두 일념(話頭一念)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관건은 얼마나 화두에 집중, 몰입하는가이다. 흔히 선어 가운데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올인)’ ‘닭이 알을 품듯이(일심)’ ‘오매일여’ ‘몽중일여’ ‘일념 만년(萬年)’이라는 말도 모두 집중(올인)해 화두를 참구하라는 뜻이다. 여객기가 이륙할 수 있는 속도는 시속 300㎞ 이상 돼야 하고, 물이 끓는 온도는 100℃ 이상이다. 화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끓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화두삼매, 곧 화두에 몰입하려면 평이한 상식적인 언어, 논리적 접근이 가능한 언어, 조금만 파고들면 곧 알 수 있는 언어로서는 어렵다. 그런 언어로는 꽉 막힌 관념을 타파 할 수 없다. 도무지 질문(무엇이 부처입니까?)과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언어, 곧 ‘무(無)’ ‘마삼근’ ‘간시궐’ 등 언외(言外)의 언어, 파격적인 언어만이 기름때로 찌든 혈관을 뚫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사의 모든 말과 제스처는 곧 진리의 당체를 가리키는 언어라야 한다. 참선자는 이것을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공안이나 화두는 뜻이 없다고 해도 되고 있다고 해도 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뜻(=메세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좀처럼 알 수 없을 뿐이다. 공안, 선문답에는 당시의 유행어나 고사성어, 격언, 은어, 방언, 속어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사용해 고정된 생각이나 집착, 주의(主義)에 갇혀 있는 참선자의 마음을 각성하게 한다. 다만 1000년 전 중국 속어의 진의(眞意), 뉘앙스를 천년이 지난 오늘날 100% 파악할 수 없을 뿐이다. 예컨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당연하다’는 표현 대신 ‘당근이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천년 뒤에 ‘당근이지’가 ‘당연하다’임을 알아차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홍당무인 당근이 왜 등장할까?”하고 갖가지 사전을 찾아댈 것이다.

참선(간화선)에서 화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참선자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일까? 그것도 모르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씩씩대는 것과 같고, 지도도 나침판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려는 것과 같은 무지선(無知禪)이다. 일평생 참구해도 오도(悟道)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화두의 1차적인 역할은 화두삼매를 통해 번뇌망상과 사량분별심을 타파(물리침)하는 것이다. 화두 몰입은 불안, 번민, 고뇌 등 정신적 갈등과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된다.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래 청정한 마음 상태로 돌아간다.

화두를 계발한 대혜(大慧; 1089~1163) 선사는 〈서장(書狀)〉에서 “이 무(無)라고 하는 한 글자야말로 번뇌 망념의 생사심을 부숴버리는 칼이다(無. 遮一字者, 便是箇破生死疑心底刀子也).” “무(無)라고 하는 이 한 글자야말로 곧 악지(惡知, 잘못된 앎), 악각(惡覺, 잘못 깨달은 것)을 물리치는 무기(武器)이다(此一字者, 乃是摧許多惡知惡覺底器仗也)”라고 말하고 있듯이, 화두의 1차적인 역할은 괴로움의 원천인 번뇌 망상을 물리치는 것이다.

화두, 번뇌·망상 물리치는 역할

절대성 바탕돼야 깨달음 가능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간화결의론〉에서 “화두는 전제(全提)와 파병(破病)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전제는 화두삼매를 통해 근심 걱정과 불안 등 번뇌 망상을 억제시켜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파병은 모든 사량분별심과 환영·환청·환시 등 갖가지 선병과 마장(魔障)을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2차적 역할은 일사일지(一事一知, 한 일에서 하나를 안다), 일기일회(一機一會)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事例) 즉 다양한 공안 참구를 통해 지혜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것이다. 선의 목적은 번뇌 망념을 제거하고 반야지혜를 터득하는데 있는 것이지, 좌불(坐佛)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좌불은 바보나 백치가 하는 짓이다.

공안이나 화두가 100% 제 기능을 발휘하자면 무엇보다도 권위와 절대성이 확보돼야 한다. 즉 ‘이 화두를 참구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져야 한다. 권위와 절대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화두는 깨달음을 체득하는 방편으로 핵탄두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이 무너지면 수행자에게 화두는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화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화두는 진리가 아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도구, 방편이며, 진리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우주선일 뿐이다. 그러나 이 우주선이 없으면 우주를 여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화두는 진리는 아니지만 깨달을 때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다. 절대성 즉 대신근(大信根, 큰 믿음)이 바탕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선을 할 때는 대부분 ‘화두를 든다[擧話]’고 말하는데, ‘든다[擧]는 것’은 곧 ‘화두를 참구한다’는 뜻이다. ‘참구(參究)한다’는 말은 ‘탐구한다’는 말인데 다만 차이점은 학문적, 분석적, 언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인 사유를 통해 탐구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화두를 해석하면 ‘사구(死句, 죽어 버린 말),’ 해석하지 않으면 ‘활구(活句, 살아 있는 말)’라고 한다. 문제는 해석해 버리면 더 이상 참구해야 할 가치나 필요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인데, 그것은 학문적인 이해일 뿐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지능적으로 천착해서 안 것은 진정한 앎(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안이나 화두를 깨달으면 결국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깨달음’이라는 것을 신출귀몰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망상이다. 그것은 간화선이 아니고 사기선(詐欺禪)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공, 무상, 무아의 이치, 중도, 무집착,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청정한 마음인 불성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비실천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보내실곳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미전리 450번지
010-3262-9183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

명상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요.”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요.

◐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륜선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사)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첫째, 둘째도 화합을 표방하며
제방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6월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연락처 010-3262-1005

정확도 효과성 제일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효사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효사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효사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효사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효사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국민은행 006001-04-236354 육임나라㈜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동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궁금한데 무엇을 펴볼까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과 알기 쉬운 불교용어산책


백과사전 같은 화려한 컬러로 1만5572여 항목에 달하는 표제어와 300여 장의 사진과 도면을 실은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

불교를 공부하다보면 궁금증이 없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모르는 것을 쏙쏙 찾아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다.

그런 불자들의 바람 속에 한속에 쏙 들어오는 불교사전 2종이 출간됐다. 민족사의 〈콘사이스판 불교사전〉과 양사재의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이 그것.

이제까지의 불교사전이 판형이 크고 두꺼웠던데 비해, 두 책 모두 휴대가 용이한 판형과 두께로 출간됐다.

민족사의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은 가로 11.7㎝ 세로 17.8㎝, 두께는 3.2㎝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고급 사전용지를 사용해 1216쪽에 4950여 단어를 수록했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은 국내 최초의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이다. 주황색 고급 양장본으로 고급스럽다.

책을 펴면 불교 전반의 지식을 모두 한글로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해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책은 불교교양대학을 다니는 불자들의 교리공부의 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자들이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에도 궁금한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저자 김승동은 부산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장, 대동철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 인문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한국철학사〉, 〈도교사상사전〉, 〈불교-인도사상사전〉, 〈유교-중국사상사전〉 등이 있다.

> 두 권중 무엇을 손에 들어도
> 누구나 손쉽게 궁금증 해결

이 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15년 전부터 원력을 세웠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윤 사장은 "학자보다 불교를 배우려는 일반 불자들에게 적합한 사전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윤창화 사장의 발원은 4년 전 김승동 부산대 명예교수로부터 불교사전을 내고 싶다는 제안에 막대한 제작비 투자를 가능케 했고,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회향됐다.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도 앞의 책과 비슷한 크기이다. 백과사전 같은 화려한 컬러로 1만5572여 항목에 달하는 표제어와 300여 장의 사진과 도면을 게재해 책을 보는 즐거움을 높였다. 부록으로 그림을 곁들여 수록된 불교문화 상식(사찰의 모든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불교사전은 △1961년 5월 운허용하 편 〈불교사전〉(법보원, 동국역경원) △1988년 9월 홍법원 간행 〈불교학대사전〉 △2001년 4월 김승동 교수 편찬 〈인도·불교사상사전〉(부산대) △2003년 7월 시공사가 펴낸 〈시공 불교사전〉 등이 있다.



콘사이스 불교사전 |김승동 편저|민족사 펴냄|3만8000원
알기쉬운 불교용어 사전 |태경·조기영 공저|양사재 펴냄|4만3000원

조동섭 기자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사고

지장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바꾸는 이야기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희망한다. 잘 살아보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거나 책을 사서 읽는다. 잘 사는 법을 일러주는 자기계발서도 읽어본다. 하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머리와 마음으로는 분명히 안다. 그리고 간절히 실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마음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성공과 자기 변화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차명상협회 상임이사 지장 스님(사진)은 〈클리어 마인드&클리어 라이프 전략〉에서 "마음을 다루는 문제도 이제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스님은 우선 아는 것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는 '클리어 마인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같은 조건에서도 누구는 즐거워하고 누구는 괴로워하는 것처럼 대상이나 현재 상태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 그래서 스님은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하기보다는 대상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나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힘들게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진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지장 스님은 클리어 마인드 전략으로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덜 영향을 받고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 세 가지 현실적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한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 내는 것,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책에서 스님은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이제까지 행복과 성공을 꿈꾸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면, 혹은 자신감과 용기, 열정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면 〈클리어 마인드 & 클리어 라이프 전략〉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자.



클리어 마인드 & 클리어 라이프 전략 |지장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5000원

이나은 기자

디가니까야에서 선별해 만든 책

전재성 박사, 디가니까야 앤솔로지 출간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는 지난 4월 부처님의 전승된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긴 크기의 경전을 모아놓은 경전모음집 〈디가니까야〉을 완역해 출간한데 이어 앤솔로지인 〈신들과 인간의 스승〉을 출간했다.

한역 경전에서 〈장아함경〉으로 알려진 초기 불교 경전인 〈디가니까야〉는 초기불교의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율과 삼매와 지혜 즉, 계·정·혜 삼학의 논리에 따라 각각의 경들을 체계화시킨 경전이다. 또한 〈디가니까야〉는 고타마 붓다의 열반 후 직속제자 500명이 칠엽굴에 모여서 경전을 결집할 때 가장 먼저 편집한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 앤솔로지는 〈디가니까야〉전집 34개 경전 가운데 9개를 엄선해 실은 것이다.

〈신들과 인간의 스승〉에서 부처님은 유물론과 유신론 사이에서 방황하는 세속적 철학의 혼돈의 심연을 예리한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부처님은 계·정·혜 삼학을 닦는 수행자의 삶을 통해 그 혼돈 속에 쳐진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스스로 길을 어떻게 걸어서 마지막 여로에 까지 이르렀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연기의 법칙의 심오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기의 조건성을 소멸시켜 대자유로 이르게 하는 명상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설명한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위빠사나 수행이 핵심이 되며 책에서는 명상수행의 모든 필수적인 가르침을 요약해 담고 있다.

그리고 책에서는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를 배경으로 밧지족의 일곱 가지 불퇴전의 원리, '진리의 거울'이라는 법문 등의 가르침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경전하라'는 유훈을 가르친다.

신들과 인간의 스승 | 전재성 역주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펴냄 | 30000원

이나은 기자

지금 여기서 행복하려면

행복을 위한 마음 사용법



〈행복을 위한 마음 사용법〉은 〈5주 만에 붓다 되는 법(How to Become a Buddha in 5 weeks)〉이라는 가히 놀랄 만한 원제를 가진 책이다.

평생을 치열한 수행자로 살아도 범부를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5주 만에 붓다가 될 수 있다니. '5주 만에 살을 빼드립니다'라는 광고 카피만큼이나 귀가 솔깃한 제목이다. 책은 붓다의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행하라'는 삶 속의 수행법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사진)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붓다의 가르침이 있어 극복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을 권유한다. 책은 수행 입문 매뉴얼을 소탈한 어법으로 전달하면서도 기존 교리를 재해석한 날카로움도 담았다. 이는 종교보다는 생활 속 명상기법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서양인 저자의 시각을 오롯이 그려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 '붓다로 살기 위한 5주 매뉴얼'이 담겨있다. 당신도 5주 후 붓다가 될 수 있다.



행복을 위한 마음 사용법|줄리오 체사레 자콥베 지음|임희근 옮김|문학세계사|1만1000원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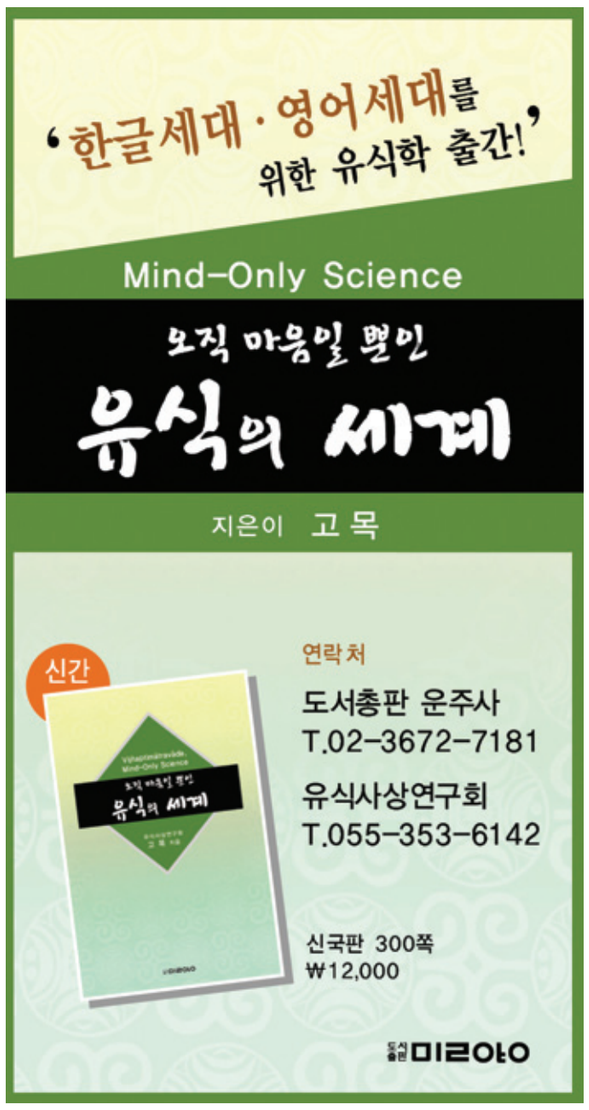
6/8~6/1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인연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기도	법륜	정토
4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5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6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7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8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9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10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날을까	성전	마음의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북녘의 우리 절·사지 65곳을 한눈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국내 최초 자료 포함한 '북한의 전통사찰' 발간



북한의 전통사찰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양사재 펴냄 | 전 10권150만원



자강도 법왕대 다층탑



평안남도 평성 안국사 구층석탑

남북 분단 이후 갈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북한의 전통사찰이 모아져 도록으로 발간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자승)는 6월 13일 "북한 조선문화보존사에 의뢰해 촬영한 북한 내 사찰과 불교문화재 사진을 도록 10권으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북한지역 전통사찰 59곳과 사지(寺址) 6곳 등 65곳에 있는 전각 불상 불화 단청 석탑 비석 등 문화재 사진 3500여 컷과 해설이 타블로이드(가로 25cm, 세로 35cm) 크기 2800여 페이지에 담겼다.

책은 민추본이 봉은사 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2009년부터 추진해온 북한 전통사찰 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수록된 사진은 북한 문화재 관리기관인 조선문화보존사와 조선불교도연맹의 협조로 2009~2010년 촬영됐다.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 사진 촬영에는 남측 전문가의 촬영 매뉴얼이 전달·반영됐다. 이로 인해 도록에는 사찰 전경부터 전각 석탑 법당의 내부 모습, 불상, 탱화까지 전체·세부도가 모두 수록됐다. 특히 장안사터 화장사터 마하연터 학림사터 현화사터 신광사터 등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사찰 자료로는 일본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자료와 북한에서 출간한 〈조선의 유적유물도감〉(2001년 刊), 〈조선의 절 안내〉(2003년 刊) 등이 전부로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가 건축물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이사장 자승 스님은 "책은 북한 전통사찰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며 "북한 전통사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평남 평원 법흥사 금동여래좌상



평안북도 박천 심원사 보광사



자강도 만수암 대웅전 전경

효소로 건강지키자!

전문희 "현대인에게 효소는 필수"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효소 이야기
전문희 지음 | 김선규 사진
이른아침 펴냄 | 1만5000원

암환자, 성인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암 외에도 세계 곳곳에는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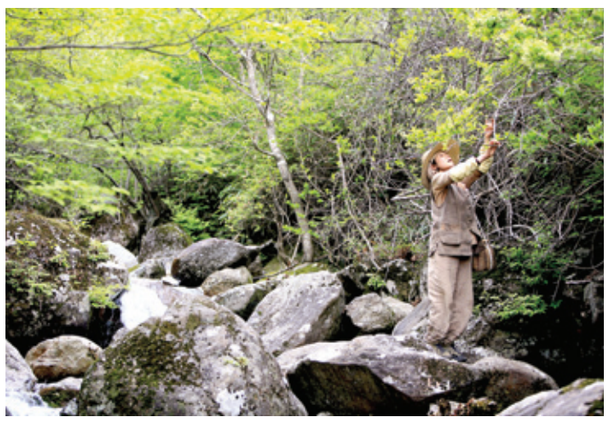
현대는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독이 돼버렸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당연히 영양은 과잉섭취가 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암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식이섬유와 효소가 부족해 독소가 배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한 산야초 연구회'를 이끌며, 산야초 차와 효소를 만들어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문희씨는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효소 이야기〉를 통해 효소가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해결책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식이섬유와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식이섬유는 분해된 노폐물을 변으로 배출되도록 돕고, 효소는 유해물질이 배설되기 쉬운 형태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한다.

각종 화학첨가물이 든 가공식품과 고칼로리식품, 술과 담배, 과로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체내 효소는 고갈되고 정작 건강을 지킬 효소는 부족하게 된다. 지리산을 16년 째 삶의 터로 삼아 살고 있는 저자는 생야채, 생과일, 발효식품을 매일 먹어 효소를 보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사시사철 산과 들에 나는 초목들의 뿌리, 잎, 껍질, 열매, 꽃 등을 채취해 발효·숙성시킨 산야초 효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온 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산야초로 만든 효소는 영양분과 산소 흡수, 소화 및 신진대사를 촉진해 비만과 노화를 예방한다. 또 독소를 배출시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해독 정화작용과 수면 중에도 대사 작용을 일으켜 노화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교체해 준다.



책에는 식물의 잎과 꽃, 뿌리, 전초를 이용해 어떻게 효소를 만들고 마시는지, 만들어낸 효소가 각각 어떤 약효가 있는지를 계절별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여러 약초를 몸소 경험해 낸 지식들을 책을 통해 가득 풀어놓았다.

저자는 "우리나라는 조금만 노력하면 장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육식 위주의 서양식이나 인스턴트 식으로 바뀐 식습관만 바로잡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은정 기자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 7월 27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990,000원~~ → 1,790,000원
■ 8월 24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040,000원~~ → 1,840,000원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티벳과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9일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북경 6일
◑ 대만 정통 불교성지순례 4일 (불광사 | 중태선사 | 자항사 | 아류)
◑ 방콕 | 파타야 5일, 장사 | 장가계 5일, 백두산 5일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현대미술 화두는 인도 미술

자이언트 엘리펀트 展, 비상하는 인도미술계 역량 화폭에 가득 담아



인도의 상징인 코끼리가 영국풍 서양양식 궁전을 부수며 거닐고 있다. Manjunath Kamath 作, 'That's it'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서 중국에 이어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도를 꼽는다. 전문가들은 그 원동력은 십 수억에 달하는 인구와 함께 인도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부심,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력 등을 들고 있다.

인도는 창조산업 수출국 세계 11위, 아시아에서는 3위로 인도의 문화와 전통은 세계 시장에서도 독특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도미술은 미술계에서 최근 들어 그 성장 가능성에 가장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아트페어(미술시장)와 소더비·크리스티 등 경매시장에서 인도미술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2년 400억 원 규모였던 인도미술 거래규모는 최근 4000억 원 규모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30%이상 성장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인도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가 마련됐다. 서울 관훈동 공아트스페이스 1~4층 전관에서 6월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자이언트 엘리펀트-인도 현대미술' 전에는 산토시, 파르하드 후사인, 딜리프 샤르마 등 미국, 아시아 무대를 넘나드는 인도 미술가 17명의 작품 74여점이 선보였다.

전시 제목 '자이언트 엘리펀트'는 거대한 코끼리란 뜻처럼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 저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떠오르는 인도 미술을 상징한다. '자이언트 엘리펀트' 전에서는 서구 중심 미술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흐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인도미술을 떠올릴 때 초기 인도불교의 헬레니즘 양식이 나타난 간다라 미술이나 밀교의 특성이 나타난 후기 불교미술, 힌두교, 이슬람교와 연관된 종교 미술을 떠올린다.

인도미술의 기원은 기원전 3세기경. 당시의 미술은 대부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와 연관된 종교미술이며, 특히 불교미술과 힌두교미술이 압도적이다. 이후의 인도미술은 모더니즘 경향을 지닌, 무척이나 대담하고 화려하며 특정적이지 않은 다양성을 띈다.

여기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를 지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처럼 오랜 시간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향취가 발견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면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물과 사람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온 회화식으로 표현한 서구 아카데미즘에 반기를 든 것이다. 더욱 독특한 점은 인도 전통 회화의 답습도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이 많다. 아직은 인도 고대 신화 등에서 차용한 부분이 눈에 띄지만 그 양식은 이 전과 달리 범주가 매우 넓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 미술계에 인도미술이 어필하는 이유다. 이는 작가들 자체가 사회적 배경, 그림에 대한 감각, 저마다의 개인적 의지와 신념이 다르고 이를 용인하는 사회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다. 개인적 독창성을 바탕으로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인도미술을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 (02)730-1144 노덕현 기자

느림과 정치(精緻) 미학의 정수, 사경

한국사경연구회, 28일까지 초조대장경 기념 전시개최



감자금니 〈묘법연화경〉 권제 2 변상도. 행오스님 作.

초조대장경 1000년의 해를 맞아 사경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는 6월 28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전시실에서 '제6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대장경 유물을 중심으로 현재 사경수행을 하는 회원 80여명의 작품 100여점을 출품한다.

사경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재료, 도구가 청정해야 하고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모아 성인이 남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사경은 앞서가는 마음을 제어해 현재심, 즉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한다. 이는 곧 매 순간순간에 가장 충실하고 정직함을 의미한다.

사경연구회원들은 이러한 느림의 미학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도구인 붓끝 0.1㎜에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모았다.

출품작들은 불교, 성경, 유교경전의 내용을 금니·은니·경면주사·주묵·묵서 등의 재료를 사용해 액자, 병풍에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02)566-6300

이나은 기자

국내최초 詩치유사, 찬불가 앨범내

국내 최초의 시치유사이자 불자시인 김하리씨가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다.

김하리 시인은 타이틀 곡 '혼인 서약의 노래' '자비의 미소' '어머니 아리랑'을 직접 작사·노래했다.

김 시인은 부처님의 인연으로 결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부부의 행복을 '혼인 서약의 노래'로 표현하며, '자비의 미소'에서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미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앨범에는 김하리 시인의 자작시인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낭송도 담겨져 있다.

20년 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김하리 시인은 이후 불교와 인연을 맺어 불교시를 썼으며, 불교소리시집 및 찬불가도 제작했다.

현재 시낭송가, 시치유사로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리 시인은 "남은 생애 동안, 법명인 금아(琴?)처럼 부처님의 가지가 돼 소리공양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리라 서원했다"며 "이번 낸 음반은 기교와 가식 없이 불심으로 노래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부처님을 만난 인연이 고맙고, 행복하고 기뻐서 가슴 속에 담아두기보다는 포교의 마음으로 소리공양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건강칼럼

인삼(人蔘)은 아무나 먹어도 되나



정지천 내과 교수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인삼은 오장을 보강하고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해 만병통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질병에 효과가 있다. '기(氣)'를 보강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관건인데, 인삼은 '보기제(補氣劑)'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인삼의 중요한 효능만 살펴보면 비위장의 양기와 심장, 폐의 기가 허약한 것을 보강하여 기운을 끌어올려 주고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뇌의 활동을 촉진하므로 지력과 기억력을 강화시켜 총명하게 해 준다. 정신을 맑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한다. 간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천식을 낫게 하며 성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그밖에도 동맥경화, 당뇨병, 저혈압, 만성피로, 피부미용에 좋고 항암 효과도 크다.

인삼은 산삼보다 귀한 명약
'소양인'은 섭취에 주의해야

물론 추위, 더위, 과로에 대한 회복 효과가 탁월하고 노화 방지에도 필적할 만한 약이 별로 없다.

예전에는 인삼이 아주 귀했다. 조선 후기에 재배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요즘의 산삼(山蔘)이 인삼이었다.

조선 임금 중에 가장 장수했던 영조(英祖; 1694~1776)는 자신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인삼의 정기'라고 여겼다. 중국의 황제 중에 가장 장수했던 건륭제(乾隆帝; 1711~1799)가 늘 먹는 한약 처방에도 인삼이 들어 있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왕이 승하하기 직전에는 인삼 한 가지만을 달인 '독삼탕(獨蔘湯)'을 드렸다고 한다. 독삼탕은 중병을 앓거나 만성 질환을 오래 앓거나 혹은 피를 많이 흘려서 탈진 상태가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팔다리가 싸늘하며 맥이 가늘고 약한 경우 등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먹여 기사회생시켰던 구급약이다.

인체는 기(氣)와 혈(血), 음(陰)과 양(陽)이 조화를 이뤄야 정상인데, 인삼은 기와 양만 강해지게 하므로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 병증이 생겨나기 쉽다. 특히 노인이나 소아들은 기혈이 허약한데 인삼을 먹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조화로 인해 급격히 위중해질 수 있다. 그러니 처방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삼은 누구나 어느 때나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홍삼(紅蔘)도 마찬가지다. 몸이 항상 뜨겁고 더위를 타며 기가 왕성해 맥박이 빠르고 힘차며, 소화력이 강해 식사량이 많고 찬 물을 즐겨 마시며 소변 량이 적고 대변이 굳은 편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몸이 마르면서 열이 많고 성질이 급하며 찬 음식을 좋아하는 '소양인(少陽人)'은 인삼을 조금만 먹어도 열이 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피부에 반진이 생길 수 있다. 알레르기, 아토피체질에는 맞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삼이 맞는 체질은 몸이 허약하고 냉하여 추위를 타고 손발이 차가우며 비위장 기능이 약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량이 적으며 대변이 묽고 소변이 맑으면서 량이 많은 편인 사람들이다. 몸이 마르면서 추위를 타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소음인(少陰人)'에 딱 어울린다. 그렇지만 체질에 맞더라도 감기 초기에 열이 있거나 습기가 많이 쌓여 있거나 혹은 식체해 헛배가 부른 경우에 인삼을 쓰면 탈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을 가진 분들은 더덕, 구기자, 하수오, 표고버섯 등이 좋다. 찬 성질로서 열을 내려주고 음기를 보충하는 보약인데,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로 먹기 어렵다면 마늘, 부추, 생강 등을 먹으면 된다. 남성에 비해 혈(血)을 위주로 하는 여성에게는 인삼보다 당귀(當歸)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당귀는 '보혈제(補血劑)'의 대표로서 '부인들의 성약(聖藥)'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남양后人 홍길동 靈駕
行孝
伏爲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中 (넓이 10cm X 높이 21cm)
小 (넓이 8cm X 높이 15cm)
• 흑옥위패 및 단
• 흑단위패
Art (주) 대양아트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6월 11일 천안 구룡사에서 봉행된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에서 불자들이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석가모니' 염불하고 있다.

경전을 쓰기만 해도 부처

"3만여 법화행자들이 〈법화경〉 전법의 수레가 되고 대들보가 되고 서까래가 되겠습니다. 〈법화경〉 사경으로 성불의 연꽃이 활짝 피게 하고, 청정한 원력 법사들이 계속 출현하도록 발원하겠습니다."

1만 여 〈법화경〉 사경 행자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정성스럽게 합장을 하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6월 11일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회주 도림)에 1만여 불자가 운집했다.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가 열린 이날 구룡사 경내는 이른 새벽부터 불자들의 기도가 시작됐다. 충남 천안시 백자리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구룡사 진입로는 차량 정체로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와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었다.

구룡사 도량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에 300만 명이 모여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이루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듯했다. 법당은 이른 새벽부터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불자들은 경내 곳곳이 법당인 듯 자리를 잡고 앉아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고 공양도 했다.

사경 봉안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철야정진으로 이어졌다. 오전은 부산 광명사 주지 도실 스님의 법어와 도림 스님의 포살법회로 1부가 진행됐다. 점심 공양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불자가수들의 〈법화경〉 예찬 음성공양과 한미사 회주 도철 스님의 법어가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에 진행된 긴 법회에도 법화행자들은 지칠 줄 몰랐다.

오후 4시 구룡사 회주 도림 스님의 인례에 따라 불자들은 사경한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석가모니 불' 염불을 하며 도량을 돌았다. 일부 법화행자 중에는 우편으로 사경노트를 보내 탑에 봉안한 이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사경 노트를 머리에 이고 수행공덕을 나눴다.

〈법화경〉 사경 봉안은 도림 스님이 20여 년 전부터 광복절을 전후해 진행해왔다. 〈법화경〉의 공덕을 알리고 경전보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법화행자로 인연을 맺은 불자만도 전 세계에 200만여 명이 된다.

원만행(54 · 원주) 보살은 건강을 잃어 평소 사찰에서 하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지 못해 힘들어 했다. 봉사를 하면서 만난 스님으로부터 사경 수행을 권유 받아 그날부터 〈법화경〉 사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해왔다. 원만행 보살은 "처음 뜻도 몰랐지만 나날이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경본 여덟권을 써서 봉안했고 지금 아홉권 째 쓰고 있다는 원만행 보살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얻으면서 이웃에게 사경 포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원만행 보살은 "매사가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원만행 보살의 권유로 사경을 하게 된 노수옥 (56 · 원주)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사경이 마음에 위로가 된다"며 또 한 명의 직장 동료에게 사경수행의 길을 안내했다.

이상언 기자

"사경 수행이 운명을 바꾼다"

천안 구룡사 회주 도림 스님 〈사진〉

〈법화경〉 읽고 쓰기를 열심히 하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시대의 운명이 바뀌고, 국운이 청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자손손 뜻과 같이 잘 됩니다.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모든 업장이 소멸되면서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화경〉 사경 수행의 공덕은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주도에 불사리탑을 세우면서 병고로 쓰러지면서 매일 저녁 〈법화경〉을 3시간 동안 사경했습니다. 한 자 한 자 쓰고 또 쓰기를 16년동안 했더니 육신과 정신의 병 모두 완전히 나았습니다. 사경 수행의 공덕으로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16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프고 괴롭고 기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희노애락 속에서도 어디든지 〈법화경〉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 여러분 모두가 분명 성불을 하게 됩니다.



사경수행, 불교와 함께 전파됐다

우리나라의 불경은 모두 사경을 기초로 해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경문화는 유구한 전통 속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초기 불경은 사경을 기초로 유포됐고 이후 수요에 따라 목판 대장경으로 발전됐다. 우리나라에서 불경을 제작하는 재료로는 종이, 대나무, 돌, 진흙으로 빚어서 불경을 만들거나 금속에 새긴 금판경이 유행했다. 목판 대장경 사업은 사경의 매체로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경을 필사하는 사경 전통은 불도들의 정성과 신앙심에 힘입어 불교전래 초기부터 전파됐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던 4세기 후반 태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파견하면서 불상과 경문을 보낸 기록이 있다. 당시 불교의 전파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필사 돼 보급하게 됐는데 이때 이뤄진 사경이 우리나라 사경 수행의 첫 시작이 됐다.

사경공덕은 경전에서도 강조해



왔다. 〈금강경〉에는 "7가지 보배로 갠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 많은 칠보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게를 서사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사경하거나 지니고 독송하는 공덕이 경전에 강조돼 있어 시대를 이어 불자들 사이에 유행이 됐다.

고려시대 사경은 고려미술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도 섬세하며 온갖 호사를 다했다. 내용면에서나 물량면에서도 신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이 변화했고 내용도 다양해진다.

고려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사경원(寫經院)을 설치하기도 했다. 불교를 개국이념으로 삼았던 고려 초기의 불교활동이 보다 순수한 불교신앙을 뒷받침 해 전개됐다면 고려후기 불교는 외세의 입김아래 형성된 문화현상의 측면도 강하다.

조선시대 사경은 고려와 형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교사회에서 불교의 위축으로 사경 제작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과거의 전통은 이어가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개인 발원의 사경보다는 사찰을 중심으로 판경의 제작이 성행했다. 〈법화경〉과 같은 대승 경전을 개인의 동참을 통해 전개 됐으므로 고려시대의 국가 불교적 상황과는 다르다.

유교사회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고, 그 자구책으로 효(孝)에 대한 자구책을 찾았다. 이런 가치관은 불경조성에 있어 〈부모은중경〉과 같은 불경이 대두됐으며 당시 법화신행이 유행과 함께 〈법화경〉 간행이 가장 보편적으로 성행하게 된다. **참고 〈한국사경 연구〉 (동국대 출판부)**

언제 어디서고 할 수 있는 '사경'

사경(寫經)은 경전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불교 수행 중 가장 일찍 형성된 수행법이다.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과 종이에 옮겨 넣는 신앙행위이자 수행이다. 내면에 치중하는 여타 수행과 달리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수행법이다. 타력적 신앙이 아니라 자력 수행으로 법신사리를 조성하는 행위다.

사경수행을 할 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신라시대 유일한 육필(肉筆)사경인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에는 사경의 제작과정이 남아있는데 사경을 할 때 어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자져야 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는 뿌리에 향수를 주어 기르고 제작과정은 분업으로 진행된다. 관여자는 모두 보살계를 수지해야 하고 음식을 청결히 가려 먹어야 하며, 잠자거나 식사하거나 부정한 곳에 출입한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향수로 목욕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 향과 꽃과 범패로써 공양을 올려 의식을 집행한다."

이처럼 사경수행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 걸림이 없는 비움의 상태가 돼야 한다. 사경 수행에는 펜글씨와 같은 경필사경과 붓글씨의 모필 사경이 있으나 붓끝에 마음을 집중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인내력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경역시 수행이기에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 글씨의 미추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경 수행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도 가능하다. 사경 수행을 할 때 그 뜻을 모르면 베껴 쓰는 수고로움을 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성을 다해 서사하는 과정에서 그 뜻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을 잘 기억해 뒀다가 사경 수행을 마친 후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내용을 곱씹다 보면 그 뜻이 밝혀 질 때가 있다. 따라서 사경수행은 이러한 반복과 심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경을 할 때에도 기초수행이 필요하다. 자극적인 음식과 육류를 피하고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면의 조절이 필요하며 평소 몸을 청결히 하고 지병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호흡도 가늘면서도 고요하고 깊고 고르게 해 마음이 안정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조복 받는 기초 수행이 필요하다.

사경은 가장 값진 법사리다. 따라서 사경본의 보존은 법사리 신앙과 연결된다. 경전에는 법사리를 여법하게 장엄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일은 죄가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경을 여법하게 수지(受持)하는 일 또한 수행으로 사경수행을 하기 전 미리 깨끗한 보자기나 청정한 경함을 마련해 날짜를 쓴 후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두면 부처님의 법력이 깃들어 가정과 이웃에게 맑은 기운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만물을 변화시킨다고 전해진다. 가정에서는 가장 청정한 장소에 법단을 만들어 봉안하고 인연이 닿으면 탑이나 불상의 복장에 봉안한다. **참고 〈수행문답〉 (운주사)**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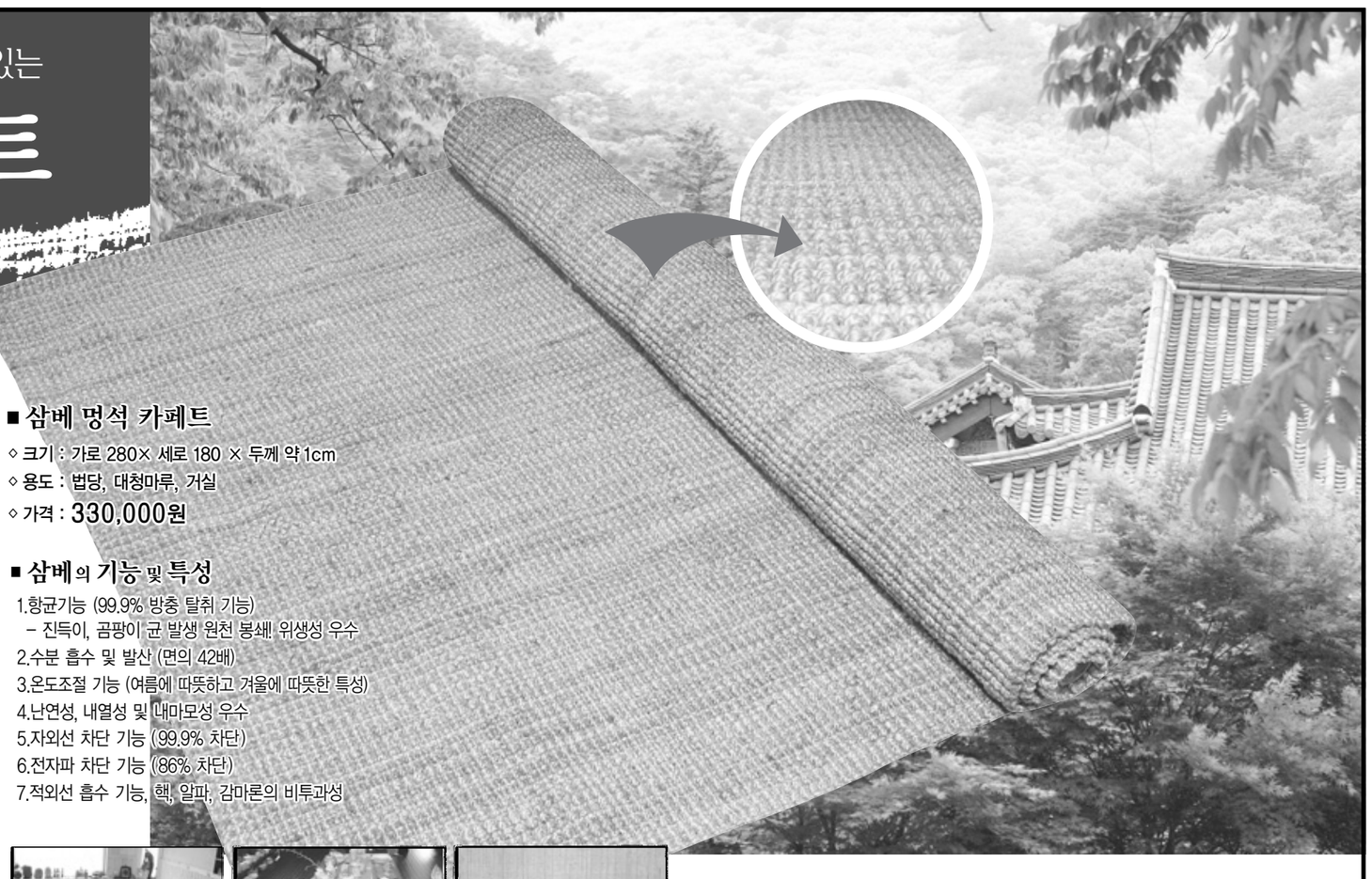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구술인물사⑩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청년불자 활동의 기반이었던 불교학생회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철공소 나가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상하게 기계 일하는 데 이런 데 가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은 공부 안 하면은 대학, 공장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전재성은 철공소 일이 싫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였으며, 서울대 농대 농화학과에 입학했다고 고백하였다. 농촌에 가서 좀 한가롭게 살아보려는 생각에서 농대를 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화상을 입은 부분이 넓어서 목욕탕도 제대로 못가고 수영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숙박하는 모임에는 가지 못했다고 구술한다.

그 당시 서울대에는 불교동아리인 법불회 즉 법학과 불교학생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문리대 불교학생회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재성은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 농대를 중심으로 불교학생회를 조직했다. 지도교수가 있어야 동아리 등록이 가능했으므로, 당시 유명했던 유달영 박사를 찾았다.

"원예 쪽이지만은 철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뭐 이런 모든 뭐 사상 분야에서 유달영 박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지요. 유달영 박사가 그 분을 찾아갔더니만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인은 아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이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불교가 훌륭한 종교인데…"

그 때 유달영 박사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서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처음으로 서울농대에 불교학생회를 결성했다고 증언한다. 함께 불교를 공부할 학생들을 모집했고, 당시 꽤 많은 9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 그들은 서울대 수원캠퍼스에서 가까운 팔달산 밑 대승원 사찰에서 첫 법회를 시작했다. 선배들도 많았지만 농대불교학생회를 조직한 전재성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였다. 그는 당시 꽤 열심히 불교 활동을 했다고 되돌아본다.

"문리대에서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서울대 전체에 수련대회 같은 거를 방학 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문리대라든가 법대 법불회,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인제 그 총불회가 발족을 하게 됐죠. 그 때 아마 총불회가 발족을 할 때에 지금 건국대 성태영 교수가 아마 총불회 회장을 했던 거 같애요."

서울대 각 단과대학별로 불교학생회가 조직되었고, 또한 서울대 전체 불교학생회의 기구인 총불회가 탄생한 것이다. 전재성은 농대불교학생회장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총불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 즉 대불련과도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대불련 회장은 12년차 중앙대 윤세원이었고, 전재성은 이 때 총무부장을 맡았다.

서울대 총불회 활동은 물론 대불련에서도 활동을 넓혀갔다. 당시 서울대 총불회는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강창일(現 민주당 국회의원) 선배도 만났다. 자연스럽게 시국토론으로 이어졌고 전재성 역시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동승하게 된다. 이 때 전재성은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한 의식화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⑪

한 생각 비우고 생생한 정신으로 열심히 살라

경봉 스님이 밀양 무봉사(舞鳳寺)에서 지내실 적의 이야기이다. 스님은 극락암에 주석할 때 한 청년 얘기를 법문 중에 자주 했다.

하루는 청년 신도가 경봉 스님에게 다가와 빚을 내 산 시계를 자랑하고 기분 좋아했다. 당시만 해도 시계가 흔할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청년은 시계를 잃어버려 얼굴이 오이꽃처럼 야위어서 찾아왔다.

"자네 부모님 태중에서 시계를 가져왔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경봉 스님은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이야기를 청년에게 들려줬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얘기인즉 이러했다.

옛날 경주에 정만서(鄭萬瑞)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한양으로 가다가 노잣돈이 떨어져 이틀이나 굶게 되었다. 정만서는 허기에 지쳐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 기둥에는 삶은 소 낭신이 걸려 있어 군침이 돌았다.

정만서는 낭신을 썰어 달라고 하여 술안주 삼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돈 한 푼이 없으니 술 먹으러 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정만서를 지켜보고 있던 주모가 참다못해 쫓아와 말했다.

"여보시오. 다른 손님들도 술 마시게 자리를 비켜주고 계산을 하시지요" 했더니 정만서의 말이 "주모, 암소 잡은 요량하소"하는 것이었다.

>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 '암소 잡은 요량' 하고
>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주모의 소리가 커지자 뒷방에 누워 있던 남편이 나왔다. 사내는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술장사 30년에 저런 놈은 처음 보겠네.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만서는 사내를 보자 인사를 나누자며 손을 내밀었다. 사내가 정만서를 모를 리 없었다.

사내가 고기 값은 놔두고 소리나 한번 해보라 했다. 정만서는 온갖 장기자랑을 다해가며 춤도 추고 소리도 했다. 그러자 지나가는 손님들이 주막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고, 덕분에 주막의 술도 금세 동이 나버렸다.

며칠 뒤 무봉사를 다시 찾은 청년은 경봉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며 말했다.

"스님의 말씀가운데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야기는 속이 시원하지 않더니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얘기에는 한 생각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갔습니다."

"다행이다. 사람과 물질에 걸려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거든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말을 생각하라. 그러면 한 생각 막혔던 것이 풀릴 것이다. 한 생각 비우고 생생한 산 정신으로 일하면 절후(絶後)에 갱생(更生)이라, 끊어진 곳에서 다시 사는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해야 한다. 그까짓 것 근심 걱정은 냄새나고 죽은 마음이다. 앞으로는 산 정신으로 부처님 정신으로 살아가거라."

경봉 스님의 '암소 잡은 요량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다시 기운을 찾았다. 훗날 무봉사에서 극락암으로 돌아오신 경봉 스님은 법문 때마다 가끔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이야기를 말했다.

사회에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물질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걱정들이다. 부모 태중에서 나올 때 마누라를 안고 나왔나. 남편을 업고 나왔나. 빈 몸 빈 손으로 나왔으니, 한 생각 비우고 시집, 장가가지 않을 요량하면 맘이 편하다. 이와 같이 경봉 스님은 신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 주시며 힘든 삶에 등불이 되었던 선지식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㉜ 감은사지

동해의 용이 돼 나라를 수호하다



경주의 감은사지

통일신라 불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문무왕(文武王)을 알아야 한다. 그는 신라 통일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문무왕의 정신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감은사지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의 주(註)로 인용된 감은사 사중기(寺中記)에는 문무왕이 왜병 진압을 위해 이 절을 창건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됐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開耀, 682년) 공사를 끝냈다. 금당 밑 섬돌을 파고 동쪽으로 향하는 구멍 하나를 냈는데(金堂砌下東向開一穴)이 구멍으로 용(문무왕)이 금당으로 들어와 돌아다니게 했다. 왕이 내린 유언으로 뼈를 장사지낸 곳을 대왕암(大王巖)이라 했고, 절의 이름을 감은사라 했다."

일찍이 한국미술사의 대가였던 우현(又玄) 고유섭(1905~1944) 선생은 이렇게 노래했다.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偉蹟)을 찾으라. 건천(乾川)의 부산성(富山城)도, 남산(南山)의 신성(新城)도, 안강(安康)의 북형산성(北兄山城)도 모두 문무왕의 국방적 경영이요, 봉황대(鳳凰臺)의 고대(高臺)도, 임해전(臨海殿)의 안압지(雁鴨池)도, 사천왕의 호국찰(護國刹)도 모두 문무왕의 정적(政經的) 치적이 아님은 아니나,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으라…."

경주를 지나 동쪽 추령고개를 넘으면 동해구(東海口)가 있다. 동해구는 동해의 입이란 뜻으로, 신라 당시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문무왕조에는 "문무왕이 동해구(東海口)의 대석 위에 장사를 지냈으며 속전(俗傳)에는 왕이 용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감은사는 현재 쌍탑과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다. 감은사지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탑과 건물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미륵사지탑과 정림사지탑으로 대표되는 백제계 석탑과 분황사탑으로 대표되는 신라계 석탑은 삼국통일을 맞아 한국 석탑의 전형 양식을 낳았다. 감은사지 동서 석탑에서 시작된 쌍탑 양식은 우리나라 석탑의 전통을 이뤘다. 이것이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사찰 구조인 '1금당 2탑'의 양식이다. 후대에 조성된 석가탑의 모양은 날씬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약간은 육중한 느낌이 든다.

경주 감은사지는 문무왕의 정신 담긴 곳
고유섭 선생 "경주가거든 대왕암 찾으라"

1959년 감은사지를 발굴하던 발굴단은 특이한 유구를 발굴한다. 바로 석상(石床, 돌 덮개)이다. 늘어선 돌 덮개들과 흙바닥 사이에 높이 60㎝ 정도의 지하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감은사 터 금당 밑에 마련된 이 지하공간은 문무왕이 국가 안위를 걱정하며 출입했던 곳이다. 문무왕은 평소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용이 돼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불법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하려던 문무왕의 흔적에서 우리는 신라인들의 신앙의 일면을 찾을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13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6월 30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파동이 아니고,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은평구 작명 www.goodname114.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사주 통변술 강의
사주, 궁합, 택일 등
사주 초보부터 실전까지
비법특강합니다
그룹지도, 개인지도
수시접수
010-8606-6151
현인스님 합장

종법황제 추대, 각 장관 초빙
▶종법황제추대자격 : 종무청, 황실 대외적으로 육성운영 능력자.
▶각 장관 초빙 – 종무청 대외적으로 종무정책 육성운영 능력자.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문화 종무청 (승인된 종무자치기구)
조직위원 법광
011-412-8040

요양 보호사를 모십니다
▶ 근무조건 : 주야간 2교대, 주 5일 근무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식사제공
▶근무처 :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번지 붓다마을
▶연락처 : 02)3156-7511
010-9894-750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염 불 과 역 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1대1 개인지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서울)
011-716-3811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육임통변 및 실전사주 명리강의
031)666-7732
011-472-5928
청운사 경담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백병산, 사계절 풍광이수려하고 포근하며 남한강 자락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맑은 공기와삼림욕을 만끽하며 달마대사의 수련법인 기공참선을 통한 심신단련과기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산사체험을 권장합니다.
수련 031)772-2020
문의 010-4641-5474
대웅사(경기 양평) 주지 일학

사 업 대 박 !
약사대불영험도량
개운비법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49재 선박중장비고사
조상령 , 태아령 , 빙어령 등
(각종불교의식 전문가,무형문화재 이수 스님팀 구성)
東禪 전국(예약시)출장환영
상담문의 010-3563-2566
070-4256-2566 도선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 삼척
010-9416-7743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한국에서 부전할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야한다.
– 법구경 –
영가천도도량 약천사 협찬 02)3391-8523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법인 종단양도
법인 불교단체양도
011-412-8040
법광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좋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회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여법하게 염불하실 50대 비구 스님 모십니다
▷ 안양 / 태고종 스님
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031)471-6675

대작불사에 동참하실 주지스님과 공양주보살님, 종무소 사무장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1577-4755

공양주 보살님, 종무소 보살님(pc,운전가능자) 모십니다
▷ 경남 울주군 보덕사
052)264-5471
011-368-3882

수년동안 수행해 온 적빈한 60대초 비구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전을 통하여 집필한 작품출판에
동참하실 많은 불자님들의 도움 주실 것을 하소연과 함께 앙망합니다
011-684-9201
무위포교원 지연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상운사 / 55~65세
010-4534-3382
033)482-33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북한산성 용암사
011-9350-3216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 경북, 부부환영
010-8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79-0024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북산스님(변병두) 5월 29일 이후 연락두절 되었으니 속히 연락바랍니다
011-393-0013

금강계,태장계,청동 비로자나 부처님(2분) 모셔가세요
몇년전에 조성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필요하신 스님께 양도하고자 합니다
높이 3m(10좌) 노천에 모셔도 좋고 큰법당에 모셔도 좋습니다
꼭 필요하신 스님이나 신도님들께서는 연락주세요
010-9062-3877

법회안내 (수행의 나침반) 강의
전불심법 자정수행 가지방편 개오도량
▶ 불교중요경론 핵심을 선별하여 강의
▶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님,전법사 및 사부대중
▶ 수행의 나락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부대중
불교를 알고싶은 사람, 수행을 해보고 싶은사람은 오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7~10시. 청지사도량 수행은 아란야처
불음청지사 02)963-6345. 011-334-2507 정묵 합장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모집
1.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2. 행자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3.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단체시간 외 1인 1실, 삭발 5.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6.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 수행
☎ 053)474-8228 / 010-2488-8228
감포도량 무문관 재가 수행자 모집 ☎ 054)753-8228
입방 후 문 폐쇄. 연령 제한 없음. 기간 -보름이상 자유

양파엑기스 판매 (효능)
혈당낮춤, 거담, 발한, 이뇨, 혈액순환촉진, 해독, 소화촉진, 해열, 관상동맥확장, 콜레스테롤상승억제, 항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병, 괴혈병, 신경질, 신체허약, 기관지염, 코감기, 피부병, 궤양성피부염, 발모촉진, 장염, 감기, 빈혈,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궤양, 부인질병, 설사, 변비, 동맥경화, 고지혈증, 대장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1박스(50포) 가격 3만5천원 / 4박스정도 복용효험확실 특별보급가 12만원
http://cafe.daum.net/jijangsw

역 학 개 인 지 도
누구나 쉽게 한달이면 마스트 해드립니다
모든 비법도 가르켜 드립니다. 바로 쓰실수 있도록지도함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장
운세상담 사주. 신생아작명. 궁합 택일 . 기치료. 빙의
천도재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서울전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6번출구뒤 구룡암(활산선원)
예약상담 02(6081-9999) 송금후 전화상담가능
H.P : 010-6436-9888 선원장 혜자스님 합장

탈 종 공 고
● 법 명 : 해법(김인섭)
● 승려증번호 : 08-23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6월 29일 (수) 오후 2시
7월 6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 5번출구 동작구청 옆

전 통 침 술 개 인 지 도
개인지도 내용 , 침구학 기초이론
인체과학과 접목한 전통침술 및 사암침술
경혈취혈요령과 자침실기
● 교육기간 : 1주 1회 4시간씩 2개월간 또는 1주 2회 4시간씩 1개월간
● 교육방법 : 실습을 겸한 개인지도 형식이며, 방문지도 함(전국)
● 전 화 : 010-4054-7110
2개월의 개인지도로 자신있게 침을 놓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보선의 삼오침' 쳐보세요.
현 대 침 의 학 연 구 소

고불대학원 염불의식 법회
각종 제의식(49재, 천도재)등 법주 위주의 실제행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일반 불공의식 포함) 속성완성 지도합니다.
※1:1 화상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 기간 : 12주 – 24주 (습득 열정에 따라 단기 수료가능)
• 일시 : 불기 2555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13~17시
• 일반 : 수강료 월 5만원
• 문의 : 02)957-9882. 010-7387-2833
• 강사 : 화엄벽력
대한불교 전법도량 용화사 고불대학원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2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가액 : 2억 5천
  납골당 2000기중
  미분양 1500기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암 자

- 총대지 : 약 1,000평
- 법당 및 용왕, 산신, 요사
- 주지 스님 열반관계로 급 양도
- 가액: 2억 5천만원

울산 웅촌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소재
- 부지 : 300평 (종교용지)
- 법당 : 25평 (목조, 단청)
- 요사 : 40평(현대식)
- 기타: 산신각, 마애석불등
- 가액: 2억 6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 산사로 포교지로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 부지 : 500평 (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기타: 산신각, 석등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시다 소장하고 계신 그림 도자기 등 귀중한 물품을 무료감정해드립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여주 이천 중간,국도 42번도로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 주차공간 넓음, 평수 30평
- 오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범종
- 인터넷, 컴퓨터, TV, 전화
- 해외이주를 위해 보시가격으로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900만원(시설 A급,상담 후 결정) 해외이주관계로

빌라(급)양도

- 위치 : 여주 이천 중간 국도 42번 정류소에서 10분거리
- 현재 성남 장원 IC 공사부근 빌라
- 평수 24평, 4층 건물에 4층
- 방3, 거실, 욕실, 주방,베란다
- 걸망풀고 휴식공간, 공기 좋고, 조용한곳
- 가액: 5300만원(아주 착한 가격)
- 해외이주관계로

010-6880-8803

포교원안내

- 대구 두류공원 성당 못 근교
- 시설(포교활동 위치) 최상급
- 법당, 방3(상담실)화장실
- 주방: 아파트식 넓은 시설완비
- 총평수: 65평(4층 전체)
- 옥상: 옥탑창고 2개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인연되시는 스님 상담후 형편에 맞게 시설비는 결정

011-807-004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나주시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3평반, CC카메라 시설
- 사찰 주변 계곡 물흐름
- 20년생 대봉나무 41일주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1호선 국도 8분
- 가액 5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 8억(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급)안내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방1, 공양간, 법당
- 삼존불봉안(미타, 관음, 지장)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6227-5965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황토기 토굴안내

- 2층단독주택25평
- 법당,왕쑥뜸기토굴방
- 암이나 당료가심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꼭 받아야 하실 스님,불자님께 양도하고저합니다.
- 기타 생활도구 일체양도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조금있음

010-8585-038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3층건물, 단층건물 100평
- 대지 230평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보전관리,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 있음
- 임야, 논 950평
- 계곡과 자연경관 수려함
- 가액: 6천 6백만원

010-2887-4140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건물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양도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경기도 안성시내 최고중심지
- 3층건물 전체 약 20평
- 1층 : 친견실 및 공양간
- 2층 : 법당,삼존불,신중,칠성, 산신,영단,원불외 모든시설완비
- 3층 : 요사채
- 가액: 2억 5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함

010-8678-05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야동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모든 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가액: 종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이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편리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점촌동
- 대지 93평
- 법당 7평
- 부대시설 요사채 3동
- 가액 1억

011-9370-4043

임법당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평수 147평, 실사용평수 20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집기일체 포함

010-8751-380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팔도시장 내
- 평수: 33평,
  상가건물 3층중 2층
- 법당: 삼존불, 시설완벽
- 임대료: 전세 1,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800만

010-5582-302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토굴터안내

- 위치: 충북 영동 계곡 청정지역 금강상류 도보로 15분거리
- 답 1,000평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
- 마을 거치지않음
- 전기, 지하수 시설 되어 있음
- 가액: 평당 5만5천원

010-4526-9588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장어진
- 평수:30평
- 전, 월세 가능
- 가액: 답사 후 절충

017-849-3686

납 골 공 원

- 위치 : 전남 장성
- 면적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 20억

062)431-848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 조방앞)
- 평수 30평, 2층
- 법당: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852-75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8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 법당(조립식) 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 세면장,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단정하게 꾸며진 포교당

- 위치 : 대구시 서구 비산동 (서문시장2지구근교)
- 2층 법당,방2,주방,세면장
-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처음으로 도심 포교에 원력갖고개원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 포교및 운영기간이 충분함
- 보증금2백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3)526-0108/010-9121-7114

여기엔 어떻게 온 것이지? 혼자 온 것이냐?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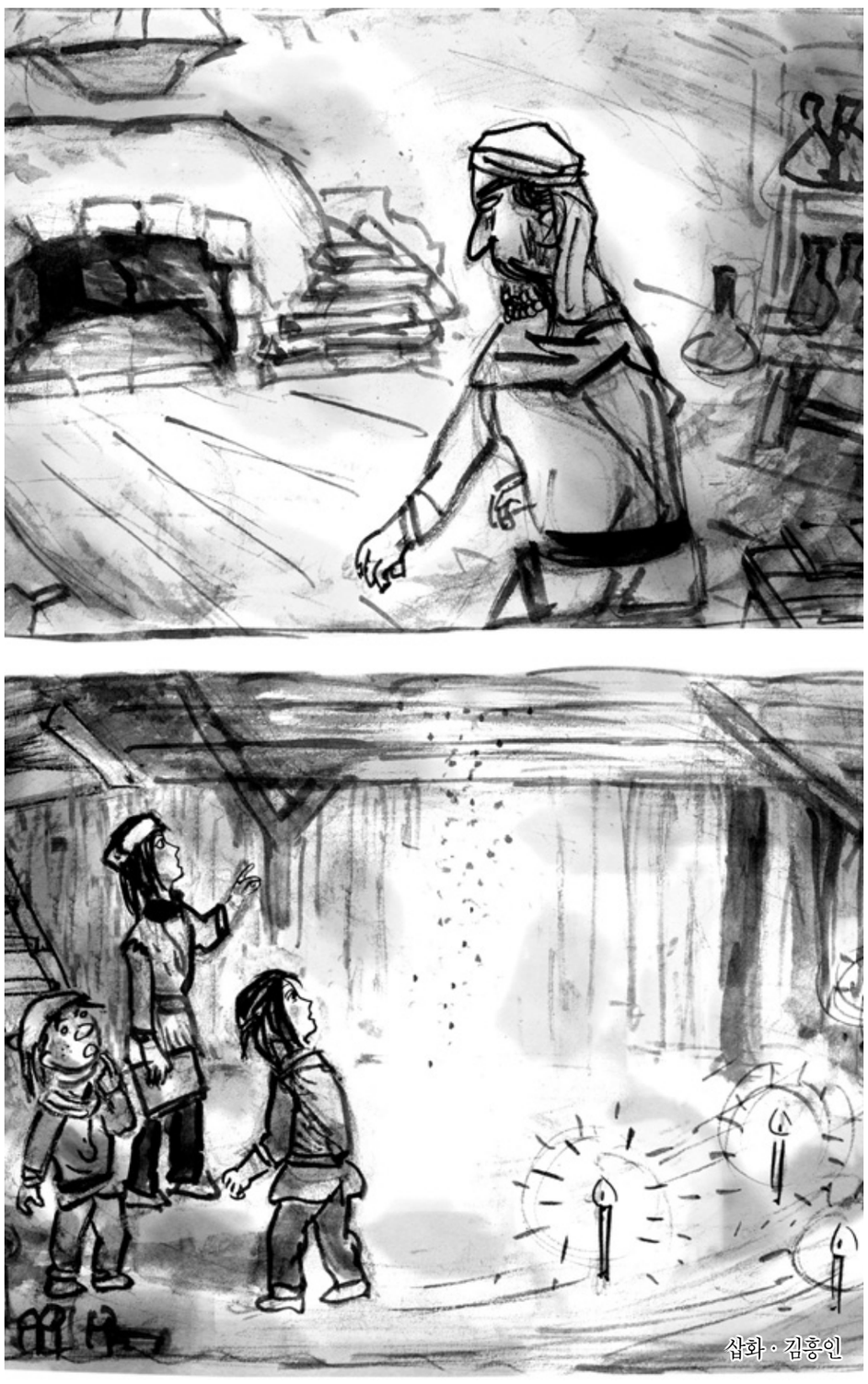
그 순간, 무니는 말을 멈췄다.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난다는 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다. 정말 용이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한 번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마을 노인들은 난다가 유리 영감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말들을 하고는 했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외면하지 못했다. 특히 그게 낯선 종류의 것이라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늘 자신보다 이성적인 난다지만, 이럴 때면 어디 한 군데가 고장 난 것처럼 굴었다. 무니가 다시 난다를 다그쳤다.

"야. 내 말 안 들려?"

그러나 난다는 정말 들리지 않는다는 듯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카는 그런 난다를 너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며 무니에게 물었다.

"쟤 책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다도 원래는 무니와 비슷해서 책 읽는 것보단 노는 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지더니 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점점 더 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오죽하면 무니가 '얼음의 성'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내내 '쿠샹의 도서관'에만 있었을까. 난다는 어차피 그들의 목적지가 도서관이었으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니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 난다는 분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무니는 난다가 왜 그렇게 책에 집착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연금술사가 사르나트의 바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수레바퀴 중 은빛 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그걸 눈치채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바퀴의 속도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 빨라지고 있었다. 유리 영감의 비망록에는 은빛 바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으며, 한 바퀴를 완전히 돌기 전에 수리아의 검 조각을 다 모아야만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은빛 바퀴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뿐더러,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이라고는 달랑 두 개뿐이었다. 유리 영감이 남긴 책과 리시의 예언서 한 권만 가지고서는 수리아의 검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난다는 어디서든 책이 있는 곳엔 꼭 들렸다. 그러다 결국 가장 방대하다는 '쿠샹의 도서관'에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책들을 찾아낸 것이다. 난다는 그 중 몇 권을 그곳에서 몰래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 그 고대의 문서들을 일일이 다 해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무니는 난다가 가끔 사르나트의 바퀴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무니 자신은 이상할 정도로 바퀴의 속도가 전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검 조각을 모두 모아 수리아의 검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전에 수레바퀴가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삽화 · 김홍인

"야, 근데 저거 무슨 소리지?"

그때였다. 남카가 낮은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각자의 생각에 골몰해 있던 무니와 난다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봤다.

정말 어렴풋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풀피리와 비슷한 소리였다.

"칸타카다! 분명 그 술주정뱅이가 집 쪽으로 오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난다, 이 자식. 너 때문에 또 이게 뭐야!"

무니의 추측은 맞았다. 연금술사의 발걸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아침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취한 것처럼 멍해있던 눈동자는 어떤 기대감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자 발걸음을 점점 더 빨리했다. 소년들에게 신호를 보낸 후 몸을 숨기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던 칸타카는 연금술사가 바로 자기 옆을 스쳐지나가자 얼어버린 듯 멈춰 섰다. 그렇지만 다행히 온통 들고 있던 책에 정신이 팔려있던 연금술사는 멀뚱히 서 있는 칸타카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갔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가 '탁!' 하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건드리자 등불이 켜지면서 집 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는 병들을 대충 밀어낸 후 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촌장이 이걸 어떻게 알고 빼뒀을까.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은 자일지도 모르겠어."

혼자 중얼거리던 그는 기념으로 술이 빠질 수 없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방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술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집 안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자신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방문객이 하나도 없던 집이었다. 지독한 유황 냄새 때문에 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익숙한 이 공간에서 어쩐지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집 안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화덕 아궁이에서 멈췄다.

한편 지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년들의 귀에 '달칵!'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다! 들어왔나 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난다가 말했다.

"뭐야. 그럼 이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갇힌 거야?"

정말 싫다는 투로 무니가 말했다.

"조용히 좀 말 해. 위에 다 들리잖아."

이미 바닥에 주저 앉아있던 남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두 소년은 입을 다물었다. 남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이젠 니네 둘만 문제가 아니라, 나까지 큰일이잖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던 난다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다. 그때 희미하게 콧노래가 들려왔다. 아침에도 들었던 소리였다. 그런데 무니가 어쩐지 불길하다며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콧노래 소리가 뚝 끊겼다. 무니와 남카의 시선이 마주쳤다.

"확실히 불안한데?"

위기감을 느낀 건 남카도 마찬가지였다. 무니는 난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난다는 아랑곳없다는 듯 이제는 책장의 책까지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남카는 그런 난다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난 책 읽는 사람도 별로 본 적 없지만, 저렇게 책만 보는 애는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어."

"앞으로도 다시 못 볼 거다, 아마."

"근데 저 녀석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무니는 난다를 흘낏 쳐다보고는 말했다.

"어쩌겠어? 어차피 들키거나 이렇게 갇혀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야,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무니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난다에게 다가가 읽고 있던 책을 뺏으며 말했다.

"자, 이제 방법을 내놔 봐."

난다가 놀라서 무니를 쳐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난다가 뭐라고 입을 열려던 찰나, 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대로 세 사람은 또다시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정말 둘 중 하나네."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남카가 한숨을 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역시 위쪽을 바라보고 있던 무니가 남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는 고개를 내려 난다를 쳐다봤다.

"그래. 차라리 들키는 게 낫겠다.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고. 아까 거긴 창문이라도 있었잖아."

그때 그들 앞으로 흙덩이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아궁이 쪽이었다. 이건 지금 정말 누군가 화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네 소원대로 되겠는데?"

남카가 무니의 말에 또 뒤늦은 장단을 맞췄다. 마치 다 포기한 듯한 말투였다. 무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남카쪽을 쳐다보는데 또 다시 '후두둑!' 하고 소리가 났다.

연금술사는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지?' 문득 촌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그의 생각은 지하 공간까지 미쳤다. '어떻게 알고?' 그러나 그가 화덕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연금술사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더니, 갑자기 문을 확하고 밀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등불을 들고는 집 밖을 나섰다. 그리고 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다 결국 칸타카의 흰 꼬리를 발견했다.

"네 녀석이었구나."

그는 웃으며 칸타카에게 다가갔다. 칸타카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무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여길 왔지? 네 주인이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닌데 말이야."

연금술사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주 예전에 내게도 너와 같은 종류의 말이 있었지. 그래서 널 보자마자 탐이 났지만 말이야. 너희 종들은 정해진 주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이제 주인의 운명도 알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으니 말이야. 후후. 그런데 도대체 여기엔 어떻게 온 거지? 혼자 온 것이냐?"

불자정보 84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평수 약 60평
• 3층 건물 中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010-5685-2229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 평수 70평
• 방4개, 법당, 삼존불
• 보증금 3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90-480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 IC 10분거리
• 조립식 법당 23평, 요사 11평, 산신당 5평, 스님방
• 총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
• 20년된 사찰, 법당 앞까지 주차가능
• 가액: 9천만원 (절충가능)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4618-7063
010-7450-7011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문암리 부근
• 대지 220평, 임야 168평, 밭 754평
• 요사, 산신, 용궁, 해수관음이 모셔져 있음, 법당 25평
• 가액: 3억 7천만원
010-8801-38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대로변 아파트 밀집지역
• 양쪽으로 재래시장, 생활권포함
• 평수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불단시설포함)
• 시설을 직접 바꿔서 최신 A급
• 보시고 결정하세요,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전화 요망
• 건강 문제로 급 양도
010-3827-686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
• 구봉산 등산로, 전망 좋음
• 상가주택
• 대지 60평, 건평 90평
• 뒤에는 주택과, 앞에는 구봉산 등산로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9천만원)
010-6668-2249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김해과학고 부근
• 평수 : 45평
• 3층건물 중 2층
• 부처님, 집기일체, 요사채, 후원, 방2, 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576-047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
• 불교종단부지: 교육연수원부지 전+임 합 7만
• 5천평 서울1시간거리, 재약산, 매봉, 비룡산 수정봉등 주택, 불교쪽 매입시 조정가능
• 가액 40억
주인직 010-6460-1316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可
• 現불교대학, 서실, 다실운영중
• 큰방 5(초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010-6797-3223

암 자 안 내
경북 영양 일월산 부근에 한옥 1동
현재 인법당 부지 150평
국유지 200평, 암자 35년세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도함
위 암자에 대한 문의시 상세설명
암자주소는 미공개함
가액: 4800만원 , 주인직
010-3538-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죽전동
• 지하철 5분거리
• 3층건물 2층, 45평
• 보증금 500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절충
• 방2개 주방겸 넓은 거실 살림 가능
• 도심속 위치 좋습니다
• 참 좋은 인연이었어면 합니다
010-6616-8025

포교원 안내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 이룩하여,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
010-8667-1200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
• 실평수 5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비 포함
016-614-8730

도심 포교원(급)안내
18년 역사 포교당
서울특별시 인근 신도시 (인구 30만)
서울역에서 전철로 35분 및 반포대교에서 자가용으로 35분거리
건평 총면적 101평
법당과 시민선방완비
주지실, 기도법사실, 종무소 별도
모든 살림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1천 5백만원
010-3474-005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⑩**

태평화(太平花)와 매화점(梅花點)


사찰 기둥머리에 달린 대표적 문양인 태평화와 매화점

한국의 어느 사찰이든지 가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방색의 단청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오대 궁궐의 아름다운 단청들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서원들에도 기본적인 단청이 있다.

그렇다면 단청이란 무엇인가? 단청은 본래 여러 가지 색을 써서 목조 건물을 장엄하거나 공예품 등을 채화해 의장한, 이른바 서(書)·회(繪)·화(畵)를 총칭하는 것으로 작업과정이나 채색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단청은 사상적으로는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청에 쓰는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의 각 색깔들은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의 오방,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 금목수화토의 오행과 청룡·백호·현무·주작 같은 수호신의 개념들을 함께 포함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청의 기록은 A.D. 2세기에 솔거(率居)가 그렸다는 황룡사(皇龍寺)의 노송(老松)벽화이다. 이를 통해 고신라에도 단청이 보급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에 시설돼있는 단청을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록하단(上綠下丹)이다. 건물의 상단부분은 초록색 중심으로 칠하고, 하단 부분은 붉은 색을 칠해서 음양의 효과를 나타내며, 조화로운 빛깔을 보이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과 상징들을 그리는 단청의 역할이다.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을 비롯해, 갖가지 길상문등과 비천상, 용과 봉황, 기린, 사군자를 비롯한 아름다운 문양들이다.

그러나 어느 사찰이든 건물의 기둥머리에는 단순한 흑백의 문양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문양이 바로 창방부리와 평방부리에 위치한 태평화와 매화점이다.

태평화는 연꽃처럼 넓은 꽃잎을 네 갈래로 편 후, 사이사이로 꽃잎을 넣은 상상화이다. 매화점은 단순한 동그란 점을 검은 색 바탕에 일곱 개의 흰 점을 일정하게 찍은 것이다.

사찰에서 여성불자들을 안내할 때면, 가끔 태평화를 보여주며, 꽃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퀴즈를 내곤 한다.

대부분 "여러 분들이 미스코리아나 미스월드에 나갔는데, 심사위원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답을 해야 미스코리아로 뽑힐 수 있다"는 힌트를 주면 알아맞힌다.

바로 이 꽃은 천하태평법륜전(天下太平法輪轉), 즉 '하늘 아래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부처님의 법이 잘 전해지이다' 라고 하는 태평을 뜻하는 꽃이다. 상상의 꽃인 이 꽃을 어느 사찰의 어느 건물을 그리든 가장 많이 그리는 꽃인 걸 보면, 평화를 향한 중생의 강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태평화는 꽃잎을 그려낸 상상화
매화점은 동그란 점을 찍어 표현

그 다음으로 많이 그리는 문양이 검은 바탕에 흰 점을 일곱 개 그리는 매화점이다.

매화는 깊은 상징성이 담긴 꽃이다. 어느 건물이든 왜 그렇게 많은 매화점을 그려놓는가는 송나라당시에 어느 비구니스님이 지었다는 다음 시가 말해 줄 듯하다.

終日尋春不見春 (종일심춘불견춘)
芒鞋踏破嶺頭雲 (망혜답파령두운)
歸來笑撚梅花臭 (귀래소연매화취)
春在枝頭已十分 (춘재지두이십분)
하루 종일 봄을 찾아 헤메이나 봄을 찾지 못하였네
짚신을 신고 산에 올라 구름 속을 살펴 보았네
못찾고 돌아오니 매화향기에 웃음짓고 보니,
이미 봄이 매화꽃가지에
와 있더라.


동화사 포교국장

우리 땅에는 언제나 평화의 봄이 올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지루한 계절이 더디기만 하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5** 무엇을 할 것인가



바늘 끝도 들여놓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생각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비질로 쓸리지 않던 아침 햇살은 한 점 구름이 쓸고 간다. 오늘 이 비 한 자루를 들기 전까지 무엇을 했던가. 겨울을 알았고 봄도 알아낸 나뭇가지에는 푸른 잎들이 날아와 앉았는데, 쓸어도 쓸어도 비워지지 않는 마음속엔 폭포 끝에 이어지는 폭포뿐이다.

세존께서 이르고 가신 구절구절이 창 너머 어두운 서안(書案) 위를 맴돌고 있을 때, 겨우 저녁 종소리가 끊어낸 생각들은 다시 폭포를 이룬다. 오늘 이 저녁 종이 울리기 전까지 무엇을 했던가. 구름도 한 순간에 알았고, 햇살도 한 순간에 알아버렸는데, 두고 온 서안 위에는 주인 없는 글자들만 쌓여간다. 오늘이 있기까지 무엇을 했던가. 내일 또 다시 비를 들고, 저녁 종이 울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⑭ 조선 청매인오 선사의 '삼조 승찬의 풍양(三祖風恙)'**

땅에서 넘어진 자 땅 딛고 일어나라

因泥而倒從泥起 (인니이도종니기)
病藥由來在一身 (병약유래재일신)
嶺上浮雲風掃盡 (령상부운풍소진)
蒼蒼落落更無塵 (창창락락갱무진)

진흙에서 넘어지면 진흙을 딛고 일어서야 하듯
병과 약은 한 몸에서 유래하는 것.
고갯마루 뜬구름 바람에 쓸려버리면
질푸르고 말끔해 다시 티끌 없네.

조선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 스님은 청허 스님의 제자로 임란 당시 '중생의 온전한 삶이 바로 안락국' 이라고 하며 경전을 덮고 의병장으로 참여,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려 하였다. 더불어 철저한 선(禪)수행자로서의 법을 베풀기도 했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곳을 '서천세계' 로 묘사한 월사이정구(月沙李廷龜)등 사대부와 승려라는 신분을 초월한 방외(方外)의 사귐을 갖기도 했다.

위의 시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함을 꺼려할 뿐" 이라는 〈신심명(信心銘)〉을 저술한 삼조승찬 대사가 이조 혜가 대사에게 출가한 일에 대한 인오 스님의 송(頌)이다. 승찬 대사가 혜가 대사를 찾아가 물었다. "제가 문둥병이 들었으니 스님께서는 저의 제를 참회케 해 주소서" 혜가 대사가 다시 묻기를 "죄를 가져오너라.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승찬 스님이 대답하기를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하니 "너의 죄는 이미 참회되었느니라"했다.

위 시에서 혜가 스님이 승찬 스님에게 준 응병여약(應病與約)을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는 것에 비유했다. 승찬 스님은 병이 문제가 아니었다. 병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의 병이 더욱 더 깊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이 마음의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고 그 병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치 바람이 불어 하늘 구름을 쓸어버리면 본래 있던 맑고 푸른 하늘이 저절로 드러난 것과 같이.

병은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이 병 때문인지, 몸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산뜻한 새벽을 열어주는 학인스님들의 낭랑한 독경소리를 들으며 약사 부처님께 두 손 모으는 원이기도 하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측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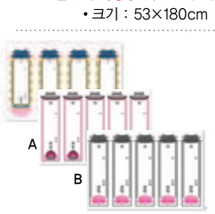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cm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위패칼라(70모조)
위패2도 A형/B형(70모조)
정 가 3,000원(100매)
• 위 패 칼 라 : 268×180㎜
• 위패2도A형 : 270×180㎜
• 위패2도B형 : 268×180㎜


자비도량참법(세로)
할인가 9,000원(20권 이상)
정 가 15,000원


금강경 독송용
할인가 2,400원 (50권 이상)
정 가 4,000원 (144페이지)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조금씩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끝없는 길을 걸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 저는 대구지원에서 왔는데 이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이런 거를 뜻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목요일마다 법형제법회라든가 또 다른 행사 때 스님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고, 특히 스님이 지으신 게송을 곡으로 붙인 여러 선법가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자성불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한테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했을 뿐 아니라 생활에 큰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월급이 좀 적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금액이 좀 흡족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도 되지.' 또 세금을 많이 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돈을 벌어도 내가 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아, 이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 선배, 후배, 직장동료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벌었구나.'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큰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주인공에 맡기는 작업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려고 마음에 원(願)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해외연수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내고 원을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진행이 돼 가지고 회사에서 제게 잠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3개월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도 '아! 왜 이렇게 실천이 잘되는 건가?' 하고 감탄이 되면서 스님의 선법가의 맛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연수하러 가 있는 동안 비록 스님 말씀 들을 기회나 법회에 참석할 기회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원을 내어서 항상 실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연수를 받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저 자신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내면서, 기복 신앙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원장 스님께서도 기복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성불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복으로써 원하고 막 자성불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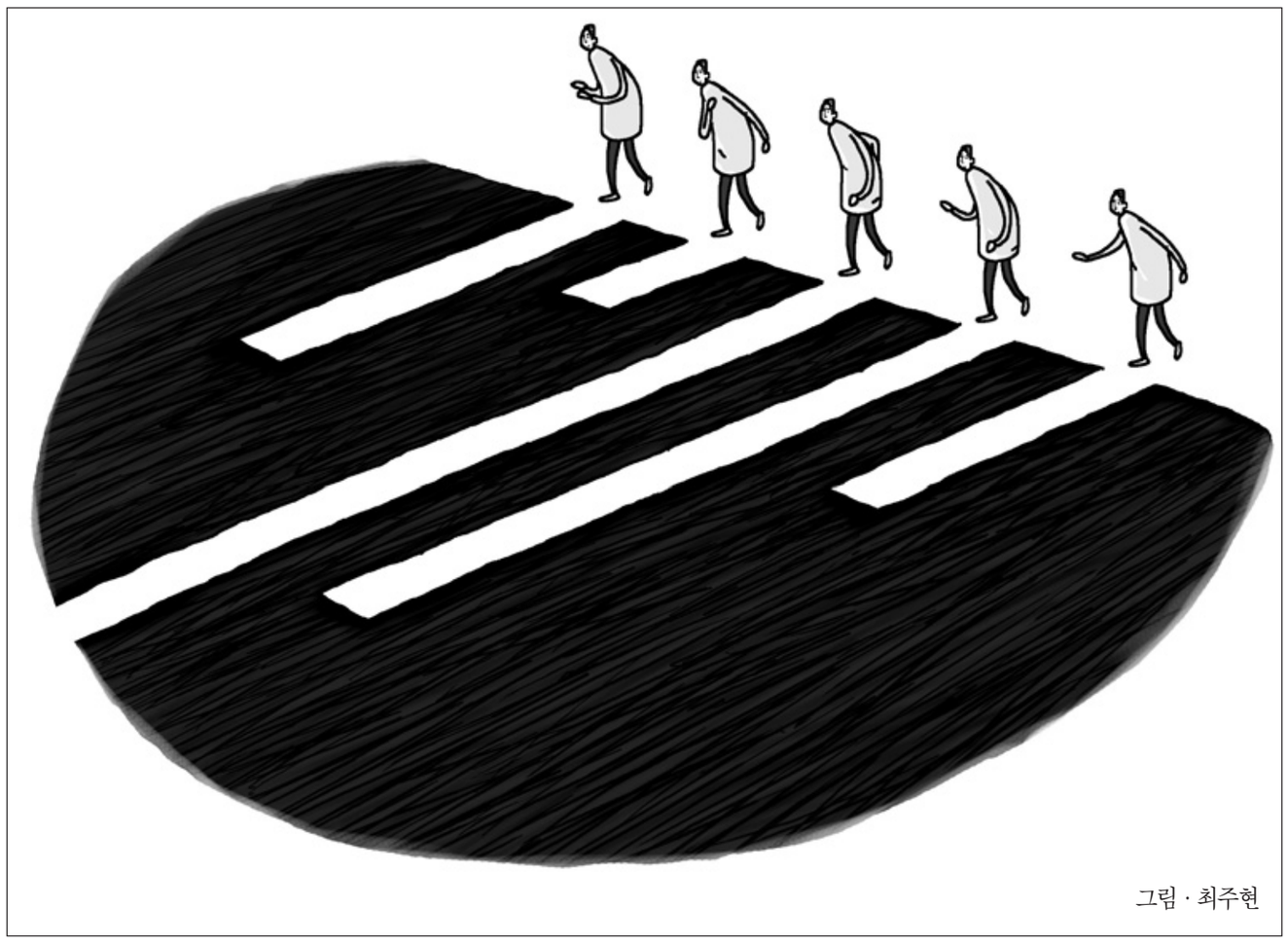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 이 원이라고 하면 언뜻 둥근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원심을 낸 거죠.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천문학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 내가 그 몸속에 있는 의식과 모두 합쳐 한마음을 냈습니다, 한마음으로. 원이라는 그 말이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음을 냈는데, 한마음으로 내 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되돌아가더란 얘기죠. 안에서 한마음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 땐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다 조절을 한다, 한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이 내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거고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찾는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중심에 그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먼저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말을 해야 될 일, 요거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거려야 될 일 등, 이렇게 각각 나가서 자기 소임을 완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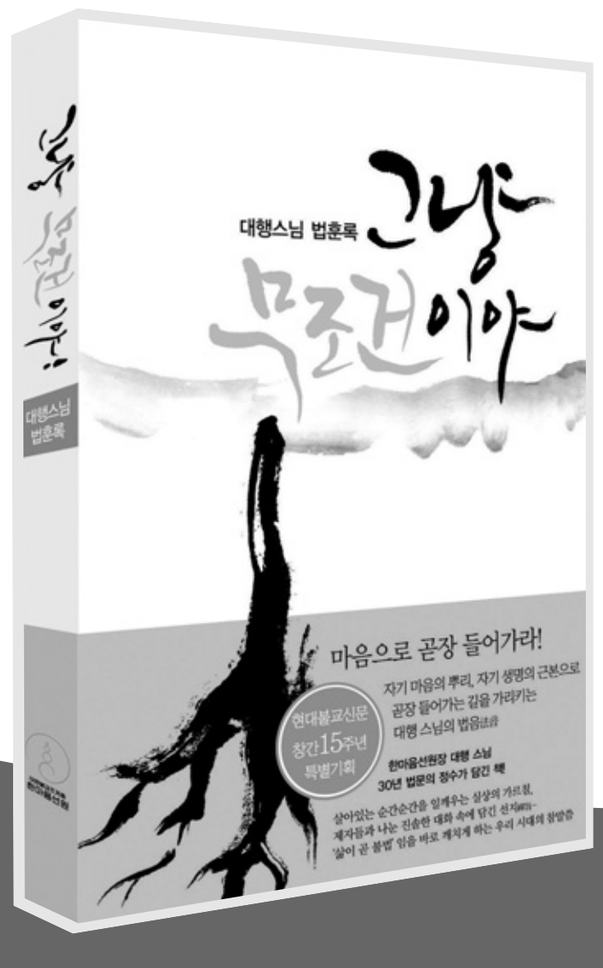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러 드리는 겁니다. 당신네한테 구족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배깁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죽여 버려야겠다.' 이런다면, 벌써 저쪽에서 '흥!' 하고 콧방귀 탁 뀌고 '네가 날 죽여?' 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러고선 오히려 냅다 그리로 몽둥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자비스러우면, 또 그걸 알면서도 몽둥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실의에 되빠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도록 자비를 베풀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실천에 옮겨 보면서, 실험을 해 가면서, 체험을 해 가면서 자꾸자꾸 끝없는 길을 걸어야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년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선천적인 자기의 그 착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건지느냐, 아예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한생각을 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세세생생 건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정말 똥을 누나, 잠을 자나, 밥을 먹을 때나 주인공 생각만 나면은 항상 거기다 놓는 작업을 안 하고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내가 삼천 배를 올려라, 기도를 하라, 정성을 들여라, 또는 몇몇 일을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 합디까?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한생각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 못 내면 중생이다

☞ 29면에서 계속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해 봐라.' 이거죠.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것도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할 줄도 안다. 즉 말하자면 자생중생에, 자생부처에,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한생각과 자기 한생각의 움죽거림이 자생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생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생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불(佛)도 자기의 생명과 둘이 아니죠. 불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본이 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교(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머리 깎은 사람만 믿게끔 되는 게 불교가 아니죠.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인 불(佛)과 한생각인 법(法)과 스님들인 승(僧), 즉 불법승이 다 한데 합쳐서 내 자생삼보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둘이 아니죠.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몸도 둘이 아니요, 만약에 생각도 둘이 아니라 한다면, 즉 그냥 모두가 삼보에 귀의했다 한다면, 자생이다 뭐 부처님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법당에 와서 일정례(一頂禮)를 하든지, 삼정례(三頂禮)를 하든지, 칠정례(七頂禮)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도 부처님 법과 같고, 또 저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내 모습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불상과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댁의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아니죠. 그러니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면은 자기 형상이 무시가 되는 거니까.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스러운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없다면 없는 거죠. 전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문제는 '너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죠. 모두 각자, 너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딨습니까?" 하니까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번연히 이미 부처가 됐다고 하면서도 왜 부처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스님네든 스님네가 아니든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둥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둥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모자라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허! 저게 내가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자랐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전자의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에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선 '아휴, 저거는 그냥 천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리고 외면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렇죠.

>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서 상대방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 **내가 둥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 **항상 평등하고 항상 둥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 자동적인 오신통의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숙명통의 컴퓨터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입력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그냥 전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 걸로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 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를 알면 자동적으로, 그 무너졌다는 빌딩에 들어가다가도 아마 튀어나왔을 겁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 감사합니다.

큰스님 : 네, 그 소리 들으니까 믿음직하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체험을 하고 가시니 말입니다.

질문자2(남) : 질문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다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 편히 앉아서 해 봐요.

질문자2(남) : 예. 큰스님께서는 아쉬운 것 하나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모든 것을 놓고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 감사해요. 내가 어떤 때는 부처님 경전에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복만 얘길 한다면 그게 모두 감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면, 바로 내 자아궁처(自我宮處)에서 바깥과 안 세상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중심,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감사하게 맡기고, 또 슬기롭게 맡기고, 또 굴려서 맡기고 이런다면 다 통신이 되죠. 사대로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거는 제거하면서 안과 밖이 다 잘 이끌어지죠.

누가 큰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랍니다. 아주 돈 벌기는 딱 참한데 허락을 안 하니까 그만 안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회사가 아니고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몇 사람한테서 먹어치웠더랍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자동적입니까? 우리는 어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믿을 데가 있죠?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 속에는 바로 콩씨가 들어 있듯이, 콩싹에 콩씨가 붙어 있듯이, 여러분 몸속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 가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러죠.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3(남) :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태풍이 불어야만이 새로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인공, 정말 나를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 줘 봐라.' 하고 탁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는 실패를 했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인공!' 했는데, 그 순간에도 중생심으로써 분별심은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또 해 보겠다는 각오로 스님 앞에 서서 한 말씀 드리자고 왔습니다. 좀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게끔 스님의 에너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큰스님 :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대를 알고, 또 원리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고,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이루종차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본래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은, '내 콩나무에는 콩씨가 반드시 있다.' 이거를 믿으시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콩나무에 콩 안 붙은 거 못 보셨죠? 하하하…. 그리고 콩씨 심지 않고 콩나무 나는 거 못 보셨죠? 그러니 그건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글쎄.

예전에 천주교에 다닐 때 빵 하나를 놓고 전부 먹이고 되남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었죠. 또 부처님께서는 밥 한 그릇을 놓고 다 먹이고도 되남았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허허허…, 우리 콩씨 얘기가 나왔으니 콩씨로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콩씨든 어떠한 씨든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다 먹이고도 종자 심었던 그 밑천은 그냥 남습니다, 밑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되먹이고도 밑천을 그냥 두니까, 그 이듬해에 또 심어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다 먹인단 말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니 어찌 그게 영원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조상들에게 먹고 살던 관습을 갖지 않게 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떡 하나 놓고 초, 향, 과일 서너 가지 놓고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은공을 기리면서 열심히 그 주인공한테, 부처님과 같은 한자리를 하시게끔, 그저 한도량에 계시게끔 그렇게 관한다면…, 산 사람들이나 먹고 사느라고 온통 헤매지, 아니, 입이 있습니까, 몸뚱이가 있습니까? 뭘 먹겠다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이죠. 생각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드려야죠.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먹고 사느라고 그냥 극매야 하니 상세계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린다고 형제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한다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 그렇게 더 조상들을 옭아 놓는 거죠, 옭아 놔. '요 음식 많이 먹고, 살고 싸우고 죽고 사는 데에 또 태어나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붙들어 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럭하지 마세요. 울고불고, 돈 많이 들이고 또 싸우고, 해 놓고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조상들이 많은 집에는 1년에 몇 번씩 되니까요.

그러니 그럭하질 말고 떡 한 조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증편 한 조각이면…, 둥그런 거 하나를 표시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양 손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한 떡으로 해 놓는 겁니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가님들이 볼 때는 아주 큰 도량으로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끔요. 거기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더 잘될 수밖에요. 온갖 거를 다 차려 놓고 하는 집들은 오히려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고 하는 집들은 아마 고뿔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허허허….

하여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는 영원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인생이 어떻게 가야 삶의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이 내 몸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몸통 속에서 벗어나면 이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고,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면 이 모든 공기통 속에서 또 벗어나고,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면 자유인이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더운데도 공부하는 것을 조금도 귀찮게 생각 마세요. '에이! 더운데 귀찮게 거기까지 갔다 왔어. 놀기나 할 걸.' 그러지 마시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5년 7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사상·역사·인물·문화·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2.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명확·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상식,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6.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 법보시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 각 지역별 판매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불자 세상보기

문화재반환운동 사적 이기심 버려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은 제국주의 시절 약탈되었던 자국의 문화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진정한 문화재 환수운동은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알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실히 우러나올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 환수운동의 당연성은 '문화민족주의' 가 아니다. 민족주의로 접근하면 감정과 분쟁이 강조된다. 따라서 문화재환수운동은 ' 문화민주주의' 가 토대가 되어야한다.

즉, 문화재는 원산지에 있어서 보호되고 활용되고, 약자와 소수자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보편성이 강조되는 문화민주주의가 토대로 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환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연대의 외규장각 환수운동과 일본으로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운동이며,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의 조선왕실의궤 환수 활동, 경기도 이천의 오쿠라재단 측과의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진주의 연지사종 반환운동 등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개인은 문화재 환수운동을 개인의 영예나 포퓰리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으며 사적인 욕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환, 대여, 인도… 무엇이 진실일까? 145년 전 병영지를 불법으로 이탈하여 수많은 조선의 양민을 학살하고, 조선의 국가 재산을 약탈했으나 결국 조선이 승리한 전쟁인 병인양요에서 패퇴한 프랑스 군대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한국정부가 환영행사를 열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병인양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오는 조선왕실의 궤들도 "반환"이 아니라 "인도" 이다. 즉 일본의 재산을 한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 합의문 1조는 '5년 단위의 대여' 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암묵적 영구 대여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합의문의 불어본을 공개해 번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약정서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일본과의 협정문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문화재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한다. 환수운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공과 영예를 국가와 국민에게 돌려야한다.

문화재환수 후 공을 내세우거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문화재환수 운동은 매우 곤란해진다.

특히 환영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이점을 각성해야 한다. 문화재 환수 운동을 포퓰리즘이나 사적인 이기심의 표출로 이용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는 굴욕적이고 자존심을 뭉개며 진정한 문화재 환수 운동을 묵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치루는 '그들만의 리그' 를 즉각 중단하고 외규장각 문화재의 완전한 반환과 아직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반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문화재 환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고 환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도서가 영원히 한국땅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장기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요란한 환영 행사보다 문화재의 완전 반환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5년, 10년 뒤를 대비해야한다.

사부대중 칼럼

오래된 새길, 미래문명을 열어갈 수행과 영성



현희련
에코붓다 팀장

오늘날 우리는 환경문제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구 상에 사는 전 생명이 공멸할 그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과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들조차도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닐까?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공멸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삶의 태도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바꿀 수 있고, 가치관을 바꾸려면 인생관과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환경운동은 단순한 여러 시민사회운동 가운데 한 영역이 아니고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근대문명, 어쩌면 더 이전부터 인류가 추구해왔던 인류문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문명전환운동, 또는 신문명운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적 가치가 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만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윤리, 사회정의까지도 환경윤리에 토대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현대문명의 특징은 소비주의 문명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며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대량생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량생산을 위해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국가나 사회나 인간의 삶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량생산은 한정된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대량소비를 불러오고, 대량소비는 결국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이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식품이 오염돼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잘 살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공멸의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소비중독현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처음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모르고 피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도 멈출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각하는 사람이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질주에서 한 발 벗어나면 마치 세상으로부터 낙오되는 것 같기 때문에 개인, 사회, 국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고타마 싯타르타는 젊은 시절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농부가 채찍을 이용해서 소를 부리고, 관리가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위해서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하며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하며,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고타마 싯타르타는 하나가 살기 위해 하나를 죽일 수 밖에 없는,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있는 이런 삶의 허구를 보고 결국 왕위를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존의 사회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그 길은 모든 존재가 개별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그 존재들이 서로 연관된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이 하나의 손바닥에 연결돼 있듯이, 각각의 손가락이 모양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손바닥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연기적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똑같이 보더라도 약육강식, 자연도태의 관점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해 바라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전환해야 한다. 소비주의 문명, 거꾸로 된 이런 어리석은 문명, 이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야 한다. 오래된 옛날, 이미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오래된 새길' 을 따라 인류문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인류에게 오래 기억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한다.

社說

낙단보 마애불서 시주함 치워야

낙단보 마애불에 시주함이 설치됐다고 한다. 예경을 위한 향로까지 놓여있다지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시주함을 설치한 사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사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알고 보니 사찰 간 갈등이 있었다.

처음 시주함이 설치된 것은 신도들이 마애불에 공양한 공양물의 관리가 어려워서라고 한다. 누군가 매일 같이 쌓이는 과일과 돈을 관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구미 대둔사(주지 진오)가 나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마애불이 돈이 된다 싶었는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조계종의 한 교구본사가 관리를 자처했다. 주지스님은 총무원장스님과 같은 계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단보 마애불에서 시주함은 철거돼야한다. 굳이 종단 내 화합 등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 낙단보 마애불이 어떤 곳이던가? 4대강 공사 중 발견된 그곳은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속이기를 반년 여 끝에 지켜낸 곳이다. 조계종이 역량을 총결집해 진행 중인 민족문화수호운동의 단초가 됐던 곳이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으로 생명평화 운동의 성지(聖地)가 된 곳이다. 이런 마애불 앞에 놓인 시주함을 보면 고작 시주나 받으려고 지켜냈나 하는 오해를 사기 쉽다.

민족문화수호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각자가 민족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가능할 일이다. 돈 때문에 민족문화수호운동의 진의가 왜곡·폄하되서는 안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중요한 대업일수록 몸가짐 하나하나에도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부디 낙단보 마애불이 무위(無爲)의 상태로 보존되길 바란다.

숨은 불자교육인 발굴해야 한다

국내 사립학교 903개 법인 1668개교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된 학교는 12개 법인 24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학교를 통해 불교적 사고를 갖고 배출되는 청소년 수도 적지만 교육인력 적채도 심각하다. 동국대 등을 통해 한해 배출되는 교법사는 10여 명, 그런데 일선 학교의 교법사 정원은 10년에 2~3명이 나올까 말까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재단 중 이사가 스님이거나 신심 깊은 불자인 학교가 수십 곳으로 추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상임부회장(의정부 광동고 교장)은 6월 17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종립학교 교육포럼에서 "많은 스님·불자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함에도 학교교육에서 불교정신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이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종교의 교육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새 법인을 세우고 새 학교를 짓기에 앞서 기존의 법인·학교에서 불자를 찾아내야 한다. 사립학교 가운데 불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학교를 발굴해 불교교육에 동참시키는 것은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

이들 숨은 불교교육인을 발굴하려면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들이 불자임을 밝히는 이유로 (숨은 누군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면, 어드밴티지를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재불사가 성공하려면 불자교육인부터 하나로 모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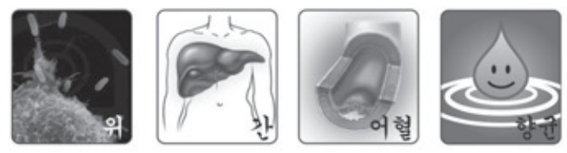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휴대폰 010-9217-2237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崩(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펴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끼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에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